

제5장 한글정자체 韓契正字體 작품作品

한글정자체 작품으로는

언해류 諺解類 관련하여 7 작품

- 임서 1. 홍무정운역훈 洪武正韻譯訓, 1455년
- 임서 2. 훈민정음 언해본 訓民正音諺解本, 1459년
- 임서 4. 삼강행실도언해 三綱行實圖諺解, 1481년?
- 임서 14. 어제자성편언해 御製自省編諺解, 1746년
- 임서 15. 천의소감언해 關義昭鑑諺解, 1755년
- 임서 16. 고문진보언해 古文眞寶諺解, 영조년간
- 임서 20. 학석집(익종) 鶴石集, 19세기

어서류 御書類 관련하여 7 작품

- 임서 6. 선조가 숙의에게 宣祖가 淑儀에게, 1597년, 선조 30년
- 임서 7. 선조어필 宣祖御筆, 1603년, 선조 36년 11월 19일
- 임서 8. 선조대왕어필언간 宣祖大王御筆諺簡, 1603년, 선조 36년 동짓달
- 임서 9. 효종대왕어서 孝宗大王御書, 1652~1659년
- 임서 10. 숙종대왕언찰어필 肅宗大王諺札御筆, 1685년, 숙종 11년 6월
- 임서 11. 숙종어필간찰 명안공주방 肅宗大王御筆, 明安公主房, 17세기
- 임서 12. 숙종대왕언찰어필 숙명공주방 肅宗大王諺札御筆, 淑明公主房, 숙종 25년, 1699년

육성 六聖 즉 효종, 현종, 숙종, 인선왕후, 명성왕후, 인현왕후의 편지와 장렬왕후의 편지를 장정裝幀하면서 신한첩 宸翰帖 곤坤의 첫 장에 정진석이 직접 써넣은 1 작품

- 임서 18. 언서첩 諺書帖, 1802년

옥책문 玉冊文, 홀기 笏記, 제문 祭文, 애책문 哀冊文 관련하여 6 작품

- 임서 13. 소훈이씨제문 昭訓李氏祭文, 1721년
- 임서 19. 유빈박씨애책문 綏嬪朴氏哀冊文, 1823년
- 임서 21. 대전중궁전상존호시왕세자자내친상책보진치사전문표리행례홀기 大殿中宮殿上尊號時王世子自內親上冊寶進致詞箋文表裏行禮笏記, 1827년
- 임서 24. 명성황후상존호옥책문 明成皇后加上尊號玉冊文, 1890년
- 임서 28. 외진연시무동각정제무도홀기 外進宴時舞童各呈才舞圖笏記, 1901년
- 임서 29. 책황귀비홀기 冊皇貴妃笏記, 1903년

유서 諭書, 국서 國書, 밀서 密書, 칙서 勅書 관련하여 8 작품

- 임서 5. 선조국문유서 宣祖國文諭書, 1593년
- 임서 22. 대조선국대군주국서 大朝鮮國大君主國書, 1883년 6월 12일
- 임서 23. 국서제정사 國書提呈辭, 1883년 9월 18일
- 임서 25.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 大法國大 伯理就任祝賀國書, 1894년, 왕실고문서 622
- 임서 26.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 大法國大 伯理就任祝賀國書, 1895년, 왕실고문서 613
- 임서 27.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 大法國大 伯理就任祝賀國書, 1899년, 왕실고문서 617
- 임서 30. 고종황제의 밀서 高宗皇帝密書, 1906년 1월 29일
- 임서 31. 대한의원개원칙서 大韓醫院開院勅書, 1908년 10월 24일

그리고 권선문 勸善文, 예지법 豫知法, 일기 日記 관련하여 3 작품

- 임서 3. 상원사중창권선문 上院寺重創勸善文. 1464년
 - 임서 17. 임산예지법(18세기) 臨產豫知法
 - 임서 32. 서순행일기 西巡幸日記, 1909년 1월 27일~2월 3일
- 총 32 작품을 임서하였다.

1.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 1455년

洪武正韻譯訓卷第三

진眞심申친眞신人辛치親진津
 핀繽빈頻민민진陳린鄰인인
 인紐니紐근鈞긴巾勤인銀근困
 힌欣근羣힌欣준諄춘春순純순
 춘춘존存순순倫문文분분분
 분분근근溫훈昏근坤분분분
 분분문문순순孫춘村준尊툼툼
 툼툼근근敦근臻근莘근榛근
 근근근근寒근看근근근安근
 근寬근官근劄근峤근潘근般근
 근瞞근酸근鑽근攢근端근湍근
 근鸞근桓근曠근刪근散근關근
 환환환환간간顔환頑반반반
 판판만蠻판판潺찬찬란란
 관관환환판판환환난난난난

壬寅無間朴在甲臨書



원본 크기 : 31.3x21.0cm
 작품 크기 : 32.0x42.0cm
 자료 제공 : 정광

홍무정운역훈권3(3~21쪽)의 목활자로 된 큰 글자 한글과 한자를 한장에 모아 임서하였다

전서를 적극 권면하였던 세종은 실용성이 떨어지는 고전古篆의 자형을 훈민정음의 기본 필체로 선정하였다. 이는 새로 만든 문자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실용성을 뒤로 미룬 결과였다.

문자는 필사의 편리성을 좇아서 형태가 변모하고 발전하였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10여 년이 지난 후 발간된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에서는 이미 한글의 자형이 전서체에서 벗어나 해서체楷書體의 자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세종이 추구하였던 고전체의 자형은 실용성에 의해 아주 빠른 시간에 무너져갔다.

박준호, 「조선중기 전서篆書의 유행과 그 의미」,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2011년, 43~55쪽

1455년 홍무정운역훈이 완성된 당시의 한자음은 두 가지가 있었으니, 하나는 우리식으로 발음하는 한국어식 한자음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식으로 발음하는 이른바 중국어식 한자음이다. 『동국정운』은 바로 우리식 한자음을 표기한 자전이요, 『홍무정운역훈』은 중국어식 한자음을 표기한 것으로 이제 모든 한자음을 표준화된 한글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한글은 노랫말 짓기와 한자음의 음값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말과 한자음 표기의 표준화를 일차적으로 완성해가고 있었다. 소재구, 「한글 문화사론」, 『겨레의 글 한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2000년, 168쪽

『홍무정운역훈 권3~16(洪武正韻譯訓 卷三~十六)』은 조선 단종 3년(1455)에 출판된 금속활자본이다. 이것은 세종 때에 작업을 착수하였는데,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 한글에서의 한자음을 바로잡기 위해 세종 29년(1447)에 『동국정운』을 완성했다. 한자의 중국 음을 정확히 표시하기 위해 명나라에서 엮은 한자의 운韻에 관한 책인 『홍무정운』의 음을 한글로 나타낼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홍무정운역훈』으로, 단종 3년(1455)에 16권 8책으로 완성되었다.

현재 1책인 권1과 권2는 없어지고 권3에서 16까지 14권 7책만이 남아 있다. 한글과 한자, 큰 글자는 목활자*로, 작은 글자는 갑인자*로 찍었다. 또한 이 책을 편찬한 취지, 연기 등은 신숙주의 문집인 『보한재집』 권15에 『홍무정운역훈서』가 있어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은 당시의 국문학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목활자

정의

나무로 만든 활자.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목활자를 사용하여 책을 찍었는지 전하는 기록과 초기의 활자본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으며, 고려 말기 1377년(우왕 3) 흥덕사興德寺에서 주자鑄字로 찍어낸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에 목활자가 다소 혼용되고 있음을 보면 그 이전에 이미 목활자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는 왕조 교체의 혼란 상태에서 경제질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요한 자료를 손쉽게 찍어내기 위하여 목활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 예로서 1395년(태조 4) 서적원書籍院이 백주지사白州知事 서찬徐贊이 만든 목활자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를 찍어 형률의 적용에 참고하였고, 1397년 공신도감功臣都監이 목활자를 만들어 『원종공신록원從功臣錄券』을 찍어 공신들에게 반사해 준 것을 들 수 있다. 그 중 심지백沈之伯에게 내린 것이 오늘에 전하여 국보 제69호로 지정되어 있다.

목활자의 인쇄술이 정교하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세종 때부터였다. 1448년(세종 30)에 인행, 반포한 동국정운의 한글과 한자 큰 자는 목활자로 찍어냈는데, 그 새김이 정교하여 그 중 한자 활자는 진양대군 유ჰ陽大君璫의 필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리고 묵개지墨蓋子の 음문陰文은 안평대군 용安平大君瑢의 글씨체를 잘 나타내 준다. 1455년(단종 3)에 찍어낸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도 한글과 한자의 큰 자가 모두 목활자이다. 이것들은 모두 관서에서 만든 활자이기 때문에 정교하여 인쇄상태가 아주 깨끗하다.

갑인자

정의

1434년에 왕명으로 주자소에서 만든 동활자. 계유자·무신자·임진자·정유자·신묘자

내용

1420년에 만든 경자자庚子字의 자체가 가늘고 뾰뾰하여 보기가 어려워 워지자 좀 더 큰 활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1434년 갑인년甲寅年에 왕명으로 주조된 활자이다.

이천李蕝·김돈金墩·김빈金鑓·장영실蔣英實·이세형李世衡·정척鄭陟·이순지李純之 등이 두 달 동안에 20여 만의 큰 중자中字인 대자大字와 소자小字를 만들었다.

갑인자 자본字本은 경연정경筵廳에 소장된 『효순사실孝順事實·위선음증爲善陰鷲』, 『논어』 등으로 하고, 부족한 글자는 뒤에 세조가 된 진양대군晉陽大君 유瑑가 써서 보충하였다. 자체가 매우 해정楷正(글씨체가 바르고 똑똑함)하고 부드러운 필서체로 진짚나라의 위부인 자체衛夫人字體와 비슷하다 하여 일명 ‘위부인자’라 일컫기도 한다.

이 활자를 만드는 데 관련한 인물들은 당시의 과학자나 정밀한 천문 기기를 만들었던 기술자였으므로 활자의 모양이 아주 해정하고 바르게 만들어졌다.

경자자와 비교하면 대자와 소자의 크기가 고르고 활자의 네모가 평정平正하며, 조판組版도 완전한 조립식으로 고안하여 납蠟을 사용하는 대신 죽목竹木으로 빈틈을 메우는 단계로 개량,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하루의 인출량印出量이 경자자의 배인 40여 장으로 많이 늘어났다. 현재 전하고 있는 갑인자본을 보면 글자획에 필력筆力의 약동이 잘 나타나고 글자 사이가 여유 있게 떨어지고 있으며, 판면이 커서 늠름하다. 또 먹물이 시커멓고 윤이 나서 한결 선명하고 아름답

다. 우리나라 활자본의 백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활자 인쇄술은 세종 때 갑인자에 이르러 고도로 발전하였으며, 이 활자는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여섯 번이나 개주改鑄되었다. 뒤의 개주와 구별하기 위해 특히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라 하였다.

이 초주갑인자는 1580년(선조 13)에 재주再鑄될 때까지 140여년간에 걸쳐 오래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해지고 있는 인본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성암고서박물관誠庵古書博物館 소장의 『대학연의大學衍義』,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분류보주이택백시分類補註李太白詩』 등을 초인본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갑인자에 붙여 특기할 것은 이 활자에 이르러 처음으로 한글 활자가 만들어져 함께 사용된 점이다. 만든 해와 자체가 갑인자와 전혀 다르므로 ‘갑인자병용한글활자’ 또는 처음으로 찍은 책의 이름을 따서 ‘월인석보한글자’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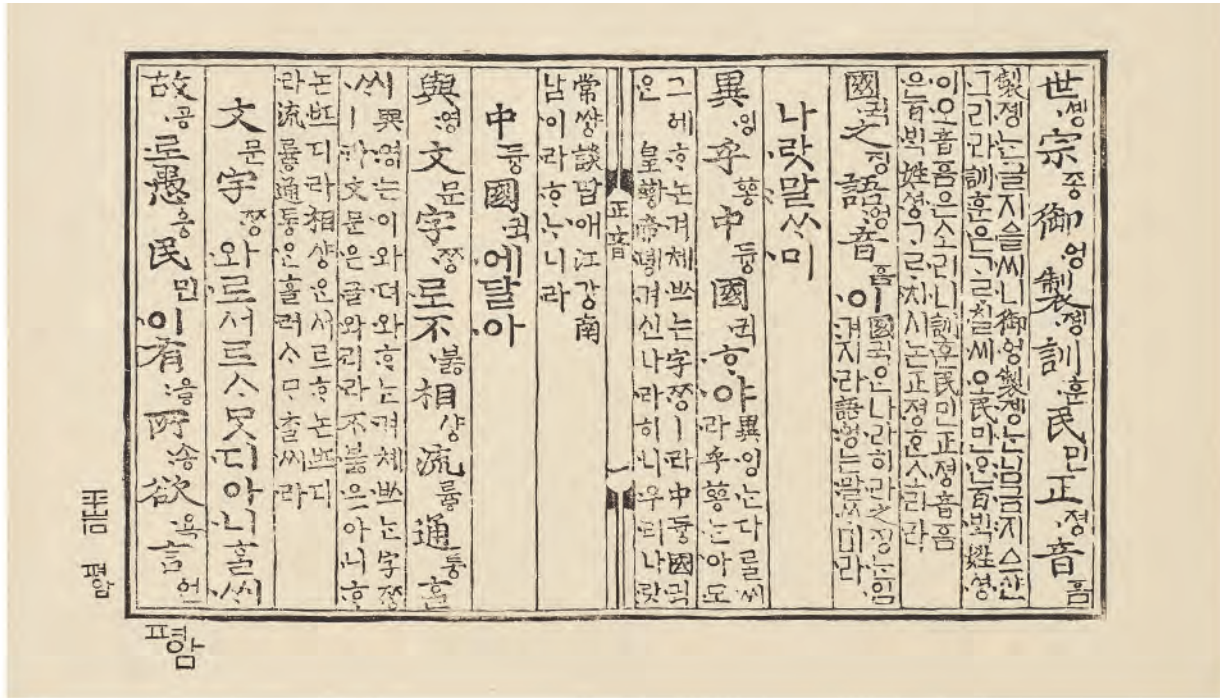
이 한글 활자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수양대군 등이 세종의 명을 받고 1446년에 죽은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47년 7월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편찬하여 국역한 석보상절과 그것을 세종이 읽고 지었다는 국한문본 월인천강지곡이 이 활자로 찍혀졌으므로 세종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갑인자 한글 활자는 획이 굵고 강직한 인서체印書體인 것이 특징이며, 세종이 우리의 글자를 제정하고 난 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초주갑인자는 오래 사용하는 사이에 활자가 닳고 이지러지고 부족한 글자가 생겨 1499년(연산군 5) 성종실록을 찍어낼 때와 1515년(중종 10)에 보주補鑄가 이루어졌고, 그 밖에도 수시로 목활자를 만들어 보충하며 선조 초까지 사용되었다. 1580년(선조 13) 경진庚辰에 주조한 활자를 그 해의 간지를 따서 경진자라 하고, 이것이 갑인자를 두 번째로 다시 주조한 것이므로 재주갑인자라 일컫는다. 이 활자의 재주에 관하여는 1573년(선조 6) 계유년과 1580년 경진년에 이루어졌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복각 1. 훈민정음언해본訓民正音諺解本 희방사본喜方寺本, 1568년



원본 크기 : 31.8x21.9cmx2장
 작품 크기 : 30.0x52.0cm
 자료 제공 : 정진웅

나무에 복각, 박재갑, 2018. 5.

한국서각사 송전 정진웅으로부터 2016년부터 서각을 배우며 어려워도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 훈민정음 언해본 판각을 시작하였다. 정진웅으로부터 목판 인쇄된 언해본 첫 장을 받고 의문이 들었다. 이 인쇄된 내용의 출처가 어디인가? 국어학자 박갑수에게 문의를 한 결과 희방사본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유는 첫 장의 오각誤刻이 증거라고 하였다. 즉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로 즉 랏을 닳으로 오각한 것이 희방사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닳을 랏으로 바꾸어 판각하였다. 2016년 12월 14일 은행나무에 서각을 시작하였지만 마무리는 2018년 5월 25일에 하였다. 2018년 5월 28일과 6월 3일 한지에 프린팅 잉크

로 목판 인쇄하였다. 관지款識에 새겨진 아호雅號 평암平巖은 봉우朋友 관정觀亭 박상철이 박재갑을 위하여 지어 주었다. 평주는 고르게平주 한다는 의미와 평정平征한다는 의미가 병존하며, 암巖은 바위, 특히 험한 바위를 뜻하며 발음상 암癩과 상통하므로, 평암의 세 가지 의미는 1)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는 의미, 2) 인류의 숙원인 암을 정복하고 무병장수 시대를 열게 된다는 의미, 3) 그리고 본인의 성격을 잘 다스려서 큰 인물이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3. 상원사중창권선문 上院寺重創勸善文, 1464년

三寶는 여희여날 불리오父母는 목수물칠
 불리오 남김은 모본安保케 할리오
 善知識은 모본릴 쉼홀물리시니내
 潛邸로 브터오매내

慧覺尊者 일즉서르 아라맛나道
 마즈며스미和尙야미상드튼길헤잡
 드러날로恒常조홀을구져欲글허
 에디디아니케호야오남나리잇게호니
 師의功이아니이한劫人넛되부아니면엇
 데能히이티마즈리오이제내和애違타
 듣고病을츠마床의느려낫바미두서百
 리밖의헤다허오니비록섬기디아니호는
 노존崇尙이나衆生濟度호시는큰慈
 悲에엇디호시료내듣고늘라感動호
 는트르그지업다니호

師一悅師와粗師와로날為호야오슬다
 平라靈호더를다시지소려호문드르
 니

師의날為호야모숨뱃과내
 師를為호야恩德感動호미사르미닐
 을디아니니내이럴씩

師昔은為호야조차깃거져기발거슬도
 와究竟호은正目を뵈고노니닐은고드
 口스미菩提니라이에世子를付囑호
 야기리後子孫애드리우노라

佛堂禮道烈公孫朝顯聖王孫



인인년무간박재갑인서

원본 크기 : 32.5x12.0cmx첩
 작품 크기 : 32.5x145.0cm
 자료 제공 : 성파, 문화재청

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

우리 聖上이 키 天命을 받조오샤 東國나
라흔다시 밍그르시니 만흔民이다스라
便安호며 네그의 便安호야 저그니 업스
며 크니 업시다 天地스 아 畚畝을 남스
오니 쇼히며 주히 귀갑스 을 받디 업스
리오 마 큰오직 되 만흔 恩이므거우시
고터럭 만흔히 문적스 오니 江陵쌍五
臺는 天下애 일흠난山이며 文殊겨신
사히라 靈異호미 번드기나든니 上院
寺는 더욱 勝호사히라 우리 衣鉢다
내야이더를다시 지어 福비스 을 싸흔
삼고저호습다소니

兩殿이든조오시고特別히

倫命을느리오샤니 큰샤디 중내날為호야

더를지소려호써내반드기도아나랏

사름과로利를너표려호시고

御衣현볼내시며 벌와布貨와土木출

개슬주라호시니 우리特別히달이맛니

문받조와조고맛精誠으로외고든

목수를돕습고저호습다소니 淨호혀

남고귀예스므차이큰布施겨시니

三寶일로 더욱노프며 法輪이은로다시을

오리니너비願호든모든어딘施主와보

며드로매미드나다歡喜를내야흔가지

로善提心을내야모다德人根源을심거

우호론

聖壽를갓업수를비스오며아래론큰福은

億萬歲에갈에호야 福利의업서現在

와未來와다利益개호며니라

天順八年 臘月 十八日 信肩

世間애닐갑重호이니리잇느니

三寶와父母와님금과善知識과니

三寶호며이여날를리오父母호며모든수를

훈민정음 창제 20년 후에 쓰인 필사본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의 경우는 오히려 당시 유행하던 해서楷書나 행서行書에 가까운 운필運筆의 리듬으로 필사되었다.

이는 훈민정음의 초기 자형이었던 고전체가 실용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았던 것을 입증한다. 그만큼 세종의 선택은 문자로서의 실용성을 희생하는 인위적인 것이었으며, 그 안에는 전서의 권위성을 훈민정음에 이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박준호, 「조선중기 전서篆書의 유행과 그 의미」,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 청주, 국립청주박물관, 2011년, 43-55쪽

권선문 주해 - 신미信眉 등 씌

우리 성상聖上께서 크게 천명天命을 받으셔서 동녘 나라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이에> 많은 백성[民]이 다스려져 편안便安하며, 네 가[邊方]가 편안便安하여 적은 이 없으며 큰 이 없이 다 천지天地의 아람치의 은전恩典을 입었습니다. <당연히> 속인俗人이며, 승가僧伽 중 누가 <은혜를> 값을 뜻이 없으리오마는 오직 산山만한 은혜恩惠가 무겁고 터럭만한 힘은 적습니다. 강릉江陵 땅의 오대五臺는 천하天下에 이름난 산이며, 문수보살文殊菩薩이 계신 땅이어서 영이靈異함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상원사上院寺는 더욱 수승殊勝한 땅이어서 우리들이 의발衣鉢을 다 내어 이 절을 다시 지어 복福 빌 땅을 삼고자 하였었습니다.

양전兩殿께서 들으시고 특별特別히 운명綸命을 내리게 하시어 이르시되, “승려들이 나를 위하여 절을 지으려 하므로 내가 반드시 도와서 나라의 사람들과 <더불어> 이치를 넓히려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의御衣 몇 벌을 내시며, “짚과 포화布貨와 토목 공사土木工事に 쓸 것을 주어라.”라고 하시니, 우리가 특별特別히 달리 만남을 받들어 조그마한 정성精誠으로 산과 같은 <임금의> 목숨을 돕고자 하였었습니다.

다행히 임금의 귀에 들어서 이와 같은 큰 보시布施가 계시니 삼보三寶가 이로써 더욱 높으며, 법륜法輪이 이로써 다시 구를 것이니, 널리 원願하는 것은 모든 어진 시주施主와 보고 들음에 다다른 이는 다 환희歡喜心を 낼 것입니다. <또한> 함께 보리심菩提心を 내어 모두

덕德의 근원根源을 심어서 위로는 성수聖壽가 끝이 없음을 빌며, 아래로는 큰 복福을 억만세億萬歲에 길게 하여 복리福利가 끝이 없어 현재現在와 미래未來가 다 이익利益되게 할 것입니다.

천순 팔년 선달 열여드렛날 신미 수결, 수결, 행담, 성민 김무봉 역, 간경도감 언해, 『상원사 중창권선문』, 권선문 주해 - 신미信眉 등 씌, 1463년(세조 9), 세종한글고전, db.sejongkorea.org

권선문 어첩 - 세조世祖 씌

세간世間에는 일곱 중중한 일이 있느니, 삼보三寶와 부모父母와 임금과 선지식善知識이다. 삼보三寶는 여의어 나는 으뜸이고, 부모父母는 목숨을 기르는 으뜸이고, 임금은 몸을 안보安保케 하는 으뜸이고, 선지식善知識은 모르는 이를 인도引導하는 으뜸이시니라.

내가 잠저潛邸로부터 오에 나와 혜각존자慧覺尊者가 일찍이 서로 알았다. 만나 도道가 맞으며 마음이 화和하여, 매양 티끌 길(힘한 세상)에서 붙들어 나로 하여금 항상恒常 깨끗한 생각을 가지게 했다. <또한> 욕망慾望의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해서 오늘날이 있게 하였으니 대사大師의 공功이 아니겠느냐?

여러 겁劫의 옛 인연因緣이 아니면 어찌 능히 이와 같이 맞겠느냐. 이제 내가 화和에 어긋나다 듣고 병病을 참고 상床에서 내려 낮과 밤에 수백리數百里 밖에서 분주히 다니어 오니, 비록 섬기지 아니하는 높은 숭상崇尚이나 중생衆生을 제도濟度하시는 큰 자비慈悲에 어찌 하시겠느냐.

내가 듣고 놀라 감동感動한 눈물이 그지없었다. 또 대사大師가 학열學悅 스님, 학조學祖 스님과 함께 옷을 다 팔아서 영靈한 절을 다시 지으려 함을 들었다. 대사大師가 나를 위하여 마음을 씌와 내가 대사를 위하여 은덕恩德에 감동함이 사람이 이를 바가 아니니라. 내가 이리므로 대사大師 등을 위하여 좃아 기뻐하여 조금 쓸 것을 도와서 구경究竟한 정인正因을 만드니, 이른바 ‘곧은 마음이 보리菩提’이니라.

이에 세자世子를 부촉付囑하여 길이 후자손後子孫에 드리우노라.

김무봉 역, 간경도감 언해, 『상원사 중창권선문』, 권선문 어첩 - 세조世祖 씌, 1463년(세조 9), 세종한글고전, db.sejongkorea.org

1. 권선문 주해 - 신미信眉 등 씬

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

惟我聖上誕膺天命再[再]造東夏兆民又安四[域]寧謐無小無大共被天地之私若蒙若[釋]疇無報效之志願[願]丘山恩重毫髮力微江陵五臺天下名山文殊住處[處]靈異現顯上院寺尤其勝地某[等]竭衣鉢之貯重創於是寺以爲祝釐之所兩殿聞之特降綸命 若曰僧[等]為[爲]我欲創伽藍余當

補助與國人廣利出御衣若干襲命[輸]米布土木之費以某[等]特承殊遇區 洎埃之誠欲裨岡陵之筭幸徹宸聰有此

大施三寶以之增崇法輪以之重轉普願[願]諸善檀那見聞所及悉[悉]生歡喜同發[發]菩提共植德[德]本上祝聖壽於無疆[疆]下延洪祚於億載福利無邊現[未]俱益云

天順八年臘月十八日

信眉, (수결), (수결), 行湛, 性敏

2. 권선문(어첩) - 세조世祖 씬

世間有七重三寶及父母君善知識三寶爲出離之宗父母爲育命之宗君爲保身之宗善知識爲導迷之宗自予潛[潛]邸以來[來]我慧覺尊者早相知遇道合心和每提

攝於塵路使我恒懷淨念不沉[沈]欲坑致有今日非師之功耶非多劫[劫]之宿因安能如是契合耶今聞我違和力疾下床晝夜奔來數百里之外雖不事之高尙若度生之大悲予聞驚動感淚無窮又

聞師與悅師祖師爲我盡賣衣資重創靈刹師之爲我用心我之爲師感恩非人所[述]我故爲師[等]隨[隨]喜畧助所費爲究[究]竟之正因所謂直心菩提者也於是付囑世子永垂後嗣云

박은 임서시 행담行湛과 성민性敏은 생략하고 신미信眉만 필사하였다.

『역주 상원사중창권선문·영험약초·오대진언』 책에 실려있는 『오대산 상원사 중창권선문』의 원문이 세종한글고전 db.sejongkorea.org에 도 그대로 공유되고 있는데 잘못 입력된 한자가 다섯군데[하늘색]으로 표시) 발견되어 수정하였다. 이제차異體字로 입력된 스무자[초록색]으로 표시)는 향후 필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체자正體字를 넣었다.

한재훈, 개인 교신, 2022. 11. 8.

김무봉, 『오대산 상원사 중창권선문』, 『역주 상원사중창권선문·영험약초·오대진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0, 35~56쪽

4. 삼강행실도언해三綱行實圖諺解, 1481년?

므스게 불화 무른 대對되
참답호되 丁 丁 公 公 藤 藤
이라 하야 늘 절하고 울며
원니논쁘들니른대어엿
비너겨네조가글주고수
을빛논法법을기르치고
문득업거늘法법다히수
을비저머기니아의病병
이즉자히도하니라

임인무관박재감臨



叔謙訪藥齋

解海叔속謙컴의어미病
병호옛거늘바미뵈가온
디머리조사비더니虛허
空空애셔닐오디丁堦公
콩藤뫼으로수를비저머
그면도호리라호야늘醫
의負원드러무르니다모
근거늘두루가온니더니
호한아비나모버히거늘

원본 크기 : 4.5x11.0cm 추정(김정수, 2023.1.4.)

작품 크기 : 32.0x69.0cm

자료 제공 : 최홍식, 김정수

『역주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를 최초로 편찬한 것은 1431년(세종 13)이며, 이를 세종은 다시 국역(언해)하도록 세종 26년에 시행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성종 12년인 1481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언해본에 실린 인물은 한문본의 330인 중에서, 효자, 충신, 열녀 각각 35인을 뽑아 모두 105인을 그림과 함께 엮고 있으니, 이는 세종 16년에 간행된 한문본 『삼강행실도』에서 가려 뽑은 것이다. 여기에 실린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 사람의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 인물이 16명이나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책은 3권 1책으로 된 목판본이다.

필사에 사용한 모본은 최홍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이 제공한 『역주삼강행실도』에 수록된 그림 위에 실린 언해를 사용하였다. 이 역주의 저본으로, 영국 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 도서 기호 15113.e.2)에 간수된 『삼강행실도』(1481년 추정)의 그림 위에 실린 언해이다.

「숙겸방약叔謙訪藥」, 제나라

해 숙겸叔謙의 어미 병들었기에 밤에 뜰 가운데 머리 조아려 빌더니, 허공에서 이르되, “정공등丁公藤으로 술 빛어 먹으면 나오리라.” 하기에, 의사한테 물으니 다 모르므로 두루 가서 얻으러 다니는데, 한 할아버지가 나무 베기에 “무엇에 쓸 것인가?” 물으니, 대답하되, “정공등이다.” 하기에 절하고 울며 얻으러 다니는 뜻을 말하니, 어여삐 여겨 네 조각을 주고 술 빛는 법을 가르치고 문득 사라지니, 법대로 술 빛어 먹이니 어미 병이 즉시 나았다.

김정수, 『역주 삼강행실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0년, 45쪽

『삼강행실도』에 관하여

김정수(한양대학교 교수)

1. 서언

세종이 명을 내려 간행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등 당시 백성의 교육을

위해 일련의 조선시대 윤리와 도덕 교과서 중 가장 먼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읽힌 책으로서 기념비적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효孝·충忠·정貞의 삼강三綱이 조선시대의 사회, 나아가서 나라 존립의 정신적 기반으로 되어 있던 만큼 사회 문화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또 서지학적으로도 『삼강행실도』는 조선 삽화插畵의 대표적인 예로서 그 간본의 변천은 곧 조선 삽화의 변천이 될 수 있어 문화사적 자료로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2. 삼강행실도의 편찬과 간행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한문본과 언해본이 있다.

조선 세종 10년(1428)에 진주의 김화金禾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서 대신들과 의논하게 되었는데, 세종은 직제학 설순僉樞이 책임자가 되어 집현전에서 백성을 교화教化시킬 수 있는 새로운 책을 편찬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 세종은 특히 효孝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의 이십사효二十四孝(원나라 광경경 편찬)에 새로 중국의 이름난 효자 20여 명을 증보하고, 또 우리나라 삼국三國과 고려高麗 시대의 효자로서 특출한 자들도 함께 모아 엮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책은 세종 14년(1432) 6월에 초고가 완결되어 임금에게 올려졌는데, 이듬해에 각관이 완료되자 정초鄭招에게 발문을 작성케 하여 16년(1434) 11월 25일 인출印出함으로써 종친과 신료들, 그리고 각 도各道에 반포하게 되었다. 권채權採의 서문에 따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고금의 서적에 기록된 것 가운데 참고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 속에서 효자, 충신, 열녀를 각각 110명씩을 뽑아 그림을 앞에 새겨놓고, 그 행적을 뒤에 적되 찬시讚詩를 한 수씩 붙였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한문본 삼강행실도』이다.

이 책은 이후 후대에서 여러 번 간행되었으며, 성종 12년에는 열녀도만을 언해 하여 언문 삼강행실 열녀도를 찍어 간행한 적도 있지만, 이른바 『언해본 삼강행실도』가 나온 것은 성종 21년의 일이다.

성종 20년(1489) 6월, 경기 관찰사 박송질朴崇質이 성종에게 아뢰기를, ‘세종조에는 『삼강행실도』를 중외에 반포해서 민심을 선도하였는데, 이제 책이 귀해져서 관청에서조차 비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일반이 읽기 힘들니, 이것을 선

록選錄하여 축소하되 목판인쇄는 매우 어려우니 활자活字로 인쇄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성종이 즉석에서 이를 받아들여 내용을 추려 1책으로 산정본刪定本을 간행케 명하였다. 이 언해본은 성종 21년(1490) 4월에 인출 반포되었는데 현존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이 산정본을 그대로 중종 5년(1506)에 재간행하였으니 이것이 지금 남아 전한다. 이후 중종, 명종, 선조, 영조 때에 계속해서 간행된 이본들이 전하고 있다. 이 언해본 삼강행실도는 효자, 충신, 열녀를 각각 35명씩 뽑아 모두 105명, 즉 원래 3권 3책인 것을 1책으로 대폭 축소하여 펴내게 된 것이다.

3. 세종의 『삼강행실도』 간행 기록

원고 검토가 끝난 원고본 『삼강행실도』는 권채의 서문에 의하면 곧 주자소에 넘겨져서 판각에 들어간 모양이며, 이 목판 작성은 원고본 완료부터 8개월 뒤인 세종 15년(1433) 2월에 완료되고 있다. 주자소는 이름 그대로 활자로 정부의 간행물을 간행하는 인쇄소였지만 목판 인쇄도 하였으며 세종 초간본의 글자체가 태종 조의 계미자도 아니고 바로 그해에 새로 주조한 갑인자甲寅字와도 다르며, 명나라 초기의 관간官刊本에서 볼 수 있는 위부인체衛夫人體의 소위 한림체일 뿐 아니라 중국 명초 판본처럼 구두점까지 찍혀 있어서 이 특별본 출판을 위해서는 명체明體에 능한 문신이나 사자원寫字員을 시켜서 원고를 고치게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해서 1433년 2월에 판각이 완료되자 세종은 예문 대제학 정초에게 발문을 작성케 하였고, 다시 1년 2개월 뒤인 1434년 4월에는 중추원사 윤희에게 『삼강행실도』 간행 반포의 뜻을 국민에게 알리는 임금의 교서를 쓰게 하였으며, 이 교서를 붙여서 인출하여 마침내 그해 11월 25일 삼강행실도 간행본이 종친과 신료들, 그리고 각도로 반포된 것이다.

이상의 『삼강행실도』 초간본 간행 경위를 연대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세종 10년(1428) 10월 『삼강행실도』 편찬 하명

세종 14년(1432) 6월 원고본 완료 진상

세종 15년(1433) 2월 주자소 판각 완료. 발문 작성

세종 16년(1434) 4월 교지 작성

세종 16년(1434) 11월 내외 반포

이상과 같은 진행 경위를 볼 때 언제 인쇄하였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1433년 2월 판각 완료와 함께 발문이 만들어졌고, 그 발문이 추각된 단계에서 인쇄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초인본初印本이 임금에게 진상되어 그것을 검토한 후 반포의 교지가 1434년 4월에 작성되고, 그 교지가 또 추각되어 드디어 완성본으로서 인쇄되고 제본 완료된 것이 1434년 11월인 것이다. 따라서 1433년 2월에서 1434년 4월까지의 14개월 동안은 『진삼강행실도進三綱行實圖』에서 발문에 이르는 중심부의 인쇄와 세종의 재검토 기간이었고, 그 뒤 교지를 추각 제본하는 데 1434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이 걸린 셈이다.

김정수, 『역주 삼강행실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0년, 7-10쪽

빈섬의게 너는 너의라

니 마음이나 너의 너희 천업의 예 손디 후려 셔서 인공 여든 니기는 네 본 마음이나 너나 오다가 예 손디 들려 주글가도
 너기며 도는 허의 심호티 예 손디 드렸던 거시 너 나라히 주길가도 두려이 제드리나 오디 아니하니 이 제란 너희 그
 런의 심을 만다 만음오서 큰 권하 여다나오면 너희를 간벌이 죄주디아니 슬나아니라 그 등예 예를 자바나오거나 피
 향난이 배아라 나오거나 후린인사름을 만히 드러나오거나 아도란 말이 시면 양천의 문은 여 벼슬도 향일
 거시 너희 심도 천의 먹던 마음 말 먹디 말 오설리나오라 이 받들관 참수 의 손디 다 말외여시니 심심도 의 심
 말고 모다나오라 너희 동의 혈마다 어버이 처업 손사름 일다 베사던 도라와 대로도로 살면 우연향랴이 제
 곧아 너나오면 예게도 주글거시오 나라히 평등은 회면 너희 들은아니 뒤오차라 향을 먹당 병의 황해도와 평안도에
 귀득향옛고 경상전라도애고 드기이셔 예 곧과 클리 제싸히 곧아니 건너가면 요스이 함병은향여 부산 동년인는 예
 들을 다타른 섬이아 나라 강남 병의와 우리 나라 비를 함병은향여 바르예 나라히 드러가다 분타운 거시니 그 저기면 너희 조
 차 버러 주글거시니 너희서 큰 날라 그 전으로 수이나오라

만려이 심연전국유서
 인

서기이 천의 심연전국유서 선조님 금의국문유서를 임서하다 무간박재감

원본 크기 : 80.0x40.0cm
 작품 크기 : 91.0x59.0cm
 자료 제공 : 부산시립박물관

선조 백성유환 교서

백성에게 이르는 글이다.

임금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처음에 왜에게 속임을 당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다니기는 너희 본 마음이 아니라, 나오다가 왜의 손에 들려 죽을 까도 여기며 도로 의심하되 왜에게 들었던 것이니, 나라가 죽일까도 두려워 이제 들어가 나오지 아니하니, 이제는 너희가 그런 의심을 먹지 말고 서로 권하여 모두 나오면 너희를 각별히 별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왜를 잡아 나오거나, 왜가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 나오거나, 속인 사람을 많이 더붙어 나오거나, 아무 공이라도 있으면 양천을 가리지 않고 벼슬도 하게 할 것이니, 너희가 생심도 전에 먹던 마음을 먹지 말고 빨리 나오너라. 이 뜻을 각처의 장수에게 모두 알게 하였으니, 생심도 의심하지 말고 모두 나와라. 너희 중에 설마 모두 아버지, 처자식이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 네가 살던 곳에 돌아와, 옛날처럼 도로 살면 훌륭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제 곧 아니 나오면 왜에게도 죽을 것이요, 나라가 평정한 이후이면 너희인들 아니 뉘우치랴? 하물며 당병이 황해도 평안도에 가득하였고, 경상도와 전라도에 가득히 있어, 왜가 곧 급히 제 땅에 곧 아니 건너가면, 요사이 합병하여 부산 동래에 있는 왜들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 배와 우리나라 배를 합하여 바로 왜 나라에 들어가 다 분탈할 것이니, 그때면 너희조차 쓸어 죽을 것이니, 너희가 서로 일러 그 전에 빨리 나오너라.

선조 26년 서기 1593 9월 일

한재영, 심보경, 『선조교서(백성유환교서)』, 『역주 윤음 언해 제2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7, 15~18쪽

『선조국문유서 宣祖國文諭書』

임진왜란 중 선조가 의주에 피신해 있을 당시 백성들에게 내린 한글 교서이다. 장지에 10행 429자로 작성했으며, 『유서지보諭書之寶』가 세 군데 찍혀 있다. 임진왜란 당시 많은 조선인이 포로가 되어 왜군에게 협력했는데, 선조는 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 교서를 반포함으로써 포로가 된 백성을 회유해 돌아오게 하였다. 이 유서는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오기 한 달 전에 내려진 것인데, 당시 김해성을 지키던 장수 권탁權卓(1544~1593)은 이 문서를 가지고 적진에 침투해 적병 수십 명을 죽이고 포로 100여 명을 구출해 돌아왔다. 이 교서는 권탁의 후손이 보관하다가 1854년, 철종 5, 김해시 흥동에 어서각御書閣이 건립되면서 이곳에 보관되었다. 유서의 내용은 강제로 왜인에게 붙들려간 백성은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과 왜군을 잡아 오거나 왜군의 정보를 알아오는 사람, 또는 포로로 잡힌 우리 백성들을 설득해 데려오는 사람에게는 천민, 양민을 가리지 않고 벼슬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이 자료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으며, 당시 사용된 한글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선조 찬, 1593년(선조 26), 1장, 필사, 80.0x40.0cm, 부산시립박물관(권이도 기탁), 보물 제95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 92~93쪽

* 본 작품은 부산시립박물관 유물 관리팀을 통하여 선조국문유서를 기탁한 안동권씨 판결공파 종친회로부터 2020년 5월 8일 사용 허락을 받고 이미지 파일을 제공받아 글자의 배열을 가지런히 한 후에 모사하였다.

선조어필

淑儀

글월보고도히이시니깃거흐노라
나도무스이인노라천장은나라이
리하어음스니이제어느겨를레향며
군인응나히들어디가어디리왜적
도그을의전라도티려한다하노라
별도이시니더욱심흥야흐노라
보내는것츨화라

豹皮一令 보내노라
見樣 조차 보내노라

임인무간박재갑임



원본 크기 : 19.8x31.5,

작품 크기 : 36.0x47.0cm,

자료 제공 :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2022. 10. 11.

자료 출처 : 金一,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10~11쪽

숙의에게

편지 보고 잘 있으니 기뻐한다. 나도 무사히 있다. 천장遷葬은 나라 일이 너무 어이없으니 이제 어느 겨를에 하며, 군인 하나인들 어디 가서 얻을까. 왜적도 가을에 전라도를 치려 한다고 하는 소식도 있으니, 더욱 심란하여 한다. 보내는 것 챙겨라.

표피1명 보낸다. 견양(본)도 함께 보낸다.

일본이 동병하여 전라·제주를 유린할 것이라는 내용의 비밀 장계가 오다. 경상우도 병사慶尙右道兵使 김응서金應瑞의 비밀 장계秘密狀啓가 왔다. 【그 대략은 정승헌鄭承憲이 왜장倭將 풍무수豐茂守와 문답한 왜의 정세에 대한 일로 관백關白이 50만의 군대를 일으키면서 우선 30만의 군사를 먼저 내보내 전라도·제주도 등을 유린하고, 의령宜寧·경주慶州의 산성은 기필코 공파攻破한 뒤에야 그만둘 것인데 6~7월 사이에 발동시킨다 하였다.】

○慶尙右道兵使金應瑞秘密狀啓。【大概鄭承憲與倭將豐茂守問答倭情事。關白起五十萬，三十萬爲先發送，蹂躪全羅、慶尙、濟州等，宜寧、慶州山城，期於攻破而後乃已，六七月間發動云。】

【태백산사고본】57책 89권 21장 B면【국편영인본】23책 246면

【분류】외교-왜倭 / 군사-통신通信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4일, 계유 3번째 기사, 1597년

宣祖大王 御筆 諺簡

(※……………은 각각 단 종이라는 표)

淑儀

……………

글월 보고 도히 이시니 깃거호노라 나도 무사이 인노라 천장은 나라 이리 하여옵스니 이제 어나 겨라레 하며 군인 한나힌달 어다가 어다 리 왜적도 가알해 전라도 티려한다 하난 기별 도 이시니 더욱 심심하야 하노라 보내난 것 찰화라

글월 보고 도히 이시니 깃거호노라 나도 무사이 인노라 천장은 나라 이리 하여옵스니 이제 어는 겨러레 하며 군인 한나힌달 어다가 어드리 왜적도 그월히 전라도 티려한다 하는 기별도 이시니 더욱 심〃 하야 호노라 보내는 것 찰화라

……………

표피豹皮 일령一令 보내노라

견양見樣 조차 보내노라

비고備考

이 간찰簡札은 선조宣祖 30년 8월 왜군倭軍 남원南原 재침再侵의 예보를 듣고 당시 총애를 받고 있던 일궁인一宮人 속의淑儀에게 보낸 답서答書이다. 따라서 거금距今 360년 전의 현존 최고 연찰이다. 선조 30년 6월 중순에 쓴 것 같음. 천장운운遷葬云云은 누구의 묘墓인지는(덕빈德嬪·공빈恭嬪) 미상未詳이지만, 난중亂中을 당하여 국사國事に 초전焦煎한 일면一面 궁인宮人の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염려해 주는 인정人情의 풍만豐滿이 역연歷然하다.

물론, 이 무렵엔 궁전宮殿의 당폐蕩弊로 말미암아 의주義州에서 환도還都 이후로 월산대군月山大君 사저私邸 석어당昔禦堂에 있었으니, 왕족王族 궁인宮人이 각각 산재散在하면서 늘 안부를 교환하였던 것으로 본다.

점선點線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피봉皮封과 본문과 별기別記 삼부분三部分로 나누어져 있다. 본문은 판각자版刻字로 쓰고 별기別記는 개성적인 자유필自由筆로 된 것은 흥미 있는 점이다.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부록附錄, 13~14쪽

淑儀 : 內命婦(後宮)의 한 사람. 從二品, 姓名 未詳.[後記 F1]皮封 正面에 記錄되었 으며, 이 簡札의 受信人이다

遷葬 : 移葬, 德嬪尹氏 或은 恭嬪에 關한 일이 아닌가? 같은 內命婦로서 그들의 葬事에 關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어옵스니 : 〈어업스니〉 〈에업스니〉의 誤記로 보고 〈틈이 없다. 정신없다?〉 顯宗御筆에 〈에보야 못오옵시리잇가〉 또 權相老님의 말에 依하면 現用語에 〈틈이 없다〉는 뜻으로 〈에가 있어야지〉란 말이 있다 함.

倭賊도… : 宣祖 30年 8月에 倭軍南原再侵의 豫報인 듯.

기별… : 古字는 完全히 消滅되었음. 連絡

심심하다 : 마음이 〈설레다〉(걱정되다). 語義의 變動을 볼 수 있음.

찰화라 : 찰호아라) 整理하라 = 챙겨라.

見樣 : 見本, 樣式, 寸法.

7. 선조어필宣祖御筆, 1603년, 선조 36년 11월 19일

선조어필

글월보고도든거스그방이어둡고
날도陰하니日光이도라디거든내親
히보고저세귀별호마대강用藥함이
리이셔도醫官醫女를드려待令하
려하노라분별말라즈연아니도히하
라

萬曆三十一年癸卯復月十九日巳時
임인년무간박재갑임서



원본 크기 : 28.0x21.2cm

작품 크기 : 38.5x30.0cm

자료 출처 : 金一, 『諺簡의 研究 - 한글書簡의 研究와 資料集成』, 建國大學校出版部, 서울, 1986년, 259쪽

자료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10.6 선조 36년(160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M/F85-35-11-D

서울대학교 도서관 가람문고본 인목왕후필적仁穆王后筆蹟이란 필첩筆帖 첫 장에 있는 것이다. 다음 전 7장에 걸쳐 인목왕후필仁穆王后筆 대자해서大字楷書가 있고, 뒷 표지 속 장에 소예한시小隸漢詩 1수구가 첩부貼付되어 있으니, 이 필첩의 첫 장에 있는 본 언간諺簡도 의례 인목왕후필仁穆王后筆이라 간주될 가능성은 전항前項에서 말한 바와 같다. 역시 대재건원大哉乾元이란 어보御寶가 있고, 만력삼십일

년萬曆三十一年 계묘복월십구일사시癸卯復月十九日巳時란 일부日
 付가 있으며, 내용도 타자료他資料와 일연성一聯性이 있는 것이니 정
 속옹주貞淑翁主에게 쓴 선조宣祖의 언간諺簡임은 확실하다. 이 언간
 에서 특기할 사항이 있으니, 곧 서지상書誌上·고문서상古文書上의 면
 에 새로운 현상이 발견된 것이니, 편지의 우측 하단에 서간 내용과 관
 계없는, 태부위관지휘장검돈수배太府委官指揮張謙頓首拜란 기록이
 있고, 그것이 먹줄로 그어져 있다. 이것은 상대방에서 온 편지의 후미
 여백後尾餘白에 이 편지를 쓴 까닭에, 그 편지의 후미 서명 부분이 그
 대로 잔류한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궁중宮中과 여염간閭閻間 왕래
 문서往來文書의 금기禁忌에서 말미암은 현상이다.

요컨대, 명명나라 위관委官 장겸張謙이 궁중宮中에 올린 서간書簡의
 후미여백後尾餘白에, 선조宣祖가 이와 같은 단간短簡을 써서 정속
 옹주貞淑翁主에게 보내 버림으로써, 외부민간外部民間의 필적이 신
 성神聖한 궁중에 잔류 않도록 한 결과이다.

이 태부위관지휘장검돈수배太府委官指揮張謙頓首拜라는 기록 흔적
 은, 선조 및 여타 군왕언간君王諺簡의 친필 여부 문제를 판명하는 절
 대적인 근거이다. 만약 궁인 내지 유사有司의 대필代筆이라면, 이런
 용지에 신한宸翰을 쓰고 또 자획字劃을 수정하는 불경不敬은 물론 있
 을 수 없는 일이다. 나머지 다른 자료와 더불어 친필원본親筆原本임
 에 의심이 없다.

金一根, 『諺簡의 研究 - 한글書簡의 研究와 資料集成』, 建國大學校出版部, 서울,
 1986년, 55~56쪽

안내 정보

이 편지는 선조(연령 52세)가 딸 정속옹주(연령 17세)에게 보낸 것이다.
 수신자가 적혀 있지 않으나, 1603년 11월 중에 보낸 선조의 다른 편지
 가운데 수신자가 정속옹주로 적혀 있는 것이 있어서 이 편지의 수신
 자도 정속옹주로 추정하기도 하나, 역시 11월 중에 보낸 선조의 한문 편
 지에 수신자가 정혜옹주로 적혀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수신자
 가 누구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편지지 여백에 “太府委官 指揮 張謙 頓
 首拜”라는 구절이 다른 필체로 적혀 있고 줄을 그어 지운 표시를 하였
 는데, 이는 태부 위관인 장겸이 선조에게 올린 글의 종이 여백을 잘라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다. 『仁穆王后筆蹟』의 첫 장에 성첩
 되어 있어, 인목왕후의 필적으로 오인되기도 하였다.

원문 텍스트

글월 보고 도든 거손 그 방이 어둡고[너 역질 疰疢 방]
 날도 陰 ㅎ니 日光이 도라 디거든 내 親
 히 보고 ㅈ세 弼別호마 대강 用藥 ㅎ 이
 리 이셔도 醫官 醫女를 드러 待 ㅈㅎ
 려 ㅎ노라 分 別 말라 ㅈ연 아니 ㄷ히 ㅎ라
 萬曆 三十一年 癸卯 復月 十九日 巳時 인신(大哉乾元)

<주석문>

글월 보고 도든 거손 그 방(房)이 어둡고[너 역질疫疾1) ㅎ던 방房] 날
 도 陰 ㅎ니2) 日光이 도라 디거 든 내 親히 보고 ㅈ세仔細 弼別寄別호마
 대강大綱 用藥 ㅎ 이리 이셔도 醫官 醫女를 드러 待 ㅈㅎ
 려 ㅎ노라 分 別分別3) 말라 ㅈ연自然 아니 ㄷ히 ㅎ라4) 萬曆 三十一年 癸卯 復月 十
 九日 巳時 인신大哉乾元

<주석내용>

- 1)역질疫疾 : 천연두天然痘
- 2)陰 ㅎ니 : (날이) 흐리니
- 3)분 別分別 : 걱정. 염려念慮
- 4)ㄷ히 ㅎ라 : (병이) 나오라

현대어 역

글월 보고 도든 것은 그 방이 어둡고(네가 천연두를 앓던 방) 날도 흐리
 니 햇빛이 돌아 지거든 내 친히 보고 자세히 기별하마. 대강 약을 쓸 일
 이 있어도 의관과 의녀를 들여 대령하려고 한다. 염려 마라. 자연히 낫지
 않으랴. 만력 31년 계묘(1603년) 복월(11월) 19일 사시. 인신大哉乾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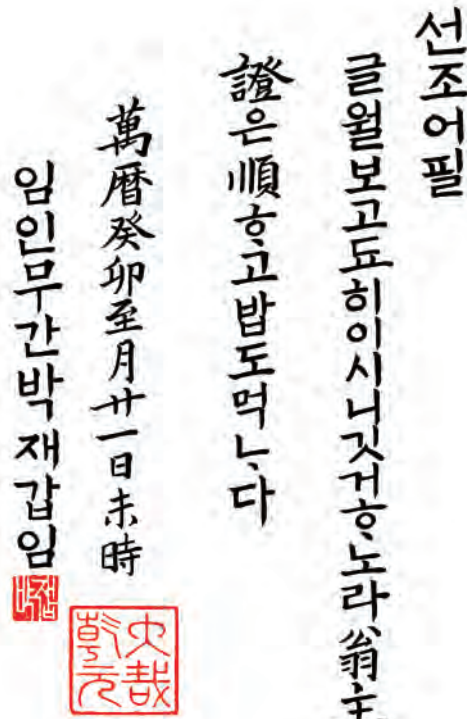
『한글서예변천전』, 예술의전당, 1991.

『조선 여인의 삶과 문화』 서울역사박물관, 2002.

『朝鮮王朝御筆』, 예술의전당, 2002.

『1603년 선조가 옹주에게 보낸 편지』, 『조선시대 한글편지』, <https://archive.aks.ac.kr/>

8. 선조대왕어필언간 宣祖大王御筆諺簡, 1603년, 선조 36년 동짓달



원본 크기 : 32.6x18.0cm

작품 크기 : 35.0x25.0cm

자료 출처 : 金一 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9쪽

글월 보고 도히 이시니 깃거호노라

옹주翁主 증證은 순順하고 밥도 먹는다

만력 계묘萬曆 癸卯 지월至月 이십일일廿一日 미시未時 대재건원大
재乾元

자가 전부全部 계묘년癸卯年 동짓冬至달 20일日 전후前後이며, 어느
옹주翁主의 두역痘疫에 關關한 것이니, 상기上記 간찰簡札도 그와 일
연一連의 것임이 추측推測된다.

金一 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부록附錄 5, 7, 13쪽

비고備考

정숙옹주貞淑翁主가 동양위東陽尉 심익성沈翊聖께 하가下嫁한 것
은 기해년己亥年(선조 32년)이니 만약萬若 이 서간書簡의 수신인受
信인이 정숙옹주貞淑翁主라면 하가下嫁 후後 사년四年째의 일이 되
는 셈이다. 『근조내간선近朝內簡選』 9면面에서 13면面 사이에 정숙
옹주貞淑翁主께 쓴 선조宣祖 간찰簡札이 8편篇이 있는데 그 일자日

翁主 : 선조 제삼옹주 정숙옹주께 낸 간찰로 추측이 되는 까닭에 사연중詞緣中の 응
주는 미출가한 어린 옹주의 한 사람을 가리킴. 그 당시 왕세자가 두질痘疾로 서거
한 기록이 있음.

만력 계묘 萬曆 癸卯 : 선조36년

지월 입일일 미시 至月 廿一日 未時 : 동짓달 이십일일 오후 3~4시

대재건원大哉乾元 : 선조대왕의 어인

9. 효종대왕어서孝宗大王御書, 1652~1659년

효종대왕어서

글썩보고료히이시니깃거술노라
어문제낭식축보내엇더니본다
안엇슴고얀 면즈등이수대로보내
성후우안녕후후은신문
노라

안아태고제비라와며남이포어니덕우섬범후우마마라다

어업스와후은범노이다

이천이십이년무간박재갑임서



원본 크기 : 35.2x18.0+cm

작품 크기 : 46.0x43.0cm

자료 제공 : 국립청주박물관, 2022. 10. 05.

자료 출처 : 金一根, 『諺簡의 研究 - 한글書簡의 研究와 資料集成』, 建國大學校出版部, 서울, 1986년, 262쪽

이 편지는 효종孝宗(1619~1659)이 둘째 딸 숙명공주淑明公主(1640~1699)에게 보낸 것이다. 발신 시기는 숙명공주가 심익현과 혼인한 1652년부터 효종이 승하한 1659년까지로 추정하였다.

글월 보고 묘히 이시니 깃거호노라
어제 낭식 축 보내엿더니 본다
면즈등 이 수대로 보내
노라

<주석문>

글월 보고 묘히 이시니 깃거호노라 어제 낭兩 식축色燭1) 보내엿더니 본다2) 면즈등3) 이 수數대로 보내노라

<주석 내용>

- 1)식축色燭 : 물명. 색축色燭. 색으로 물들인 초.
- 2)본다 : 보았느냐?
- 3)면즈등 : 물명. 면자등緜子燈?. 명주로 만든 등. ‘면즈綿子’는 흔히 목화씨, 솜 등의 뜻으로 쓰였다. ‘綿’의 본자인 ‘緜’은 명주의 뜻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등의 틀을 명주로 씌워 만든 등으로 이해했다.

현대어 역

편지 보고, 잘 있으니 기뻐한다 어제 두 색축(물들인 초)을 보내었는데 받아 보았느냐 초꽃이등을 이 초의 수만큼 보낸다
『조선시대 한글 편지』, 「효종이 숙명공주에게 보낸 편지」-05 <https://archive.aks.ac.kr/>

원문 텍스트

문

안 옛좁고 야간

성후 안녕호오신 문

안 아옵고져 바라오며 날이 푸오니 더욱 섭섭호오미 아므라타
업스와호옵노이다

<주석문>

문안問安 옛좁고 야간夜間 성후聖候1) 안녕安寧 호오신 문안問安 아옵고져 바라오며 날이 푸오니2) 더욱 섭섭호오미 아므라타 업스와 호옵노이다

<주석 내용>

- 1)성후聖候 : 성후聖候. 임금의 안부와 기후.
- 2)푸오니 : 거듭되니. ‘푸다’는 ‘거듭되다, 겹치다’의 뜻을 지닌 동사. ‘푸-’에 접사 ‘-오’가 결합하여 파생한 ‘포’가 다시 접사화하여 ‘날포, 달포, 해포’와 같이 쓰였다.

현대어 역

문안 여쭙고, 밤사이 아바마마께서는 안녕하신지 알고자 바라오며, 뵈지 못한 채 날이 거듭 지나니 더욱 섭섭함이 무어라고 할 말 없어 하옵니다.

보내는 이 효종 / 받는 이 숙명공주 / 때 1652~1659
편지 보고 잘 있으니 기뻐한다. 어제 양색 초를 보내었는데 보았느냐? 면자등을 이 수대로 보낸다.

보내는 이 숙명공주 / 받는 이 효종 / 때 1652~1659
문안 여쭙고 밤사이 성후 안녕하신 문안 아옵고자 바라오며 날이 거듭 되니 더욱 섭섭함이 아무렇다고 할 말이 없어 하옵나이다.
효종대왕,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2011, 66~69쪽

신한宸翰帖 : 조선시대 왕과 왕비 등이 쓴 편지를 모아놓은 서간집을 지칭하는 용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숙종대왕언찰어필

녕드양병환음도참비를약지호를엇디
못항와천만의외의상신나오니경통참
절항오미아라타입스온등넷날항디셔노
던인일을싱각항오나참도항음의더우
각별항우이다 아즈마님께오셔여러들초
천항입시던곳터이런참천을만나입셔
일약의통무음으로디내입신적퍼항입신
기런이더우을습시라넘너이입스와항오
며정시비로구망구항입시나비우리된
망항약항점음을싱각항입셔식을을
수로자입시블천만이라입우이다

이천이십이년무간박재감입서



원본 크기 : 27.5x23.8cm

작품 크기 : 39.0x36.0cm

자료 제공 : 계명대 동산도서관 벽오고문헌실, 2022. 10. 5.

자료 출처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43쪽

현대역

정 직장鄭直長(숙휘공주의 둘째 아들 정태일鄭台一이다) 병환은 마침내 물약지효를 얻지 못하여 천만 이외의 상사가 났으니 경통참절하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에 옛날 한 데에서 놀던 일을 생각하오니 참도하온 마음이 더욱 각별하오이다. 아주마님께서 여러 달을 초전하시던 끝에 이런 참척을 만나시어 일야로 애통곡읍으로 지내셨으니 적패하신 기력이 더욱 옹으시랴? 염려 가히 업사와하오며 정사가 비록 망극하오나 부디 우리 민망한 정을 생각하셔서 식음을 자주 자시기를 천만 바라옵니다.

인간 취지

숙종이 고모 숙휘공주에게 쓴 편지로, “덕덕당….. 상시 나오니”의 내용으로 보아 이 편지는 숙종이 아들 정태일의 상사로 슬퍼하고 있는 고모 숙휘공주에게 쓴 편지로 추정된다. 일종에 조상弔喪 편지라 할 수 있다. 한편 “넋날 훈디셔 노 던 일을 싱각호오니 참도호온 마음이 더욱 각별호오이다”의 내용을 보면 숙종과 정태일이 어린 시절에 가까이 지냈던 것도 알 수 있다. 이 편지는 정태일의 상사 직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작성 시기는 정태일의 졸년(숙종 11년(1685년))으로 판단된다. 장요한, 『宸翰帖 坤의 연구 및 역주』, 계명대학교 출판부, 대구, 2019년, 71~74쪽

11. 숙종대왕어필, 명안공주방 肅宗大王御筆, 明安公主房, 17세기

肅宗大王御筆

馬 明安公主房

밤스이 평안하옵시니 잇가나
가옵실 제니 일드러 오옵쇼셔
하엿습디니 허창 위를 만났
셔나 하옵시니 잇가아 무리
섭고 하옵셔 도니 일드러
오옵쇼셔

임인년무간박재감임



원본 크기 : 22.7x27.2cm

작품 크기 : 35.0x38.0cm

자료 제공 : 오죽헌서립박물관, 2022. 10. 11.

자료 출처 : 조선(17세기) 보물 제1220호 <https://www.gn.go.kr/museum/>

숙종이 명안공주방房에 보낸 여찰이다. 명안공주저邸에 나간 자전慈殿(명성왕후明聖王后) 혹은 웃전(대왕대비)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명안공주방이라 했지만 명안공주는 숙종의 누이동생이므로 왕이 극존칭을 쓸리 없다. 자전이나 대왕대비가 명안공주 사저私邸에 다니러 간 후, 공주의 남편인 오태주吳泰周를 만나 반가운 마음에 지체를 하자, 환궁을 재촉하고 있는 간찰이다.

이 편지는 숙종(연령: 20세~23세)이 시집간 셋째 딸 명안공주 집에 가 있는 모후 명성왕후(연령: 39세~42세)에게 보낸 것이다. 명안공주는 1680년에 해창위 오태주와 혼례를 올렸고, 명성왕후는 1683년에 승하하였으므로 이 편지는 1680년에서 1683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밤스이 평안흙습시니잇가 나
가읍실 제 니일 드러오읍쇼셔
헛엿습더니 히창위를 만나 못
찌나 흙습시니잇가 아므리
섭섭헛습셔도 니일 브디 드러
오읍쇼셔

<주석문>

밤스이 평안平安흙습시니잇가 나가읍실 1) 제 니일來日 드러오읍쇼셔2) 엿습더니 히창위海昌尉 3)를 만나 못찌나흙습시니잇가 아므리 섭섭 습셔도 니일 브디 4) 드러 오읍쇼셔

<주석 내용>

1)나가읍실

나가실

2)오읍쇼셔

오십시오. 웃어른에 대한 청원의 뜻이 담겨 있다.

3)히창위海昌尉

인명. 해창위. 해창위는 명안공주의 남편 해창위 오태주(吳泰周, 1668~1716)를 가리킨다.

4)브디

부디

「숙종이 모후 명성왕후에게 보낸 편지」, 『조선 시대 한글 편지』, <https://archive.aks.ac.kr/>

밤사이평안하셨습니다까? 나가실 때
내일 들어오소서 하였습니다온대
해창위(사위 오태주)를 만나 못 떠나
오십니까? 아무리(떠나오기
섭섭하셔도 내일 부디
들어오시옵소서.

박정숙, 『조선의 한글편지』, 다운샘, 서울, 2017년, 343쪽

명안 공주

숙종이 사랑한 누이

숙종은 하나 남은 누이 명안공주를 지극히 사랑하여 공주가 땅을 달라고 청하자 솔개 뜬 아래는 모두 네 땅이라고 하며 땅을 하사하였다.

숙종은 4남매 중에서 단 한 사람 남은 동기 명안공주를 지극히 사랑했다고 한다. 청나라에서 고급 비단이 들어오면 사랑하는 후궁을 주지 않고 이 동생에게 보냈을 정도였다. 공주의 집을 일찍이 전례가 없는 1,826칸으로 지어 주자 논란이 많이 일었다. 원래 공주 궁의 정례는 1,200칸이었는데, 인조 초 정명공주에게 1,400칸을 내렸을 때도 반론이 있었는데, 명안공주의 경우는 거기에서도 426칸이 초과한 것이었다. 결국 조정의 논의에 못 이기어 1,400칸으로 줄이도록 하였다.

그러나 명안공주는 그 복록을 못다 누리고 23세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죽었다. 숙종 13년 5월 공주가 죽자 왕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슬퍼하고 10일간 육식을 안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한여름 날씨에 입관 전에 조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주집에 친히 나갈 정도였다. 명안공주는 광주 월곡리에 장사지냈다고 하는데 바로 그곳이 현재의 월곡동으로 숙종과 누이 명안공주에 관한 궁중의 전승담이 아마도 그곳에서 비롯된 것 같다. 공주 묘를 화성군으로 옮긴 것은 그 후인 듯이 보인다

『명안 공주』, 『문화원형백과 e조선궁중여성』, 2004,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 네이버 지식백과

숙종 경신년 7월에 대사간 신익상申翼相이 상소하기를, “듣자오니, 나라에서 지금 바야흐로 명안공주明安公主의 집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옛날 효종조 때에 4공주의 집을 세웠는데, 규모의 웅장함과 간수의 많기가 건국 이래 일찍이 없던 바로서 보고 듣는 사람들이 개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선왕조(현종조)에 와서, 공주의 제택第宅은 한결 같이 법에 정한 제도를 좇아야 한다는 논의가 비로소 생겨나니, 당시 선왕께서는 그 일이 선왕조에서 있던 일이므로 철거하기가 어렵다고 누차 경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교하기를, ‘앞으로 공주의 집을 지어 줄 날이 머지않았으니, 한결같이 정한 제도를 따를 것을 마땅히 나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시면서, 거듭거듭 말씀하심이 정녕 할 뿐만이 아니셨습니다. 어느 사이에 선왕께서 승하하셨으니 오늘 전하께서 선왕의 딸을 시집보냄을 당하여 감회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전하의 돈독하신 우애가 높은 집과 아로새긴 담장을 지어 주심에 있지 않사오며, 옛말에도 높고 굉장한 집에는 귀신이 그 집을 엿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의 법제는 책에 뚜렷하게 적혀 있으며, 검소 절약하는 정치는 반드시 귀하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지금 만일 조종조께서 남기신 제도를 좇고, 선왕의 남기신 뜻을 따라서 제도를 넘어 지나치게 사치하지 않게 하신다면 사람들이 모두, ‘선왕의 말씀대로 우리 사왕嗣王께서 계승하셨다.’고 할 것입니다.” 하였다. 『술이述而』

『국조전고國朝典故, 공주公主·부마駙馬』, 『연력실기술 별집 제1권』, 한국고전종합DB

12. 숙종대왕언찰어필, 숙명공주방 肅宗大王 諺札御筆, 淑明公主房, 숙종25년, 1699년

숙종대왕언찰어필

謹

淑明公主房

封

몬제는창망등덧업시드너오오
니크래심회야어이너덕승리
잇가병환은나날낫조오셔죽음은
거의여상흥오신가시브오너흔히
흥오미아무라탐업스와흥오며언제
다시반가이뵈올고기드리고잇습
는다

幼學金元澤處

賜給

草注紙二卷

各色筆十五柄

各樣墨十笏

임인년무간박재갑임



원본 크기 : 21.5x33.2cm

작품 크기 : 37.0x53.5cm

자료 출처 : 金一,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104, 105쪽

肅宗大王 御筆 諺簡

(※……………은 각각 단 종이라는 표)

謹 淑明公主房 封

……………

문제는 창망등 덧 업시든녀 오오니 그 때 심희야 어이 내 ” 덕스오리
잇가 병환은 나날 낫조서 즉금은 거의 여상 호오신가 시브오니 혼
헝호오미 아므라타 업스와 호오며 언제 다시 반가이 뵈올고 기다리고
잇습니다

……………

幼學 金元澤 處

賜給 草注紙 二卷

各色筆 十五

各樣墨 十笏

비고備考

봉투封套와 간찰簡札과 김원택처金元澤處 사급賜給 기록記錄과 삼부三部로 나뉘어 있다. 김원택金元澤은 영의정領議政 김상복金相福(숙종肅宗 갑오甲午 생생 - 영종英宗 임인壬寅 졸卒)의 부자이며 김장생金長生의 후손이요,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와 동종同宗이며, 판윤判尹을 지낸 사람으로서 현종顯宗 혹은 숙종肅宗으로부터 여사如斯한 사급賜給의 총寵을 받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 [운석유고雲石遺稿]. 사급賜給 문건文件은 만약 왕의 친필이라면 그 필체로 봐서 현종顯宗에 가깝다.

본문本文

숙종肅宗 간찰簡札과의 관계는 미상未詳이나, 이 별지別紙 문건에 의해서 현종顯宗 어필첩御筆帖을 간직해 온 것은 김원택金元澤 후손임을 알 수 있다.

이 간찰簡札의 시기는 거의 확증을 얻을 수 있는 기록이 숙종肅宗 실록實錄에 나타난다. 즉 숙명공주淑明公主가 졸卒한 것은 숙종 이십오년 삼월 계유癸酉인데, 그 전에 이월 경술庚戌에 숙종肅宗이 창황惶惶히 문병問病을 가서 너무나 위독한 바람에 수작酬酌도 못 하고 환

궁還宮했고, 그 뒤 왕비의 문병행問病行을 명령한 바 있고, 삼월 계유癸酉에는 재행차再行次를 하여 차복差復을 즐거워하는 올일수律一首를 하사下賜했다. 결국 그달 병술丙戌에 서거逝去하여 진도震悼하지않았다.

여상如上으로 봐서 이 간찰簡札이 숙종어필肅宗御筆임은 필적과 사연辭緣과 사실의 일치로 확증을 얻을 수 있으며 아마 김상복金相福의 부자 김원택金元澤이 현종顯宗 어필첩御筆帖을 작성하고, 그 뒤 자자 김상복金相福 혹은 그 후손이 이 간찰을 입수하여 어필이라고 말미 여백에 첨부하고, 또 현종顯宗으로부터 받은 하사 문건도 같이 첨부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신한첩宸翰帖의 출현이 없었다면 이 간찰簡札은 현종顯宗 어필御筆이라고 간주看做될 뻔했다.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부록附錄 38-39쪽

봉투 : 근 숙명공주방 봉

먼저는 창망한 가운데 덧없이 다녀오니, 그때 마음이야 어찌 내내 적으리까, 병환은 나날 나으셔서 지금은 거의 평소와 다름없으신가 싶으니 기쁘고 다행함을 무어라 할 말이 없어 하오며 언제 다시 반가이 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정숙, 『조선의 한글편지』, 다운샘, 서울, 2017년, 347쪽

먼저는 : 肅宗이 淑明公主의 問病갓던 날. 實錄에 依해서 肅宗 二十五年二月庚戌日로 推測됨. 病이 危重해서 갑자기 行次했음

即今은 : 이 書簡을 쓴 富時, 三月 癸酉에 두 번째 問病하기 前.

金元澤 : 英宗 時 領議政 金相福의 父, 判尹을 지냈으나 富時엔 仕官을 하지 않았던 모양

13. 소훈이씨제문昭訓李氏祭文, 1721년

향

불최년야, 오호통지, 오호통지, 타인, 냥, 오, 장
 성, 약, 문, 심, 모, 여, 장, 하, 어, 답, 지, 야, 언, 념, 금, 초, 오, 너
 여, 할, 여, 심, 여, 초, 이, 회, 하, 언, 추, 유, 유, 석, 당, 황
 미, 성, 님, 동, 이, 별, 습, 념, 미, 시, 초, 하, 평, 절, 스, 난, 면
 무, 석, 망, 고, 제, 제, 수, 여, 사, 구, 현
 대, 공, 빈, 여, 평, 부, 약, 다, 매, 할, 지, 금, 일, 두, 낙, 터, 심, 회, 제, 고
 머, 공, 이, 초, 성, 몽, 미, 부, 득, 여, 심, 시, 역, 여, 동, 턴, 지, 할, 야, 오, 호
 통, 지, 오, 호, 통, 지, 상, 장, 제, 구, 단, 기, 무, 감, 석, 여, 평, 성, 성
 지, 점, 영, 념, 유, 유, 다, 석, 감, 여, 의, 석, 인, 일, 여, 소, 점
 탁, 도, 금, 작, 이, 영, 평, 지, 다, 세, 간, 범, 스, 성, 난, 초, 구, 다,
 이, 기, 여, 초, 여, 년, 희, 시, 상, 상, 평, 성, 석, 여, 심, 이, 하, 후
 문, 상, 감, 아, 회, 여, 하, 이, 호, 초, 상, 통, 의, 기, 왕, 유, 명
 영, 견, 음, 신, 난, 통, 성, 든, 일, 이, 누, 제, 누, 연, 함, 비, 제
 문, 열, 분, 인, 성, 후, 하, 유, 쥘, 죽, 미, 능, 정, 오, 호, 통, 직, 오
 호, 통, 직, 혼, 혜, 미, 원, 갑, 초, 의, 점, 차, 오, 도, 지, 금, 비, 부
 인, 지, 통, 오, 하, 난, 성, 하, 일, 부, 문, 화, 용, 유, 석, 희, 시
 킵, 견, 야, 스, 증, 비, 문, 문, 상, 심, 방, 유, 등, 거, 이, 희, 노,
 내, 하, 기, 합, 이, 부, 분, 일, 익, 상, 도, 초, 점, 난, 여, 신, 후
 유, 락, 쇼, 념, 가, 의, 발, 탁, 유, 점, 여, 심, 가, 기,
 조, 건, 념, 관, 제, 전, 형, 작, 념, 유, 가, 다, 호, 념, 유, 다
 호, 금, 여, 초, 문, 소, 여, 심, 곡, 괴, 인, 식, 스, 과, 찬, 이, 부,
 평, 일, 근, 초, 지, 심, 직, 인, 괴, 장, 념, 킵, 당, 제, 전,
 념, 필, 분, 인, 흥, 기, 여, 성, 오, 호, 통, 직, 오, 호, 통, 직, 상

임인년 무간 박재갑입서

원본 크기 : 27.9x152.8cm
 작품 크기 : 37.0x155.0cm
 자료 출처 : 디지털장서각 『1721년 11월 소훈이씨昭訓李氏 치제문』 - 王室古文書
 크기 : 31.0 X 170.0
 원문 : RD02784_001

昭訓李氏祭文

維歲次辛丑十一月庚子朔十九日丙午
 王世弟遣尙宮李氏以清酌庶羞 哀奠于
 昭訓李氏靈柩之前曰 嗚呼痛哉 世間豈無哀
 憾之痛 而豈有余今日所遭之事乎嗚呼以婉順之
 性柔雅之質生自良家蚤歲入宮爾之選入也
 余亦年幼既自幼時其所處身盡有規度寔余
 所以暗嘆者也至於身居小室翼翼小心夙宵
 敬謹余有過焉輒必窺諫余嘗悔悟而改之
 者是豈引愛而然哉誠服善心而然也名雖男女
 意則朋友知余心者爾也知爾心者余也慶毓閨中
 螽斯詵詵余嘗曰積善之人必有餘日後麟趾
 振振之喜必不止此百年爲期以享其福不意一
 疾奚至此境嗚呼痛哉念爾之事言亦慘矣七

쇼훈니시제문

으기세초신류십일월경조삭삼구일병오

왕세제전상궁니시이형작세슈이

전우

쇼훈니시녕구디전왕오호통지.세간귀무이척지
 룡이귀유여금일소조지소호.오호이완슈지성.유
 아지질.싱은즈냥가.조세입궁.이지현입야.여역년
 유.귀즈유시.기소쳐신.딘유구.독식.여.소이암탄자
 야.다.어.신거쇼실.이익쇼심.슈쇼경근.여유과언.
 첩필기간.여상회오이키지자.시괴.인인이연지.
 성은부.선심이연야.명슈남녀.의즈.붕우.디여심
 자.야.다이심자.여야.경유규중.동스선선.여상
 왕.적.선.지.인.괴.필.유.여.경.일.후.난.지.딘.딘.지.희.필
 불.디.츠.빅.년.위.괴.이.항.기.복.블.의.일.질.히.지.츠
 경.오.호.통.저.념.이지.스.언.역.참.의.질.년.지.년.년.조
 거.창.최.마.미.히.거.이.장.셔.심.어.스.셔.위.나.히.스.언
 지.식.의.스.지.통.의.평.일.조.심.유.이.적.은.지.변.첩.분
 원.명.니.지.영.유.상.상.즈.회.자.여.귀.부.디.이.귀.슈
 기.작.당.유.귀.즈.녀.즈.결.분.블.가.인.지.외.제.부.득.이.
 스.지.입.첩.권.년.금.중.반.요.지.디.비.이.소.심.고.민.즈
 공.구.전.이.블.편.동.자.어.침.안.의.지.경.시.슈.지.구.실
 어.지.티.야.츠후.회.하.급.오.호.통.의.도.즈.타.어.이.연.변
 즈.침.즘.이.블.어.이.인.경.상.지.참.전.귀.인.언.지.
 귀.인.언.지.시.내.명.야.비.명.야.위.이.명.야.즈.방.오.년
 슴.판.귀.비.침.츠후.우.이.비.명.야.즈.부.성.화.음
 지.니.과.안.저.지.슈.블.념.답.어.여.덕.구.블.념.답.어
 6.귀.하.냥.오.호.만.부.지.호.모.기.첩.근.심.장.귀

年之內連遭巨愴衰麻未解遽以長逝生於斯
 世爲樂奚似言之塞矣思之痛矣平日操心惟
 [원문:RD02784_002]
 以靜在僻處不願名利之榮辱常嘗自劃者
 余豈不知而既受其爵堂有子女則決不可仍在
 外第不得已使之入處闕內禁中繁擾之地非
 爾素心故每自恐懼轉益不便終至於沉疴難
 醫之境是誰咎實余之致也追悔何及嗚呼痛
 矣朝則對余而言夕則沈潛而不語伊日景象之慘
 切豈忍言哉豈忍言哉是乃命耶非命耶謂
 以命也則芳年十八豈非青春謂以非命也則
 福善禍淫之理果安在哉雖不念及於獨不
 念及於乳下兩兒乎萬福之呼母雖銜石心膈
 豈不摧裂耶嗚呼痛哉嗚呼痛哉他日兩

兒長成若問生母余將何語答之耶言念及此
 五內如割余心如此爾懷何言追惟疇昔便成一
 [원문:RD02784_003]
 夢眞乎非乎倘悅未醒臨終未訣襲斂未視
 此恨耿耿死難瞑目西望故第涕淚如瀉歸見
 大宮白余平否若知大恨之今日則略據心懷替告
 大宮而此誠夢昧不得如心是亦余終天之恨也嗚呼
 痛哉嗚呼痛哉喪葬諸具盡其無憾叙余生平
 之情英靈有知庶感余意昔日余所占宅
 兆今作爾永窆之地世間凡事誠難測知爾既
 如此余年奚恃像想平昔余心伊何觸物傷
 感我懷如何已乎此生慟矣其往幽明永隔
 音信難通聲吞一哀淚制流泉含悲製文
 咽不忍成燭下濡筆字未能精嗚呼痛哉嗚

呼痛哉魂兮未遠鑒此哀情嗟吾道之窮非
夫人之慟溫言朗聲何日復聞和容柔色奚
時更見耶事事增悲物物傷心方欲同居而
[원문:RD02784_004]

偕老奈何既合而復分日益傷悼此情難抑
身後有托 昭靈可倚吉宅有占余心可慰茲
遣女官替奠 洞酌靈有知乎靈有知乎今余
此文訴余心曲豈忍飾辭過讚以負平日謹
敕之心哉 鞫期將臨更當替奠 靈必不昧 歆
格余誠 嗚呼痛哉 嗚呼痛哉 尙饗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훈이씨 제문』, 『英祖妃嬪資料集2 碑誌, 冊文, 教旨, 祭文』,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성남시, 2011년, 60~63쪽

『소훈이씨제문 昭訓李氏祭文』

한글 : 1721년(경종 1) 11월 / 필사. 1장 / 世弟(英祖)睿製 /
27.9x152.8cm / 2786

해설

1721년(경종 1) 11월 19일에 정빈 이 씨를 위해 왕세제였던 영조가 친히 지은 제문이다. 정빈은 이보다 1달 앞선 10월 3일에 소훈昭訓의 작위를 받고서 처음으로 영조의 후궁이 되었으나,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11월 16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제문은 지난날의 회상과 정빈에 관한 추억, 영조 자신의 비통한 심정 등을 담고 있다. 정빈이 온순한 성품과 법도 있는 행실을 갖고 있었고, 영조와는 어릴 적부터 얼굴을 익혀왔던 사이로 지기知己와도 같은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때문에 영조의 슬픔이 적지 않았을 것임을 이 글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제문은 같은 내용을 한글과 한문으로 각각 기록해 두었는데, 한글 제문(2786)은 한문 제문(2784)의 한자음을 한글로 쓴 것으로, 실제로 제문을 대신 읽을 때 사용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본 자료집에서는 한문을 입력하고 번역하였다. 한문과 한글을 비교하면 몇 군데 서로 가감되거나 다른 점이 있다. 번역하 FEO 한문의 문맥이 어색한 곳은 한글을 참고하여 반영하였다.

번역

신축년 1721(경종 1) 초하루의 간지가 무자戊子 인 11월 19일 병오丙午에 왕세제는 상궁이씨를 보내어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소훈이씨昭訓李氏의 영구靈柩 앞에서 슬프게 제사를 지낸다.

오호라! 아프도다.

세상에 슬프고 쓰라린 아픔이 어찌 없겠나마는, 내가 오늘날 만난 일 같은 것이 어찌 있으랴? 오호라! 그대는 온순한 성품과 부드럽고 바른 자질을 가지고 양가良家에서 태어나 이른 나이에 궁궐에 들어왔소. 그대가 선발되어 들어올 때 나 또한 나이가 어렸는데,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대가 처신하는 바가 모두 규범과 법도가 있었으니 이것이 내가 년 지시 감탄했던 바라오. 그대 몸이 소실로 있게 되어서는 조심조심 밤낮으로 공경하고 삼갔지. 내게 과실이 있으면 그때마다 내 안색을 살피고서 충고했는데, 내가 늘 누우치고 고친 것이 어찌 애정에 이끌리어 그런 것이었겠는가? 그 선한 마음에 정말 감복하여 그런 것이라오. 성별은 비록 남자와 여자이지만 마음으로는 벗이어서 내 마음을 아는 자가 그대이고 그대 마음을 아는 자가 나였지. 규중에서 자손을 낳아서 자손이 많았으니 내가 언젠가 “선행을 쌓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으리니 뒷날 자손들이 창성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며, 반드시 여기에 그치지 않아 백 년을 기약하고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병 하나에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오호라! 아프도다.

그대의 일을 생각하자니 말하기도 참담하오. 7년 내에 큰 슬픔을 연이어 만나 최마복衰麻服을 벗기도 전에 갑자기 영영 떠나 버리다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즐거워했던 것이 얼마나 되었던가. 말하자니 답답하고 생각하니 아프구려. 오직 구석진 곳에 조용히 있으면서 명예와 이익의 영욕榮辱은 원치 않음으로써 항상 스스로 선을 그은 것이 그대 평소의 마음가짐이었음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였으랴마는, 그 작위爵位를 받고 집에 자녀가 생기고 나서는 결코 계속해서 궁궐 밖의 집에 있을 수 없었기에 하는 수 없이 그대를 궁궐 안에 들어와 거처하게 하였지. 번거롭고 어지러운 땅, 금중禁中은 그대 평소의 마음이 아니었으므로 늘 스스로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갈수록 불편해하다가 종내에는 고질이 되어 낮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누구를 탓할까? 실

로 나의 소치일세. 후회한들 어찌 미치지겠는가. 오호라! 아프도다. 아침에는 나를 대하여 말하더니 저녁에는 깊이 숨어서는 말을 앓으니, 그날 광경이 비참하고 처절함을 어찌 차마 말하겠는가! 어찌 차마 말하겠는가! 이것이 천명인가? 천명이 아닌가? 천명이라고 말한다면 꽃다운 스물여덟이 어찌 청춘이 아니겠으며, 천명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선한 이에게 복을 주고 사악한 이에게 화를 내리는 이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비록 생각이 나에게 미치지 않더라도, 생각이 두 젓먹이에게만큼은 미치지 않는가? 만복萬福이가 어미를 부르짖으면 비록 심장이 쇠나 돌로 되었다고 해도 어찌 찢어지지 않겠는가? 오호라! 아프도다. 오호라! 아프도다.

훗날 두 아이가 장성하여 낳아준 어미를 묻는다면 내 장차 무슨 말로 답해줄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듯하오. 내 마음이 이와 같은데 그대 정회는 어떠할까. 저 옛날을 추억하니 일장춘몽이 되었구려. 참인가, 거짓인가? 어렵듯하여 정신이 깨질 앓소.

임종할 때 영결하지 못하고 염습할 때 보지 못했으니 이 한이 마음에 짝 맺혀 죽어도 눈을 감기 힘들겠소. 서쪽으로 옛집을 바라보니 눈물 콧물이 쏟아지듯 하오. 돌아가 대궁大宮을 뵈고서 내 안부를 아뢴 때, 그대가 만일 나의 대단히 한스러운 오늘을 안다면 심회心懷를 대략 늘어놓고 대궁大宮께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이것은 진실로 몽매하여 마음처럼 되지 않으리니, 이 또한 내 죽을 때까지의 한이라오. 오호라! 아프도다. 오호라! 아프도다.

상례와 장례의 여러 도구는 서운하지 않도록 다하여 내 평소의 정을 퍼놓았으니 영령英靈은 지각이 있다면 내 마음에 감응하길 바라오. 지난날 내가 잡아놓은 택조宅兆:墓地는 이제 그대가 영원히 묻힐 땅이 되었구려. 세상의 모든 일이 진실로 미리 헤아려 알기가 어렵소. 그대가 이미 이처럼 되었는데 내 나이를 어찌 믿을까. 지난날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어떠할까? 끝이구나! 이 삶이여. 비통하구려! 떠나감이여. 저 승과 이승은 영원히 막혀있어 소식도 통하기 어렵구려. 울음을 삼키며 애통해하자니 눈물은 흐르는 샘이 되었고, 슬픔을 머금고 제문을 짓자니 목이 메어 차마 짓지 못하겠소. 촛불 아래서 붓을 적시니 글자가 갈끔하지 못하구려. 오호라! 아프도다. 오호라! 아프도다.

혼이여! 멀리 가지 않았거든, 이 애통한 심정을 살펴보오. 아! 나의

도도가 다하였는가! 저 사람을 위해 애통해하지 않으면 누굴 위해 애통해하겠는가! 따뜻한 말과 낭랑한 음성을 어느 날에 다시 들으며, 온화한 모습과 부드러운 얼굴을 어느 때에 다시 본단 말인가? 일이면 일마다 슬픔을 더하게 하고 경물이면 경물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구려. 이제 막 같은 곳에 거처하며 함께 늙자고 하였건만, 만났다가 또 헤어짐을 어찌한단 말이오! 날이 갈수록 더욱 아프고 슬프니 이 정을 누르기 어렵구려. 죽은 뒤에 의탁할 곳이 있으면 밝고 신령스러운 그대 영혼이 의지가 될 것이라, 길택吉宅을잡았으니 내 마음이 위로되는구려. 이에 여관女官을 보내 형작洞酌을 대신 올리게 하노니, 혼령이여 지각이 있는가? 혼령이여 지각이 있는가?

이제 나의 이 글로 내 마음속을 하소연하노니, 어찌 차마 글을 꾸미고 지나치게 칭찬하여 평소에 근신하던 마음을 저버리겠소? 발인發靨의 기일이 닳쳐오면 또 사람을 시켜 대신 잔을 올리게 하겠소. 혼령은 반드시 어둡지 않으리니 내려와서 내 정성을 흠향하오. 오호라! 아프도다. 오호라! 아프도다. 흠향하오.

무자戊子 : 원문에는 '庚子'로 되어있으나 1721년 11월 1일의 실제 간지에 따라 바로 잡았다.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으리니 : 한문본에는 '必有餘로만 되어 있어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나 한글본에 '필유여경'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必有餘慶'으로 유추하여 번역하였다.

그 작위爵位를 받고 : 정빈이 공녀로 있다가 1721년 10월 3일 소훈昭訓에 책봉되어 왕세제였던 영조의 후궁이 되었던 일을 이른다. 소훈이씨는 다음 달인 11월 16일에 세상을 떠났다.

만복萬福 : 정빈의 아들인 효장세자孝章世子를 이르는 뜻하다.

대궁大宮 : 숙종을 이르는 뜻하다.

형작洞酌 : 제사에 올리는 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인 박주薄酒의 의미이다 형작洞酌은본디 제사에 올리기 위하여 멀리서 떠온물을가리키는말로 『시경詩經』「대아大雅·생민지심生民之什」의 형작장洞酌章에서 유래하였다 「시경」에 따르면 멀리서 물을 떠와서 큰 그릇에 붓고 다시 그것을 작은 그릇에 옮겨 부은 다음 그것으로 제수용 음식이나 술을 빛는데, 이렇게 하는 까닭은 충신의 덕과 정결하게 재계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제사에 바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4. 어제자성편언해御製自省編諺解, 1746년

영조가 자신을 성찰하고 왕세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역대 제왕의 사적 중 모범이 될 만한 내용을 간추려 편찬한 「자성편自省編」을 언해한 책이다. 한문본은 1746년 문정전文政殿에서 2권 2책으로 편집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본래 한문본과 함께 간행하려 한 초본草本으로 추정된다. 서체가 정연하고 흘림이 없으며, 편집이 잘 되어있고 표지 장정이 호화롭다. 언해본의 언해자 및 필사자, 시기 등은 알 수 없다. 책의 체제는 「수서首序」, 「외편外篇」, 「소지小識」, 「고교제신함명古敎諸臣啣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서」와 「후발」에는 1746년 2월 17일에 지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내편」은 심신心身, 「외편」은 감계監戒를 위주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영조는 「수서」에서 이 책이 평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지난 일을 생각하며 감흥이 있는 것[追慕而興感], 생각하여 하나라도 얻은 것[思慮而一得], 잘못했다가 문득 깨달은 것[過差而施悟], 역사 기록을 보다가 반성한 것[看史而反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세자에게 보여 감계하려는 의도에서 저술했음을 밝히며, 영조 자신이 실행에 옮기지 못한 신념과 사업이 세자에 의해 계승되기를 기대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 70~71쪽

한문본의 저술 의도는 원량에게 감계를 주기 위한 것이지만 언해본을 필사한 동기까지 원량을 위한 것이라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해본은 여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 책 역시 왕실의 여성을 위하여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언해본의 한글 필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한글 필사가 원칙적으로 왕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한글 필사본 어제자성편(언해)은 왕실의 여성을 위하여 왕실 주변에서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배영환, 『장서각 소장 영조 어제 언해서류(1) - 어제자성편(언해)와 어제속자성편(언해)를 중심으로』, 이광호 외, 『장서각 소장 한글 필사자료 연구』, 태학사, 파주, 2007년, 42쪽

하흠만지지 못하리라 하시니 슬프다 부조
 논나시며 알으시느 성으로 배도 그 오히려
 학을 초하하시거든 학물며 둠인 배아래야
 도학문하는 되 성찰하기에 이만 요절호
 미업는 지라 증조외 아성으로 배도 오히려
 날노세 번 슬피시니 학물며 범사름가 동점
 과운위하날리에 어그러짐은 꼭 성찰치 못
 흠이니 슬프다 내량덕만학으로 배경전가
 온대 미스 와 오지 못할 능히 만일을 념략
 하리오 마는 다만 마음의 항상 날려 오지

어제자성편슈셔
 사람의 성이 하늘의 품부하스스로 본
 연의 어질미이시니 성현이 되며 불회되미
 불과 그 거질을 인하여 도학일념의 잡으며
 노흠을 인할수록이라 중용의 글오디나며
 알며 비화알며 곧 학야알미 그 공일몸에 미
 처는 학가지라 하시니 일노 배불면 매진실노
 상지의 조질이 아니면 후문을 버리고 잊지
 배공을 일오리오그러나 공저니 르샤더심
 실고을의 반드시 충신이 이시나 모의 후조

원본 크기 : 37.6x24.2cmx2장,

작품 크기 : 41.0x52.0cm

자료 출처 : 영조(조선왕, 1694-1776) 찬 英祖(朝鮮王, 1694-1776) 撰,

『어제자성편언해(상하)御製自省編諺解(上下)』,

K4-4106, MF16-366, 디지털장서각, jsg.aks.ac.kr

<어제자성편(언해) 상 : 1a>

어제자성편御製自省編 수서首序

사람의 성성이 하늘로부터 품부稟賦, 선천적으로 타고남으로 하여 스스로 본연本然의 어짐이 있으니 성현聖賢이 되며 불초不肖가 되는 것이 불과 그 기질氣質로 인困하며, 또한 일념一念을 잡으며 놓음에 인할 따름이라. 중용中庸에 가로되 ‘나며 알며, 배워 알며, 곤困하여 얹이 그 공功을 이룸에 이르러서는 한가지라’ 하니 이로써 불진대 진실로 상지止智(가장 뛰어난 지혜)의 자질이 아니면 학문을 버리고 어찌(씨) 공功을 이루리요? 그러나 공자孔子께서 이르시기를 “십실十室 고을에 반드시 충신忠信이 있으나 모丘의 학學 좋

<어제자성편(언해) 상 : 1b>

아함만 같지 못하리라” 하시니 슬프다, 부자夫子는 나시며 아시는 성聖으로도 (그) 오히려 학문을 좋아하셨는데 하물며 중인中人(씨) 아래야 (말해서 무엇하리요)? 또한 학문하는 도道는 성찰省察하기에 이만큼 요절要節(문장에서 요긴한 마디)한 것이 없는지라, 증자曾子가 아성亞聖(유학에서 공자 다음 가는 성인)으로서도 오히려 날로(=날마다) 세 번 살피시니 하물며 범인凡人이야 (말하여 무엇하리요)? 동정動靜(사람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과 운위云爲(말과 행동)가 하늘의 이치天理에 어그러짐은 곧 성찰省察하지 못함이니 슬프다, 내 양덕涼德(덕이 적음) 만학晚學으로 경전經傳 가운데 미사微辭(조용히 하는 말)와 오지奧旨(깊은 뜻)를 어찌 능히 만일(萬一=萬分之一)을 영략領略(대강을 짐작하여 앎)하리오마는 다만 마음에 항상 일러 가로되

천리내게이솨를생각지아니할고도로혀
 니로되높고머러헝키어렵다하니가히탄
 식흠을이거랴슬프다엇지밭기구하리오
 다만내게이시나그리오논재므섯고곳할
 옥저니이를분별코자할면대엇지성찰의
 엇지아니할리오그러나이드를알고능히
 헝치못흠이임무의능히말할파又튼지라
 락양전소를넘으매척을덥고래식흠을세
 듯지못하니그러나내조흔능히이룰헝치
 못하니훗사람의날우음이이제넷사람봄

삼대의배삼대된바는다름이업서곳할고
 족치천리를조차그러흠이오삼대배후에
 는세최하되고되미하야를욕의빠져이에그
 본연의성을일흔지라안지결오샤디순은
 엇더할사람이며나는엇더할사람고히음
 이잇는재조할이又특리라하시니슬프다
 본연의성은사람이다두어시니진실노능
 히스시리에합할며물물이리에합할면엇
 지삼대와후세의논호임이이시리오한당
 배음으로비록희움이이실임금이이시나

원본 크기 : 37.6x24.2cmx2장

작품 크기 : 41.0x52.0cm

<어제자성편(언해) 상상 : 2a>

삼대三代의 (씨) 삼대三代 된 바는 다름이 없어 곧 한결같이 천리天理를 좇아 그러함ियो, 삼대(씨) 후에는 세쇠世衰(세상이 어지러움)하고 도도가 미微하여 물욕物慾에 빠져 이에 그 본연本然의 성성을 잃은지라.’ 안자顔子가 가로되 “순舜은 어떠한 사람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함이 있는 자처가 또한 이 같으리라” 하시니 슬프다. 본연本然의 성성은 사람이 다 가졌으니, 진실로 능히 사사事事(일마다)가 이치에 합하며, 물물物物(물마다)이 이치에 합하면 어찌 삼대三代와 후세後世가 나뉘어 있으리요? 한당漢唐부터 (씨) 오므로(=이래로) 비록 함이 있을 임금이 있으나

<어제자성편(언해) 상상 : 2b>

천리天理가 내게 있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르되 ‘높고 멀어 행하기 어렵다’하니 가히 탄식歎息함을 이기겠는가? 슬프다. 어찌 밖에서 구하리오? 다만 내게 있으나 가리는 것[者]이 무엇인가? 곧 욕慾자字 하나이니 이를 분별하고자 할진대 어찌 성찰省察에 있지 아니하리오? 그러나 이 도道を 알고 능히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앵무鸚鵡가(능히) 말하는 것과 같은지라, 매양 전사前史를 읽음에 책을 덮고 태식太息(한숨)함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나 또한 능히 이것을 행하지 못하니 훗사람이 나를 (보고) 웃음이 이제 사람이 옛사람을 보는 것과

온외편이니 내편은엇제오곳스스로다는
 일이오외편은엇제오곳다스름을하늘은일
 이라오회라성이엇지멀며현이엇지멀니
 오프내할모음어잇는니공이스름이거여
 천리순연하면성현이되고시공을이거여
 인욕의씨지면하위되니요순과걸쥬의는
 호요미이모음잠으며다모노호매이실쥬
 름이라능히성각할면성이되고성각지아
 니면광이됨을서외엇지아니닐넛는냐내
 만후으로배잠간이도를아되능히몸소행

넛씨에비치못할뎌라슬프다스즈큰광음
 은배머므로기어렵고점점최모하는심거
 는배두로허기어려오니만일이제교유치
 아니면다시어너씨룰기두리이오적이정
 신을슈습하야이에이글을짓고그일흥을
 명하야글오뒤조성편이라하니슬프다이
 든지엇지엇두며엇두리오내스스로솔피
 는자로배그네게권면하노니이를테럼하
 야스스로솔피며이를테럼하야스스로솔
 피라그편이두리이시니글온너편이오글

원본 크기 : 37.6x24.2cmx2장

작품 크기 : 41.0x52.0cm

<어제자성편(언해) 상사 : 4a>

옛 때에 비하지 못할지라. 슬프다, 사駟(말 넛이 끄는 빠른 수레) 같
 은 광음光陰은 (씨) 머물게 하기 어렵고, 점점 쇠모衰耗(쇠퇴하여 줄
 어듸)하나니 심기心氣는 (씨) 돌이키기 어려우니 만일 이제 교유教
 諭(가르치고 타이름)하지 아니하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리요? 적이
 정신을 수습收拾하여 이에 이 글을 짓고 그 이름을 명하여 가로되 《
 자성편自省編》이라 하니 슬프다, 이 뜻이 어찌 열으며 열으리요? 내
 가 스스로 살피는 것으로써 (그) 네게 권면勸勉하니 이를 체념體念(깊
 이 생각함)하여 스스로 살피며 이를 체념體念하여 스스로 살피라. 그
 편編이 둘이 있으니 이른바 내편內篇이요, 이른바

<어제자성편(언해) 상사 : 4b>

외편外篇이니 내편은 어떠한가(=어떠한 내용인가)? 곧 스스로 닦는 일
 이요, 외편은 어떠한가(=어떠한 내용인가)? 곧 다스림을 하는 일이라.
 오히려(=아아, 탄식하는말), 성聖이 어찌 멀며 현賢이 어찌 멀리요? 곧
 내 한마음에 있으니, 공公이 사私를 이기어 천리天理가 순연純然(다
 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아니하고 제대로 온전함)하면 성현聖賢이 되
 고, 사私가 공을 이기어 인욕人慾(사람의 욕심)에 빠지면 하우下愚(아
 주 어리석고 못남)가 되니, 요순堯舜(堯임금과舜임금)과 걸주桀紂(桀
 왕과紂王)의 나뉘미 이 마음을 잡으며(더불어) 놓음에 있을 따름이라.
 능히 생각하면 성聖이 되고 생각지 아니하면 광狂이 되는 것을 서書(=
 書傳)에 어찌 아니 일렀느냐? 내 만학晩學(나이가 들어 뒤늦게 공부함)
 으로서 조금 이 도道를 알되 능히 몸소 행行

글을 보아 내 능히 행하지 못하는 것을 네 능히 힘써 행하여 깎는
 힘배 힘하야 기움이 이 글을 지은 뜻이오, 네게 또한 계술繼述(선조나 부
 녀께 또 할 계술하는 효도) 되니 내 깊이 원량(왕세자)에게 바람이 있노라. 세재歲在 유조柔兆(十干 중
 丙의 옛이름) 섭제격攝提格(천간天干 중 '寅'의 옛이름) 중춘仲春(봄
 이 한창인 때라는 뜻으로, 음력 2월을 달리 이르는 말) 십칠十七 일日
 제題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우부승지右副承旨 지제교知製
 敎 겸 경연經筵 참찬관參贊官 춘추관春秋館 수찬관修撰官 신臣 이
 철보李喆輔 봉교奉敎 서書

교서
 서기이천이십년 무간박재잡임서

원본 크기 : 37.6x24.2cmx2장
 작품 크기 : 41.0x52.0cm

<어제자성편(언해) 상 上 : 5a>

하지 못하니 이 또한 말로 가르침이나 (그러나) 성훈聖訓(성인이나 임금의 교훈)이 소소昭昭(사리가 밝고 또렷함)하여 몸소 행行하고 남는 것이 없지 않으니 말로 가르침이라 이르지 말고 마음에 침잠沈潛(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게 물속 깊숙이 가라앉거나 숨음)하여 복음服膺(교훈 따위 마음에 간직하여 잠시도 잊지 아니함)하여 이 글을 봄에 능히 이미 행行한 것에는 쉽다 일러 소홀하지 말며 행行하지 못한 것에는 또한 어렵다 일러 한계를 긋지 말라. 슬프다, 옛 주周 문왕文王이 여상呂尙(태공망의 다른 이름)을 얻고 가로되 “선군先君(선대의 임금) 태공太公이 그대를 바란 것이 오래다” 하고 (인하여) 이름하여 가로되 ‘태공망太公望’이라 하시나 사람에게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학문이야 (말하여 무엇하리요)? 이

<어제자성편(언해) 상 上 : 5b>

글을 보아 내 능히 행行하지 못하는 것을 네 능히 힘써 행行하여 깎는 (=보완하는) 것이 이 글을 지은 뜻이오, 네게 또한 계술繼述(선조나 부형의 뜻과 사업을 이어 나감)하는 효도孝道이니 (=효도가 되니) 내 깊이 원량元良(왕세자)에게 바람이 있노라. 세재歲在 유조柔兆(十干 중 '丙'의 옛이름) 섭제격攝提格(천간天干 중 '寅'의 옛이름) 중춘仲春(봄이 한창인 때라는 뜻으로, 음력 2월을 달리 이르는 말) 십칠十七 일日 제題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우부승지右副承旨 지제교知製敎 겸 경연經筵 참찬관參贊官 춘추관春秋館 수찬관修撰官 신臣 이철보李喆輔 봉교奉敎 서書

조항번, 김주필, 황문환, 박용만, 『역주 어제자성편(언해)』, 도서출판 역락, 서울, 2006년, 27~36쪽

15. 천의소감언해 闡義昭鑑諺解, 1755년

슈셔비답
 답왈경등의차즈를술피니희라나의뻗히모음의특
 향엇던거슬임의찬슈령에닐러더니이제천의쇼감
 을보니종금이후로거의
 조성밭드을늦치잇고
 황형여절향을늦치이시니더욱오른날이모음이인
 비향도다희라경등의팀성이아니면엇지뻗이를
 향리오김히그통성을아롭다이너기노라
 서기이천이십이년무간박재갑임서



원본 크기 : 36.5x23.2cm

작품 크기 : 36.5x23.2cm

자료 출처 : 『천의소감언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년, 0003쪽

임금께서 손수 글을 써 비답批答하셨다. “경등의 차자筴子를 살펴보니 기쁘다! 내가 몇 해 동안 마음에 두었던 것을 이미 찬수청에 일렸는데 이제 『천의소감闡義昭鑑』을 보게 되니 지금 이후로 자성慈聖을 받들 낮과 황형皇兄께 절할 낮이 있으니 오늘 이 마음이 한층 더하다. 기쁘다. 경 등의 정성이 아니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였겠는가. 그 충성을 아름답게 여기노라.”

정윤자, 김길동, 김일환, 변민주, 주경미, 『역주, 천의소감언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성남시, 2019년, 47쪽

『천의소감闡義昭鑑』은 영조英祖(1694~1776)가 소론의 집권 명분을 제거하고 노론의 집권 의리를 천명하기 위하여 편찬을 명한 도서이다. 영조의 명을 받들어 천의소감찬수청闡義昭鑑纂修廳이 설치되었고, 김재로金在魯 이천보李天輔 조재호趙在浩 등이 1755년(영조 31)에 편찬하였다. 천의소감이 완성된 직후 원경하元景夏 신만申晩 두 사람이 언해한 천의소감언해 필사본(4권 3책)이 만들어졌고, 이듬해인 1756년(영조 32)에 4권 4책으로 이루어진 목판본 천의소감언해가 편찬되었다. 역사의 측면에서 천의소감언해는 세제 책봉 때부터 왕위 계승의 취약성을 의식한 영조가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천명해 왕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편찬하였는데, 왕위 계승을 둘러싼 노론과 소론 간의 당쟁이 총역 의리론忠逆義理論적인 성격을 가지며 발전한 당쟁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신임사화를 비롯한 노론과 소론 간의 당쟁 양상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영조의 탕평책의 성립과 전개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다만 노론의 입장에서 편찬되었기에 소론의 사정이 무시된 사료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천의소감언해에는 1721년 연잉군(영조)의 세제 책봉과 이를 둘러싼 노론과 소론 간의 쟁론(권1), 영조의 즉위와 소론 정권의 실각 과정(권2), 정미환국丁未換局과 무신란(권3), 나주괘서사건(권4) 등이 기록되어 있다. 영조의 즉위 과정과 소론과 노론의 갈등, 계속해서 벌어지는 역모 사건, 환국換局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암투 등 영조 재위 기간의 풍부한 스토리성 때문에 이를 소재로 하여 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이 만들어졌다.

정윤자, 김길동, 김일환, 변민주, 주경미 역주, 『천의소감언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성남시, 2019년, 4~5쪽

1755년(영조英祖 31) 영조英祖의 명命으로 천의소감찬수청關義昭鑑纂修廳을 설치하여, 김재로金在魯·이천보李天輔·남유용南有容 등이 난적亂賊을 징계하고 윤강倫綱을 바로잡아 왕세자王世子를 세우는 의義를 천명하기 위하여 찬진한 ≪『천의소감關義昭鑑』≫을 연해한 책이다. 4권 4책의 목판본木板本으로 목록目錄에 간년刊年이 1755년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천의소감關義昭鑑』≫이 간행刊行된 연대라고 볼 수 있으며, 언해本諺解本이 간행된 연대라고는 볼 수 없다. 아마 남유용南有容이 발문跋文을 쓴 연대가 1755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번역한 언해본에도 1755년이라고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천의소감찬수청의궤關義昭鑑纂修廳儀軌』≫[奎14206]의 1755년 11월 24일의 감결甘結에,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에 진상進上) 천의소감 언서諺書 번역시翻譯時에 정서차正書次 의궁義宮에 송규빈宋奎斌 등을 대령시키라"는 기록과, 동년同年 12월 1일의 『언서번역정서책諺書翻譯正書冊』, 4일의 "언서책제 목諺書冊題目 서사시書寫時", 5일의 『천의소감언책關義昭鑑諺冊』 영이진상승已進上" 등의 기록으로 보아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에 진상進上한 책은 간인本刊印本이 아니라 정서本正書本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행刊行은 1755년이 아니라 [奎5437] 본本の 끝에 있는 『병자윤구월일황해감영개간丙子閏九月日黃海監營開刊』이라는 기록과 같이 1756년에 처음 간행되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본서本書의 언해 목적은 앞의 『찬수청의궤纂修廳儀軌』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대왕대비大王大妃를 비롯한 궁내宮內的 여인女人들에게 ≪『천의소감』≫의 내용을 읽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겠다. ≪『천의소감』≫과의 차이는 수서차비手書筭批 범례凡例가 ≪『천의소감』≫에 있으나 본서에는 없는 것뿐이며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 내용에 대하여는 ≪『천의소일關義昭鑑』≫ [奎1177, 1545]의 해제 참조, p.144]. 규장각奎章閣에는 [奎1118], [奎3233], [奎5437]본本 등의 판本板本이 다른 3종이 있는데, 그것들의 선후관계는 잘 알 수 없다. [奎3233]본本은 {권4(제4책)만 남은 영본零本이다. 본서本書는 18세기 국어를 연구하는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英祖(朝鮮) 命撰『천의소감언해』, 英祖31年(175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2214-v.1-4

영조 대에 이루어진 『천의소감언해關義昭鑑諺解』의 편찬 경위를 살펴 보면 한글 필사본의 언해나 필사가 대체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윤곽을 짐작할 수 있다. 옥영정에 따르면 『천의소감찬수청의궤關義昭鑑纂修廳儀軌』등에 의거할 때 아래와 같이 출초出草, 정서正書, 장황裝潢, 책 제목 서사書寫, 진상進上의 과정이 비교적 소상히 드러난다.

한문본 『천의소감』의 간행이 한창 진행 중이었지만 언해서 편찬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영조31년(1755) 11월 7일에 언해 번역서를 만들면 『감란록戡亂錄』보다는 나올 것이라는 임금의 뜻에 따라 언해서의 편찬에 대한 명命이 있었으며 이후로 번역이 시작되었고, 출초出草, 정서正書를 위한 물품의 조달과 대왕대비전에 진상할 천의소감 언서諺書 번역 시에 정서를 위하여 4인을 대령시키라는 기록, 장황을 위한 재료의 취용 내용, 천의소감언해서를 장황하는 데 들어가는 언해서 4권의 표지, 면지, 후배지 등의 재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한글 글씨를 쓴 4인은 어의궁於義宮 담당 송규빈宋奎斌 형제, 제용감濟用監 서원書員 이유담李惟聃, 옥당玉堂 서사書寫 유세관柳世寬 등이 있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의 필사本筆寫本 『천의소감언해』가 현재 이 기록에 가장 가까운 유물로 보여진다.

위에 따르면 언해와 필사는 별도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필사는 여러 곳의 서원書員이나 서사書寫가 동원된 것이 확인된다. 아울러 『천의소감언해』 필사본은 대왕대비전에 올린 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한글 필사본은 대비전에 진상할 목적으로 한문본 편찬과 동시에 언해가 진행된 것도 알 수 있다.

황문환, 「장서각 소장 왕실 한글 필사본의 가치」,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년, 312~313쪽

古고 文문 眞眞 寶寶 卷권 之지 一일

眞眞 宗宗 宗宗 皇皇 帝帝 勸勸 學學 序序 文文 文文

부가 불용 미 낭 년 집을 가음 열 게 흥 매 배 곱

富家 不用 買買 良良 田田 丘丘 畝畝 耨耨 耨耨 耨耨

셔 등 스 유 천 종 속 클 가 온 대 스 스 로 천 종 곡

書中 自有 千千 鍾鍾 粟粟 석이 잇 느 이 라

안 거 불 용 가 고 당 살 기 를 편 안 히 흥 러 흥 매

安 居 不 用 架 高 堂 배 곱 늙 흥 당 을 짓 디 말 라

서 기 이 천 이 십 이 년 무 간 박 재 감 임 서



학문을 권하는 글 勸學文 진종황제 眞宗皇帝
 富家不用買良田하라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좋은 밭 사려 말라,
 書中自有千鍾粟이라네 책 속에 본래부터 천 종의 곡식이 있다네.
 安居不用架高堂하라 편히 기거하려고 높은 집 지으려 말라,

송나라 황견黃堅이 편찬한 「상설고문진보대전詳說古文眞寶大全」을 조선 후기에 한글로 번역한 언해서諺解書이다. 이 책은 본래 전집 12권, 후집 10권, 모두 22권으로 되어 있으나 본 장서각본 「고문진보언해」는 전집권 1~5·7과 후집 권6·7만이 현전한다. 번역한 연대와 번역자는 알 수는 없다. 「고문진보」는 옛글의 참된 보배라는 뜻으로, 중국의 고전 작품 중 훌륭한 작품을 가려 뽑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문인들의 시문詩文을 수련하기 위한 교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내용은 주나라 전국시대 굴원屈原의 초사楚辭로부터, 진나라·한나라, 그리고 육조시대 및 당나라·송나라 등 역대의 유명한 시문을 망라하여 수록하였다. 본 장서각 소장본은 그 한글 표기나 영빈이씨曁嬪李氏(1696~1764)의 장서인藏書印을 보아 영조 연간(1694~1762)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문진보」를 모두 언해한 것은 아니고 발췌하여 언해한 것이다. 상하 2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단에는 한자음을 한글로 먼저 쓰고 그 왼쪽에 한문 원문을 실고 있고, 하단에는 상단의 한문을 언해 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52~253쪽

원본 크기 : 30.3x23.5cm

작품 크기 : 31.5x24.5cm

자료 출처 : 『천의소감언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년, 0003쪽

17. 임신예지법臨産豫知法, 18세기

에략략히 못치와벳자오시되오리마오시며 일
 후세육하오실제도미양제담즙을조곰식넛조
 오쇼셔
 보호법
 물은요익귀귀실치못하오니의복과담즙기를듯
 거이마오셔썸이나오시지아니케하오시고빅
 일후에던귀화관하교브람업소오날에조로히
 빗츨뵈오시며
 일향안기압고눕조오시지아니하오시면근골이
 실치못하기힘소오니맛당이조로눕조오시게
 하오시며
 조로을으셔야티독이훗터지오니을으시는썸를
 썸와젼을누오지마오시게하오시며
 무른썸야하음고침슈하오실썸에폴을베지마오
 시게하오시고콩으로벼기를민드라벼오시게
 하오시고점하여좌우에눗조오시고의금덥좁
 기도두부와면부를드러누오시게하오시며일
 향반드시눕조오시지마오시며썸썸로도로히
 눕조오시게하오시며
 턴귀침조을썸에의복을반드시칠팔십세노인의
 님던오스르고쳐의숨을짓조오면진귀서로조
 양하여반드시상슈를엮조오시고식소음부치
 로써너모드스하오시게마오시며
 두부논서늘케하오시며가슴도서늘케하오시며
 비부논답게하오시며썸부도답게하오시며비
 위도상상드스케하오시며
 세육을조로마오시며조서온스람과교이흐거조
 로보시게마오쇼셔

서기이천이십년봄무간박재갑임



원본 크기 : 26.5x10.2cmx첩
 작품 크기 : 34.0x240.0cm
 임신예지법 Limsanyejibeob (Manual for Pregnant Women)
 박재갑 Park, Jae-Gahb
 작품 크기 : 34x240cm
 자료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MF35-004657)
 전시 : 『함께 쓰고 함께 그리다 -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0. 10. 8.~11. 12.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의 결락된 뒷 부분의 내용 한글 낱
 자는 국민대학교 부설 사회문화디자인연구소에서 복원하고 모본을 만
 들어주어 임모하였다.

임신한 여인이 출산 전후에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자료이다. 소
 장처, 지질, 서체, 본문 중의 높임법 등을 감안할 때 이 문서의 독자는
 왕실여성이 분명하다. 수록 내용은 임신예지법臨産豫知法, 해만후근
 신제방解後謹諸方, 해태독법解胎毒法, 단제법斷臍法, 진유법進
 乳法, 세욕법洗浴法, 보호법保護法이다. 출산에 앞서 미리 알아야 할
 여러 사항을 비롯해 해산 후 몸가짐, 태독 제거법, 땀줄 자르는 법, 수
 유법, 목욕법, 갓난아이를 보호하는 방법 등 출산 전후의 단계별 지침
 이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다. 본 자료의 문서명으로 붙여진 ‘임산예지
 법’은 첫 번째 수록 내용의 제목인 셈이다. 왕실의 출산은 국가의 명운
 을 짊어질 왕위계승자를 생산하는 의식이므로 왕실 여성의 삶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본 문서는 조선왕실의 출산 지침을 알려주는 유
 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절금귀기호시며

유즙이 처음 오이신씨의 비록 긴이 알프 오시나 참
 조음시 고손으로 서서 이쥬무르 오셔 유즙을 유
 하호 오시게 하와 응체결 회호 오실 환이 업게 하
 오쇼셔

히티독법

아기시 탄강 호 오신 후 쇼리 나 오기를 기다리지 마
 오시고 외신 부네 급히 보드른 온 연 쥬로 울 혼 손
 데이지에 감아 황련 감 초탕에 증가 구증을 두로
 뱃조 오시고 손가락에 살쥬사를 못쳐 구증에
 두로 발나 숨키 오시게 하 오시고 즉시 젖은
 오시지 마 오시고 살쥬사를 다 숨키 오시기를 기
 드려 호도 육을 콩만 치보드른 온 김에 빠와 구증
 에 먹음으 시게 하 오쇼셔

단체법

티를을 비품브터 두치 남죽이며 무르 오시고 실노
 단단이 미온 후에 숨가근 조 오시고 일절 잡아 달
 로이게 마 오시고 즉시 히트 소음으로 덩저와 숨가
 풍한을 피하 오쇼셔

진유법

젖을 누 오실 씨 미양 뱃브 리 온 후 누 오시고 밤
 조저을 쇠호 미양 뱃브 리 온 후 누 오시고 비루
 조로는 누 오시나 미양 부족히 누 오시고 호
 번에 파히 누 오시게 마 오시며
 유모잠 자울 씨는 젖을 아스시며

울음으 시는 소리 굶치지 아니 하 오신 씨는 문득 젖을
 누 오시지 마 오쇼셔

세유법

히만 호 오신 후 데삼 일 에 세유 호 오신 탕슈를 약한
 이당 일 에 맛당이 전입 호 을 거시오니 다만 슈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82~83쪽

임산에지법臨産豫知法

출산이 임박하여 사소한 증세를 가지가지 의녀에게 하교하시어 때에 맞추어 거행하도록 하시며, 출산할 때 산실의 방 안과 방 밖의 시끄러운 소리와 급한 걸음걸이를 못 하게 하고, 마땅히 문과 창문을 굳게 닫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시며, 산실의 방 안에 병풍과 장막을 치되 다만 풍한을 피할 뿐 여러 겹을 두르지 않도록 하고, 공기가 막히고 답답해져서 더운 기운이 치받지 말도록 하시며, 옷가지의 온량을 반드시 적중하도록 하여 너무 덥거나 너무 서늘하게 하지 마시며, 출산이 임박하여 나이가 많고 유식하고 순근한 부녀자 서 너 명을 가려 좌우에 두고 모시도록 하고, 나이 어리고 성질이 경박하고 급한 사람과, 단지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일절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시며, 출산이 임박하여 매우 더운 날을 만나면 당연히 깊고 조용한 집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거처하시고, 창문을 열어두며 맑은 물을 많이 담아놓아 열기를 막게 하시며, 복통이 비록 긴급하지만 가볍게 행동하지 마시며, 힘주는 것을 일찍 하지 마시어 기다리시고, 자연스럽게 힘주시게 되면 더 주의하여 힘을 주시며, 의도적으로 평안히 마음을 느그럽게 하고 두려워하지 마시며, 복통이 비록 심하더라도 사람을 붙드시고 천천히 견도록 하고, 만일 피곤할 때는 사람에게 의지하여 서시고 조금 쉰 후에 즉시 붙들고 행보하시며, 자주 허리를 구부리거나 안거나 눕거나 잠들지 마시고, 복통이 없을 때는 앉고 눕는 일을 임의로 하면서 자주 미역국에 흰쌀밥을 말아 드시며, 만일 가슴이 답답하거나 흰 꿀 한두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고, 복통이 매우 긴박할 때는 미역국에 흰

사람의게 의지하여서 시고 저기 위 오신 후 즉시
 부를 녀 힘보시오시며
 가이허리를 구루리 오시거나 안저 오시거나 눕지
 오시거나 침수하시지 마오시며
 복통이 안이겨 오실 때에는 좌와를 임의 통을 오시
 고 주로 광탕의 빈슈라를 화하여 누오시며
 만일 심중이 케민항 오시거든 빈청호두살을 드는 사
 할 물에 드 진항 오시며
 복통이 비록 긴 항 오신 체나 광탕에 빈슈라를 화하
 여 목이 답게 항 여 강 면 항 여 주로 누오셔 원거
 를 돕조 오시게 항 오시며
 당월에는 구든 슈라와 차진 병식과 무른 병식과 무
 른 포육과 무른 어물과 유니 항 온 것 과 지 짐 항 온
 소화키어려 온 거슨 누오시지 마오시며
 허만 아니 항 오신 전은 비록 번갈 항 오실 지라도 물
 을 누오시지 마오시 고 가이 청미음으로 다음
 을 디신 항 여 누오시게 항 오쇼셔
 허만 후 근신 제 방
 허만 항 오신 후 즉시 평안이 눕조 오시고 외신 부녀
 로 항 여 품셔셔 히 요부와 각 부 발 피 오시기를 무
 수이 항 오시며
 하얼에는 방 중이 너무 덥게 마오시며 또 혼 사람 이
 만 아 귀운이 혼 증 케 마오시며
 음식을 파포치 마오시고 씨로 킁 반을 누오셔 날
 노점점 더 누오시고 싱링 과 단 단 항 온 것 술 일

쌀밥을 말아 아주 따뜻하게 하여 억지로 자주 드시어 원기元氣를 돕도
 록 하시며, 해산 당월에는 굳은 수라와 차진 떡이나 만두 등과 마른 포
 육과 마른 어물과 기름진 음식과 기름에 지진 것 등 소화하기 어려운
 것은 드시지 마시며 해만 하기 전에는 비록 목이 마르더라도 물을 먹지
 마시고, 자주 청미음으로 물을 대신하여 드시도록 하소서.

해만 후 근신제방解後謹愼諸方 : 해만 하오신 후, 즉시 평안히 누우
 시고 모시고 있는 부녀로 하여금 서서히 허리나 다리 부위를 무수히 밟
 게 하시며, 여름철에는 방 안이 너무 덥게 하지 마시며, 또한 사람들이
 많아 기운이 혼증케 하지 마시며,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지 마시
 고 때때로 국에 말은 밥을 드시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드시고, 날 것이
 나 찬 것이나 단단한 것을 일절 금지하시며, 유즙이 처음 모였을 때 비
 록 매우 아프지만 참으시고, 손으로 서서히 주물러 유즙을 흘러내리도

록 하시어 멍울이 질 걱정이 없도록 하소서.

해태독법解胎毒法 : 아기씨 탄강하신 후 울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모
 시고 있는 부녀가 급히 보드라운 명주를 오른손 둘째손가락에 감아 황
 련감초탕에 담가 입안을 두루 씻으시고, 또 손가락에 꿀에 버무린 주사
 를 문혀 입안에 두루 발라 삼키게 하시고 즉시 젖을 먹이지 마시고 꿀
 주사를 모두 삼키기를 기다린 후 호두살을 콩알만 하게 부드러운 비단
 에 싸서 입안에 머금도록 하소서.

단제법斷臍法 : 탯줄을 배꼽으로부터 두 치 정도 남겨두고 실로 단단
 히 맨 후 조심해서 끊어내고 일절 잡아당기지 마시고 즉시 햇솜으로 덮
 어 삼가 풍한을 피하소서.

진유법進乳法 : 젖을 먹이실 때 매번 짜 버린 후에 먹이시고 밤에 자
 고 나면 젖을 또한 매번 짜 버린 후에 먹이시고, 비록 자주 먹이지지만

림산예지법

시산향오실씨로브러쇼쇼 증후를조조의녀의
게 하교향오셔씨밋쳐거향음게향오시며
시산향오실씨에 산실방중방외에현뇨와급향
거름을못향게향오시고맛당이문호를구지닷
습고요히씨를기드리오시며 산실방중에
병풍과장을다만풍향을회향오시고가이중덥
지아니케향음고음을향여더운과운이중덥케
마오시며의디온량을반드시던중이향오셔너
모독스향며너모셔늘향게마오시며

시산향오실씨에년교향고유시향고순근향부녀
삼소인을갈하여좌우에부드러되시게향음고
년쇼향고성정이경조향사름과다못향경향는
사름은인전출입을알게향오시며

림산향오실씨에성셔를당향오시면맛당이김고
교요한집히빗먼곳에거쳐향오시고참호도여
르시고만이막근을늘담아노은사열과를막게
향오시며

복통이비록긴향오시나경동치마오시며힘주오
시물일즉마오셔기드리시오조연힘주오시거
든가의향여힘을쥬오시며

가의향여평안이무음을너기렵게향오시고공접
지마오시며

복통이비록긴향오시나사름을부드오시고완완
이향보향오시고만일편향오실씨겨오시거든

매번 부족하게 먹이시고 한 번에 지나치게 먹이지 마시며, 유모가 잠
잘 때는 젖을 먹이지 마시고, 울음이 그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젖을 먹
이시지 마소서.

세욕법洗浴法 : 분만하신 후 3일째에 목욕하는데, 탕수를 내의원에서
당일 마땅히 들일 것이니 다만 수건에 약간씩 묻혀 씻으시되 오래 하
지 마시며 이후 목욕하실 때 매번 돼지 쓸개의 즙을 조금씩 넣으소서.

보호법保護法 : 무릇 소아의 살갓이 실하지 못하니 의복과 덮는 것을
두껍게 하지 마시어 땀이 나지 않게 하시고 백일 후에 날씨가 온화하고
바람 없는 날에 자주 햇볕을 쬐도록 하시고, 항상 안아주고 눕히지 않
으면 근골이 튼튼하지 못하기 쉬우니 자주 누이시며, 자주 울어야 태
독이 흠어지는데, 울 때마다 젖을 드시게 하지 마시고 밤낮을 막론하
고 잠잘 때는 팔을 베도록 하지 마시고, 콩으로 만든 베개를 베도록 하

시고 함께 좌우에 누우시고, 옷과 이부자리는 따뜻하게 하지만 머리와
얼굴은 드러나도록 하시고 항상 반듯하게만 누이지 마시고 때때로 옆
드려 눕게 하시며, 추운 날에는 의복을 반드시 철팔삼세 노인이 입던
옷을 고쳐 아이 옷을 만들면 진기가 서로 길러주어 반드시 장수하시고,
새 솜을 사용하여 옷을 너무 덥게 하지 마시며, 머리는 서늘하게 하시
며 가슴도 서늘하게 하시며 등은 따뜻하게 하시며 다리도 따뜻하게 하
시며 배 부위도 항상 따뜻하게 하소서. 목욕을 자주 하지 마시며 낯선
사람과 괴이한 행동을 보지 말도록 하소서.

김호, 국역, 개인 교신, 2023. 3. 13.

언서첩

공손히 생각하논디이 두렵이긴인즉

소조 어필이시오곤인즉

녹성 언찰이시라 후도위를

명하여주오심이오 후공주를

은혜로 못조오심이니 이르히

속묘 어제하오음신시놀과

영고 친찬하오음신발문고툼은더유이

총으로주오심이라가 장한구본이크며 적음이가지지아니하여편안히

외시올도리에편치못한배잇는고로이제고 처장하며함하여부쳐두

친을민필아

언서첩갓히공경히

인현왕후 친히림필오음신비단으로부친션남쌈물을부쳐하여곰길히

티로전홍을깃노니이거시에즈손이되야는다 힘홍이오인신익이

심안영해라가히후공으로하여곰셔실과곰계의감초고호위하여장

춧배턴디와더블며

국가와한가지로그오림을크치할거시니엇디감히심상함중보로만배

의논항리오

당적이년입술중추의

외에신진석황공경지

이천이십이년무간박재갑임서



언서첩

공손히 생각하는데 이 두 첩이 건인즉 사조 어필이시고 곤인즉 육성 언찰이시다. 혹은 도위에게 명하여 주신 것이고 혹은 공주에게 은혜로 물으신 것이니 숙종께서 어제하신 시율과 영조께서 친히 찬하신 발문 등에 이르러서 더욱이 은총으로 주심이다. 가장한 구분이 크고 적음이 가지런하지 아니하여 편안히 모실 도리에 편치 못한 바 있는 고로 이제 다시 장정하며 합하여 붙여 두 권을 만들어 언서첩 끝에 공경히 인현왕후께서 친히 만드신 비단으로 붙인 선낭 쌍 몸을 붙여서 길이 대대로 전함을 짓노니 이것이 이에 자손이 되어서는 다행인 것이고 인신으로 있어서는 영화이다. 가히 후손으로 하여금 석실과 금궤에 감추고 호위하여 장차 천지와 더불어 국가와 한가지로 그 오램을 같이 할 것이니 어찌 감히 예사로운 중보로만 여겨 의논하리오.

당저 이년 임술 중추에 외손이며 신하인 진석이 황공하옵게도 받들어 적는다.

인간 취지

이 '언서첩'은 신한첩宸翰帖 곤坤의 첫 장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정진석鄭晉錫이 편지를 장정裝幀하면서 직접 써넣은 것이다. '언서첩'에는 장정의 경위, 목적, 방법, 시기 등이 실려 있다. 한편, 책의 표제와 달리 '언서첩'이라 쓴 것은 왕이나 왕비, 공주 등이 쓴 한글 편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언서첩'의 앞 부분을 보면, 당시 이 책이 '건乾'과 '곤坤'으로 나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스'조, 즉 효종, 현종, 숙종, 영조 4대의 편지가 '건乾'이고 '늑성', 즉 효종, 현종, 숙종, 인선왕후, 명성왕후, 인현왕후의 편지가 '곤坤'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계명대학교 소장본 신한첩宸翰帖 곤坤은 이 곤坤에 해당한다. 물론 이 책에는 '늑성' 외에 장렬왕후의 편지도 있다. 한편 '건乾'과 '곤坤'을 각각 '어필'과 '언찰'로 달리 명칭하였는데 김일근, 이종덕(2000)에 따르면 '건乾'은 한문으로 작성된 편지로 추정된다, '언서첩'의 말미에 있는 “당저이년임술중추 외예신진석황공경지 堂寧二年壬戌仲秋 外裔臣晉錫惶恐敬識”를 통해 간행자(정제현의 5대손인 정진석鄭晉錫, 1779~?)와 간행 시기(1802년, 순조 2년(壬戌) 중추仲秋)를 알 수 있다. 장요한, 『宸翰帖 坤의 연구 및 역주』, 계명대학교 출판부, 대구, 2019년, 44~48쪽

원본 크기 : 24.9x9.9cmx첩

작품 크기 : 39.0x31.0cm

자료 출처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21쪽

자료 제공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벽고고문헌실, 2022. 10. 5.

19. 유빈박씨애책문 綏嬪朴氏哀冊文, 1823년

유빈 박씨 애책문
 유.세.초.입.오.십.이.원.신.특.사
 이.십.육.일.병.인.
 현.목.유.빈.졸.셔.우.창.덕.궁.지.보
 경.당.이.빈.우.환.경.전.이.계.미
 이.월.신.특.사.이.십.칠.일.경.묘.
 장.평.봉.우.양.주.비.봉.산.지.원.
 례.야.화.당.계.도.도.은.숙.인.회
 준.괴.렬.신.위.당.진.위.자.달
 이.셔.인.디.현.실.이.점.천.유
 아.
 유.상.전.하.반.호.미.테.최.모.미.신.
 동.초.일.지.종.년.범.후.야.지.막
 신.원.평.요.대.이.괴.터.비.편
 보.첩.이.공.진.기.소.알.반.남.령
 셔.세.습.규.조.빈.출.명.셔.화.혁
 문.호.
 녕.고.지.유.저.위.구.결.광.구.달.원.
 우.피.현.벌.
 빈.어.시.시.광.응.간.탁.리.징.티.폐.
 슈.려.광.셔.성.도.연.의.신
 금.란.옥.삼.도
 전
 궁.유.피.용.연.셔.신.녀.측.솔.힝.구
 건.심.하.련.전.양.찬.곤.화.
 종.시.일.덕.령.문.원.파.티.셔
 지.술.무.강.방.녹.경.일.구.우.
 공.존
 종.셔.우.티.익.겸.쇼.심.의.익.엄.조
 년.봉.통.전.쥬.곡.귀.시.옥.난.
 상.원.기.속.연.유.역.정.보.호
 성.궁.질.양.음.식.한.셔.우.풍.조
 초.불.이.일.넙.동.동.운.회.천.일.
 요.등.스.등.회.심.료.술.환.곤
 연.경.훈.셔.이.유.오.조.만.경.
 효.심.소.쥬.지.물.비.양.일.국.룡
 봉.녹.궁.모.양.무.망.일.질.사.쥬
 현.첨.호.셔.륙.지.강.쥬.근.오.쥬
 이.유.삼.강.명.막.기.약.자.경.난
 쥬.어.덕.음.오.호.의.지.일
 인.비.구.천.관.쳐.창.세.약.홀.환
 즉.권.이.장.복.마.셔.어.삼.일.준
 고.성.지.경.계.료.죽.척.어.천.지.
 절.일.혜.이.위.시.듀.유.혜.향.현.
 경.업.혜.진.위.풍.령.동.이.쇼.술.
 야.티.막.이.쳐.비.첨.보.삼.지.위
 이.거.부.거.혜.무.귀.방.요.지.혜.
 옥.마.향.첨.은.저.혜.금.학.비.리
 평.성.지.련.고.비.척.시.지.첨.의.
 오.호.이.지.로.출.청.문.가.성.신
 득.청.오.고.길.현.키.협.복.신.산
 명.이.슈.려.발.지.비.여.련.작.빅
 령.가.급.용.빅.총.울.셔.테.빅
 지.타.안.면.경.녹.어.파.달.오
 호.이.지.현.이.무.쥬.난.침.자.련.
 원.유.시.죽.유.쥬.자.고.셔.이.이
 연.유.의.덕.지.저.인.지.동.관
 이.불.후.의.방.넙.지.천.양.년
 빅.셔.이.영.구.오.호.의.지.
 서.기.이.천.이.십.이.년
 무.간.박.재.갑.임.서

원본 크기 : 19.0x15.9cm
 작품 크기 : 23.0x155.0cm
 자료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30~231쪽

1823년 2월 27일에 유빈박씨 綏嬪朴氏, 1770~1822를 양주 배봉산에 안장하며 지은 애책문을 한글로 옮겨 적은 것이다. 유빈박씨는 정조의 후궁이며 순조의 생모로, 1822년 12월 26일 창덕궁 보경당에서 세상을 떠났다. 애책문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남공철 南公轍, 1760~1840이 지었다. 애책문은 발인 전에 거행하는 견전 遣奠때 읽는다. 왕실의 여성이 주관하는 예식에는 남성이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한문을 알지 못하는 여관 女官을 위해 한문본을 한글로 옮겨 적은 것이다. 붉은 먹으로 칸을 그리고 반듯한 정자체로 한글을 적었다. 또한 의미 구분을 위해 끊어 읽어야 하는 위치에 붉은 먹으로 표점을 찍었다. 유빈박씨 명칭

에 대해 그동안 ‘綏’의 음을 ‘수’로 읽기도 하고 ‘유’로 읽기도 하였다. 그런데 한자의 독음을 옮긴 이 자료에서 ‘수綏’를 ‘유’로 표기하고 있어 명칭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글은 유빈박씨의 깊고도 아름다운 성품을 칭송하며, 세상을 떠났지만 아름다운 덕은 영원히 사람들에게 남아 전할 것이라는 위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공철 찬, 1823년(순조23), 1첩, 필사본, 19.0x15.9cm, 2-301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 230~231쪽

대전중궁전상존호시왕세조조너
 천상책보진치사전문표리행례의
 전일일상침술기속설 연덕현도경인
 순희년하죄어조경년북벽근동남향설
 보안어 좌동진 책보안치지설쇼츠
 어 락지동설 명경왕비좌어 락북
 벽근셔남향설 보안어 좌셔진 책
 보안치지설쇼츠어 락지셔설향안이
 어 락외좌우설 왕세조조너 전문
 레를안어동계상우설 왕세조조너
 안어셔계상장악원전현현어조경문의
 덩등가지악어조경문의계상설녀집스
 거휘위어조경문의근셔동향기일승문
 원관비치스함례조정남벽 전문함례
 용감관비례물함례장고취전도지만팔
 문청상전이입각치우안녀집스진의장
 어조경문의함례외계상동셔여상년찬
 설 왕세조조너비위어 락영외근동북향
 향우설 왕세조조너편츠어보경문의외
 왕세조조너편츠어보경문의스찬녀비위
 어 락너년연년찬져남차퇴찬창녀집스

임인년무간박재갑임서

원본 크기 : 25.3x12.5cmx첩

작품 크기 : 32.5x48.0cm

자료 제공 : 禮曹(朝鮮) 編, 『대전중궁전상존호시왕세자자내친상책보진치사전문표리행례홀기』, 奎27613, M/F82-16-61-F,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

순조純祖와 순조비純祖妃에게 존호尊號를 올릴 때 왕세자王世子와 왕세자빈王世子嬪이 책보冊寶와 치사전문致詞箋文을 올리는 의례儀禮의 절차와 내용을 정리한 홀기笏記. 모두 한글로 작성되어 있다. 서명의 한자표기는 『대전중궁전상존호시왕세자자내친상책보진치사전문표리행례홀기大殿中宮殿上尊號時王世子自內親上冊寶進致詞箋文表裏行禮笏記』이다. 순조를 “연덕현도경인순희전하”, 순조비를 “명경왕비”로 각각 호칭하고 있다. 『대전중궁전상존호시왕조조너진작행례홀기』 <奎 27612>와 함께 작성된 것이다. (윤경진)

禮曹(朝鮮) 編, 『대전중궁전상존호시왕세자자내친상책보진치사전문표리행례홀기』, 奎27613, M/F82-16-61-F,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

뒤요선국뒤군주국서
뒤요선국뒤군주
뒤미국리니시턴덕게글원일일니업
이슈이두나라이도약을백구고화의
가도라우미전관디신민녕의과부
뒤신홍영영시글음차후여
귀국의보너서폐빅감논네을단과노
니이덕신들이공번되며중성허
며주밀응며자서후여능히너의
속마음은모모바더고달힐러이며
범사의변리허미적당허리니다
힘히브라노니정성은미루어서
루미더서덕옥회목게후며한가지
티평은누리게후시은님싱각허건
뒤또한
귀빈니시턴덕도기거허실비리이로소
이다
기국스빅구십이년는각원리십이이로
계묘년무간백재감임서



작품 크기 : 34.0x40.0cm. 한지에 먹. 2023년 2월

자료 출처 : 국립고궁박물관, 『갓쓰고 미국米國에 공사公使 갓든 이야기』,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022년, 20쪽

1853년, 조선이 처음 미국과 마주했을 때, 미국은 미지의 나라였다. 1871년, 신미양요辛未洋擾 이후 미국은 조선을 강제로 개항하려 한 무지한 오랑캐, 즉 양미洋夷가 되었다. 1882년 조선은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다각적 외교 관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양 국가와는 최초로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이하 조미조약)을 체결했다. 조약 체결 이후 1883년 미국으로 파견된 보빙사報聘使는 미국의 발전된 도시와 기술을 경험했다. 당시 보빙사 대표였던 민영익이 미국을 ‘광명 세계’라 칭할 만큼, 미국은 ‘오랑캐 나라’에서 ‘배워야 할 나라’로 탈바꿈했다.

1883년(고종20) 7월 민영익閔泳翊(1860~1914년), 홍영식洪英植(1855~1884년), 서광범徐光範(1859~1897년) 등 11명의 보빙사報聘使 일행은 조선 최초로 미국을 견문했다. 보빙사는 미국 제21대 대통령 아서(Chester Alan Arthur, 재임 1881~1885년)를 직접 만나 국서國書를 전달했다. 국서에 ‘대조선국大朝鮮國’임을 밝히고 조선 개국 연호를 사용했다. 보빙사 일행은 보스턴 산업 시설을 시찰한 후, 여러 나라를 거쳐 인천항에 귀국하기까지 총 11개월간 세계 일주를 했다. 이때 경험한 선진 물물은 조선 정부에 상세히 보고했다. 이들이 습득한 근대 문물과 지식은 이후 국내 개화 정책 추진의 밑거름이 되었다. 보빙사 일행은 1883년 7월 미국 해군함정을 타고 인천을 떠나 일본에 도착했고, 나가사키와 요코하마를 거쳐 다시 여객선을 탄 뒤 태평양을 건너 9월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항에 도착했다. 이어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시카고와 워싱턴D.C.를 거쳐 9월 18일 뉴욕의 피프스 애비뉴(fifth Avenue)호텔에 머물던 아서 대통령을 만나 고종의 국서를 전달했다.

1883년 9월 18일 보빙사 일행은 아서 대통령에게 대조선국대군주국서大朝鮮國大君主國書, 국서제정사國書提呈辭와 대조선국대군주회답大朝鮮國大君主回答을 전달했다. 뉴욕헤럴드는 이 중 대조선국대군주국서와 국서제정사의 한글 번역문과 영문 번역문을 함께 실었고, 기사를 통해 조선이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보빙사 방문에 대한 당시 미국 언론의 관심을 살펴볼 수 있는 기사이다.

국립고궁박물관, 『갓쓰고 미국米國에 공사公使 갔든 이익이』,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022년, 12~21쪽

이「한글 국서」는 한문으로 된 국서를 번역하여 미국신문에 전문이 게재되었다. 한글문서가 미국신문에 소개되기는 처음이다. 원문은 구철자 순한글로 되어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를 병기했다.

대조선국군주大朝鮮國大君主께서 아서大美國伯理璽天德, 대통령께 글월을 올립니다. 이 두 나라가 조약條約을 맺어 화의和誼가 두터워지며 전권대신全權大臣 민영익閔泳翊과 부대신副大臣 홍영식洪英植을 흠차欽差하여 귀국貴國의 보니서 폐帑幣帛 갚는 네禮을 닥 기노니 이 대신大臣들이 공번公反되며 충성忠誠하며 주밀周密하며 자서仔細하며 능히 능히 니의 속마음을 몸바더 고달告達할 터이며 범사凡事의 변리辨理허미 적당適當허리니 다행多幸히 바라노니 정성精誠을 미루어 서루 미더서 더욱 화목和睦케 하며 한가지 터평泰平을 누리게 하시옵 생각허건디 또한 귀빅니시턴덕貴伯理璽天德도 깃거허실비리이로 소이다

개국 사백구십이년 유월 십이일開國 四百九十二年 六月 十二日(New York Herald, September 19, 1883 ; 《舊韓國外交文書》 권 10, 21쪽).

현대어 역:

대조선국 대군주는

대미국 백리새천덕伯理璽天德에게 글월을 올립니다.

요사이 두 나라가 조약을 바꾸고 화의가 도타움에 전권대신 민영익과 부대신 홍영식을 흠차하여 귀국에 보내서 폐백 갚는 예를 닦게 하니 이 대신들이 공번 되며 충성하며 주밀하며 자서 하여 능히 니의 속마음을 몸받아 고달할 터이며 범사에 변리함이 적당하리니 다행히 바라노니 정성을 미루어 서로 믿어서 더욱 화목케 하며 한가지로 태평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생각하건대 또한 귀 백리새천덕도 기뻐하실 바 이로소이다.

개국 492년 6월 12일

이현주 책임연구원 국역,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연구실

조선국왕의 國書

His following is a translation of the credentials of the Ambassadors from the King of Corea to President Arthur, given in fac-simile above:

His Majesty the King of Tah Chosun To His Excellency Chester A. Arthu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The ratifications of the treaty concluded between our countries having now been exchanged and friendly relations established, I now send to the United States [page 11] of America as Minister Plenipotentiary and envoy extraordinary, Min Yong Ik, and as vice minister, Hong Yong Sik, in order to convey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 of my gratification. Being in my confidence and instructed so fully to express my ideas, they will no doubt satisfactorily perform their duties, and I hope that full faith and credence will be given to them, in order that the friendship of our countries may be increased and that perfect harmony may be attained.

I have no doubt that your excellency will fully share my views. Done under my own hand and seal in the four hundred and ninety second year of My House, sixth moon, eleventh day (14 july, 1883).

(seal) THE KING OF TAH CHOSUN.
By order
(seal) MIN YONG MOK,
President of the Foreign Office

국서제정사

스신민녕의홍영시그등은낮으로
디아미리가함주국

디빈니시현덕게알외은바이다스신등이
디표선국

디군주흠음을받츠와와서디신으로
디빈니시현덕게서와밋함주국모든인

민이한가지로안녕형은두리시기를
형은오며쇼는두나라인민이서로사귀고
조외현우의에회실현는스고우여
피차돈밀홍을신은각외신상으로
서루직힘을정은여기리무구원복
이되기를바라나다바슬러은바

국서두봉의하나단우리

디군주게은디서

디빈니시현덕게회담허심이은나는신
의전권빙거오니삼가맛침을알외
은바이다

계묘년무간박재갑임서



작품 크기 : 34.0x40.0cm, 한지에 먹, 2023년 2월
자료 출처 : 국립고궁박물관, 『갓쓰고 미국米國에 공사公使 갓든 이야기』,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022년, 20쪽

민영익은 국서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은 제정사提呈辭를 했다.

스신使臣 민영익閔泳翊 홍영식洪英植 등등은 낮으로 대아미리가합중국大亞美理駕合衆國 디빅니시천덕대伯理璽天德께 알외옵는이다 스신等使臣等이 디도선국大朝鮮國 디군주大君主 흥명欽命을 받자와 와서 디신代身으로 디빅니시천덕게서와 및 합중국 모든 인민人民이 한가지로 안녕安寧함을 누리시기를 청請호오며 또는 두 나라 인민이 서로 사귀고 조와하는 우의友誼에 확실한 뜻을 고히여 피차 돈밀敦密을 칭각허와 실상實狀으로 서로 지킴을 정定호여 길이 무궁無窮한 복福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받드러온 바 국서國書 두 봉封의 하나는 우리 대군주게옵서 디빅니시천덕께 회답回答허심시오나는 스신의 전 권빙거全權憑據오니 삼가 받침을 알외옵는이다 New York Herald, September 19, 1883.

현대어 역:

사신使臣 민영익閔泳翊 홍영식洪英植 등등은 낮으로 대아미리가합중국大亞美理駕合衆國 대백리새천덕대伯理璽天德께 아뢰입니다. 사신等使臣等이 대조선국大朝鮮國 대군주大君主 흥명欽命을 받자와 와서 대신代身으로 대백리새천덕게서와 및 합중국 모든 인민人民이 한가지로 안녕安寧함을 누리시기를 청請하며 또는 두 나라 인민이 서로 사귀고 좋아하는 우의友誼에 확실한 뜻을 고히여 피차 돈밀敦密함을 생각하여 실상實狀으로 서로 지킴을 정定하여 길이 무궁無窮한 복福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받들어온바 국서國書 두 봉封의 하나는 우리 대군주께서 대백리새천덕께 회답回答하심이고, (다른) 하나는 사신의 전 권빙거全權憑據이오니 삼가 받침을 아뢰옵나이다. New York Herald, September 19, 1883.

이현주 책임연구원 국역,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연구실

사절단의 提呈辭

Following is the text of the address delivered by the ambassadors on the part of the King to the President:

To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We, Min Yong Ik and Hong Yong Sik, are present in person to address Your Excellenc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gether we have come to Your Excellency as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ah Chosun. We desire to convey to Your Excellency from our hearts our sincere wishes for the health and welfare of Your Excellency and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The people of our countries having entered into friendly intercourse with each other and having both on our side and yours bound themselves mutually to continue these happy relations, we pray that the people of both our lands may live forever without change in peace and happiness. We beg to offer to Your Excellency two official papers from our government. The first is a reply to Your Excellency from His Majesty the King of Tah Chosun. The second is our letter of credentials, which we herewith ask leave to present.

24. 명성황후상존호옥책문 明成皇后加上尊號玉冊文, 1890년

명성황후상도호옥책문
 유세조경인이월신미삭
 십일일신사세조신휘성
 환성변계슈계슈근
 상언복이황상존축오지위
 쇼도현광옥력영
 스순지주지검양요지현경
 삭지순비이공유
 효조원성왕비던하
 덕관후비
 공참조화
 독성시례명벌의리너기가
 전조괴풍화본원효경시
 위세법
 봉유용어
 책보가상
 존호왈
 텅화희취근원지시상즉기텅
 야이방츄겨인도지극공
 대이화지위
 성복유
 쇼슈순가
 비응현칭금너간편요일성
 이유구
 은황옥산제히악이승심신
 휘성환성변계슈계슈
 상언
 임인무간박재갑임서

원본 크기 : 26.9x15.9cm

작품 크기 : 31.0x80.0cm

자료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24~225쪽

[정의]

1890년(고종27) 2월에 고종비高宗妃에게 존호 올리는 책문을 한글로 필사한 것.

1890년(고종27) 2월 11일 고종비高宗妃의 보령寶齡이 망오望五인 41세되는 것을 기념하여 왕세자의 주청으로 가상존호도감에서 존호를 올렸다. 제술관 및 서술관은 “옥책문제술관玉冊文製述官 자헌대부지돈녕부사資憲大夫知敦寧府事 흥문관대제학지춘추관지성균관사弘文館大提學知春秋館知成均館事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 신臣 한장식韓章錫”, “서사관書寫官 자헌대부資憲大夫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 신臣 민영소閔泳韶”, “옥보전문서사관玉寶篆文書寫官 보국승록대부輔國崇祿大夫 의정부우의정議政

府右議政 겸영兼領 경연사감춘추관사經筵事監春秋館事 총리내무부
사總理內務府事 신臣 조병세趙秉世” 등이다.

[체재 및 내용]

명성황후明成皇后(1851(철종哲宗 2)~1895(고종高宗 32))는 고종의 비로 흔히 민비라고 불린다. 본관本官은 여흥驪興.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 치록致祿의 딸이다. 여덟살에 고아가 되었으며, 1866년(고종3) 왕비로 간택되어 고종의 비로 입궁하였다. 소녀시절부터 『춘추春秋』를 읽을 정도로 총명했다. 왕후였으나 정치에 간여하여 정적政敵인 흥선대원군을 하야시켰으며 대원군 실각 후 고종을 움직여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는 등 개화시책을 승인하게 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 때 충주에 피신해 있으면서 청나라와 연락하여 대원군을 청나라에 납치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명성황후가 청나라와 가까워지자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은 대원군을 내세워 민비세력을 제거하려하였고 명성황후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대항하였다. 1895년 8월 일본군대의 정치 낭인들이 왕궁을 습격하여 민비를 시해한 뒤 정권을 탈취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이때 정부는 친일 정책을 펴서 폐비시켰다가 10월 10일 복위시켜 태원전泰元殿에 빈전을 설치하고 송릉崇陵 우강에 능호를 송릉肅陵이라 하여 국장을 준비시켰다. 1897년 명성황후로 추책되고 난 뒤 11월 양주 천장산天藏山 아래 국장되어 홍릉洪陵이라 하였다. 1919년 고종이 죽자 2월 미금시 현재의 위치로 이장되었다. 이 책은 1890년(고종27) 명성황후의 보령寶齡이 망오望五인 40세 되는 것을 기념하여 존호를 올린 것으로 이해 2월 11일 세자의 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내용은 효자원성孝慈元聖왕비전하가 덕과 공이 뛰어나고 효경孝敬하여 대왕대비를 잘 받들었으며, 왕비가 된 뒤 보필을 잘하여 나라에 온갖 복이 들게 하였다고 하면서 40세 이후에도 송백松柏갈기를 바라며 ‘정화正化’라는 존호를 올린다고 하였다.

1890년(고종 27)에 고종비高宗妃의 망오望五인 41세를 기념하여 고종高宗, 익종비翼宗妃 신정왕후神貞王后 조씨趙氏, 헌종계비憲宗繼妃 명헌왕후明憲王后 홍씨洪氏, 그리고 고종비高宗妃에 대해 존호가 가상되었으며, 이에 대한 의례의 양상이 『가상존호도감의궤加上尊號都監儀軌』(2-2794)에 기술되어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 책은 『명성황후가상존호옥책문明成皇后加上尊號玉冊文』(2-4045)의 한글본으로 당대 한글 연구에 도움을 준다.[소장현황 및 이본관계]

藏書閣에 유일본이 전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승정원일기』, 民族文化推進會, 2000.

『藏書閣所藏儀軌解題』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2,

『明成皇后加上尊號玉冊文(2-404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8. 13.

25.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 大法國大 伯理就任祝賀國書, 1894년, 왕실고문서 622



원본 크기 : 40.7x51.5cm

작품 크기 : 41.0x51.0cm

자료 출처 : 왕실고문서 622 / 開國 50년(1894년) 10월 11일 / 40.7x51.5cm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프랑스[大法國] 대통령 사디 카르노(Sadi Carnot)가 서거하고 장 카시미르 페리에(Jean Paul Pierre Casimir-Perier)가 즉위하자 고종이 즉위 축하와 더불어 양국 간에 우호를 지속하자는 내용으로 보내기 위해 작성한 국서. 1894년(고종 31) 10월 11일에 작성하였고, 고종의 친필 서명과 『大朝鮮國寶』라고 새긴 국새가 찍혀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2020. 3. 2.

- ①大朝鮮國大君主致復于大法國大總理璽天德朕之良友
- ②前大總理璽天德사로노 不幸崩逝朕聞之不勝驚悼
- ③續聞貴大總理璽天德사사시일 써리에 因議會公舉光登寶位 其在友睦之誼曷勝忻賀
- ④從此益敦前好以盡相與愛好之意堅固不渝悉如來諭誠朕之所大願也 惟貴大總理璽天德鑑諒焉
- ⑤大朝鮮國 開國五百三年 朕御極之三十一一年 十月 十一日 在漢陽 景福宮 親署名鈐寶
- ⑥大君主 李熙 『大朝鮮國寶』
- ⑦奉勅外務大臣 金允植 『外務大臣之印』

- ①대조선국 대군주는 짐의 훌륭한 친구인 대법국大法國(프랑스) 대통령大總理璽天德께 답장을 보냅니다.
- ②전 대통령 카르노(Sadi Carnot)께서 불행하게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짐이 듣고 놀람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 ③이어서 귀 대통령 카시미르 페리에(Jean Casimir-Perier)께서 의회의 추대를 받아 대통령에 취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의와 친목의 입장에서 어찌 기쁨과 축하를 가눌 수 있겠습니까.
- ④이를 계기로 기존의 친선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서로 간의 우호의 뜻을 변함없이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과 같으며, 진실로 짐이 크게 바라는 바입니다. 귀 대통령께서 살펴 헤아려주십시오.
- ⑤대조선국 개국 503년, 짐의 등극 31년(1894) 10월 11일 한양 경복궁에서 친히 서명署名하고 검보鈐寶하다.
- ⑥대군주 이희 『대조선국보』
- ⑦칙령을 받든 이 외무대신 김윤식 『외무대신지인』

한재훈, 원문 입력 및 국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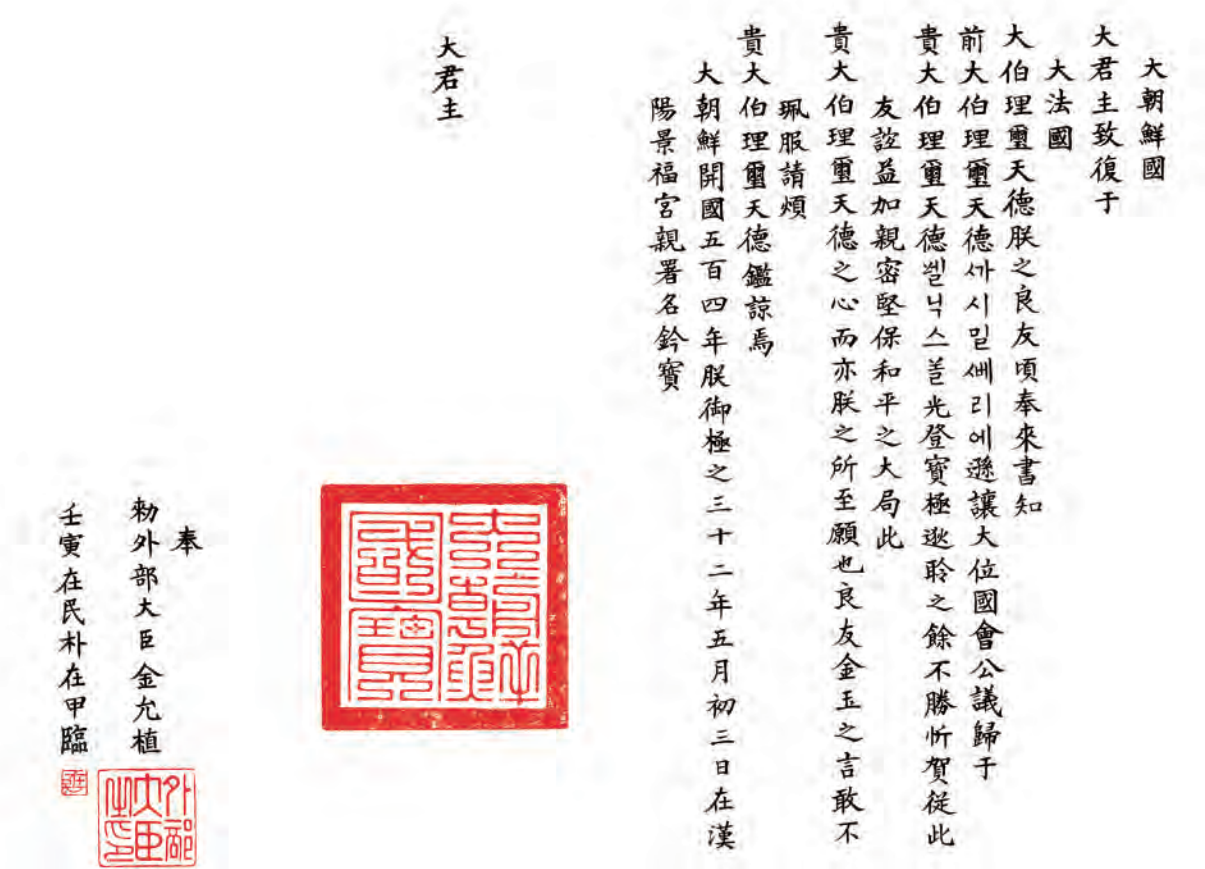
1894년 국서

1894년 10월 11일 고종이 프랑스 대통령의 즉위를 축하하며 양국兩國의 우위를 기원하는 국서의 부분이다. 전 대통령 카르노(Carnot)가 서거하고 이어서 카시미르 페리에(Jean Paul Pierre Casimir-Perier, 재임 1894~1895)가 의회의 추대를 받아 대통령에 오르자 축하한다는 내용이다. 실록을 참조해 보면, 10월 10일 고종이 함화당咸和堂에서

프랑스 공사 콜랭 드 플랑시를 접견하였는데, 이때 프랑스 대통령 즉위 사실을 보고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압御押이 없고 국왕의 성명을 기입하였고, 『대조선국새大朝鮮國璽』가 안보安寶로 되어있다.(장서각 소장)

김건우, 『근대 공문서의 탄생』, 소와당, 서울, 2008년, 114~115쪽

26.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 大法國大 伯理就任祝賀國書, 1895년, 왕실고문서 613



원본 크기 : 40.7x51.5cm

작품 크기 : 41.0x51.0cm

자료 출처 : 왕실고문서613 / 開國 504년(1895년) 5월 3일 / 42x53.5cm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프랑스[大法國] 대통령 장 카시미르 페리에(Jean Casimir-Perier)가 물러나고 펠릭스 포르(Felix Faure)가 즉위하자 고종이 즉위 축하와 더불어 양국 간에 우의가 더욱 친밀해지고 화평한 관계가 견고하게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국서. 1895년(고종 32) 5월 3일에 작성하였고, 『大朝鮮國寶』라고 새긴 국서가 찍혀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2020. 3. 2.

-
- ①大朝鮮國大君主致復于大法國大總理璽天德朕之良友
 - ②頃奉來書知前大總理璽天德께서 샤리에遜讓大位 國會公議歸于 貴大總理璽天德펠릭스폴光登寶極 遜聆之餘不勝忻賀
 - ③從此友誼益加親密 堅保和平之大局 此貴大總理璽天德之心而亦朕之所至願也
 - ④良友金玉之言敢不佩服 請煩貴大總理璽天德鑑諒焉
 - ⑤大朝鮮開國五百四年 朕御極之三十二年 五月初三日 在漢陽景福宮 親署名鈐寶
 - ⑥大君主『大朝鮮國寶』
 - ⑦奉勅外部大臣 金允植『外部大臣之印』

- ①대조선국 대군주는 짐의 훌륭한 친구인 대법국大法國(프랑스) 대통령大總理璽天德께 답장을 보냅니다.
- ②얼마 전 보내온 편지를 받고서, 전 대통령 카시미르 페리에(Jean Casimir-Perier)가 대통령 직위에서 물러났고, 국회의 공의가 귀 대통령 펠릭스 포르(Felix Faure)에게 돌아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기쁨과 축하를 가눌 길이 없습니다.
- ③이를 계기로 우의가 더욱더 친밀해져서 평화의 큰 장이 굳건하게 보전될 것입니다. 이는 귀 대통령의 생각이요, 또한 짐의 지극한 소원입니다.
- ④훌륭한 친구의 금옥金玉 같은 말씀을 감히 명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귀 대통령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 ⑤대조선 개국 504년, 짐의 등극 32년(1895) 5월 초3일 한양 경복궁에서 친히 서명署名하고 검보鈐寶하다.
- ⑥대군주『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
- ⑦칙령을 받든 이 외부대신 김윤식『외부대신지인』


한재훈, 원문 입력 및 국역

27.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 大法國大 伯理就任祝賀國書, 1899년, 왕실고문서 617

慶

大韓國
大皇帝慶致復于
大法國主國
大伯理重天德閣下朕之良友
前大伯理重天德爾석스불不幸崩逝朕聞之不勝驚悼續聞
貴大伯理重天德에밀누비因議會公舉光登
寶位選聽之餘攢賀曷已從此
好國與各與國交誼諒必益臻親密朕亦當推誠協濟永以為
貴大伯理重天德相須之
殷也茲祝
閣下撫有臣民化理之新
光武三年十月三十日在漢城慶運宮親署名鈴寶

奉
勅外部大臣朴齊純
壬寅在民朴在甲臨



원본 크기 : 40.7x51.5cm
 작품 크기 : 41.0x51.0cm
 자료 출처 : 왕실고문서 617 / 光武 3년(1899년) 10월 30일 / 41.5x51.8cm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프랑스[大法國] 대통령 펠릭스 포르(Felix Faure)가 서거하고 에밀 루베(Emile Loubet)가 의회의 추대를 받아 대통령직에 오르자 고종 황제가 즉위 축하와 더불어 우의가 더욱 친밀해지고 협조적인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국서. 1899년(광무 3) 10월 30일에 작성하였고, 말미에 고종의 어휘御諱가 씌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2020. 3. 2.

-
- ①大韓國大皇帝 癸致復于大法民主國 大伯理璽天德閣下 朕之良友
 - ②前大伯理璽天德 펠[ㄴ + | + ㄱ]스폴 不幸崩逝 朕聞之不勝驚悼
 - ③續聞貴大伯理璽天德 에밀누비 因議會公舉 光登寶位 逃聽之餘 攢賀曷已
 - ④從此貴國與各與國 交誼諒必益臻親密 朕亦當推誠協濟 永以爲好用副貴 大伯理璽天德 相須之殷也
 - ⑤茲祝閣下 撫有臣民 化理之新
 - ⑥光武三年 十月三十日 在漢城 慶運宮 親署名鈐寶
 - ⑦ 熙
 - ⑧ 奉勅外部大臣 朴齊純 『外部大臣之印』

- ①대한국 대항제 희는 짐의 훌륭한 친구인 대법민주국(大法民主國: 프랑스) 대통령(大伯理璽天德) 각하께 답장을 보냅니다.
- ②전 대통령 펠릭스 포르(펠릭스 폴, Felix Faure)께서 불행히도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짐이 듣고 놀람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 ③이어서 귀 대통령 에밀 루베(에밀누비, Emile Loubet)께서 의회의 추대를 받아 대통령에 취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축하를 금할 수 없습니다.
- ④이를 계기로 귀국은 여러 우방(與國)과 우의가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짐 역시 당연히 정성껏 협력하여 영원히 우호를 다질 것이며, 이로써 귀 대통령의 성대한 우정에 부응할 것입니다.
- ⑤이에 각하께서 새롭게 신민臣民을 잘 다스려나가지길 축원합니다.
- ⑥광무 3년(1899) 10월 30일 한성 경운궁에서 친히 서명署名하고 검보鈐寶하다.
- ⑦희 熙
- ⑧칙령을 받든 이 외부대신 박제순 『외부대신지인』

한재훈, 원문 입력 및 국역

조선이 대한으로 바뀐것은 1897년 10월 국제가 대한제국으로 바뀐 때 문이다.

김인걸, 개인 교신, 2022. 11. 18.

외진연시무동각정제무도홀기
축신

외진연악장

서일금루창화연 경신공우스월 질주함영쇼쇼
오윤봉철 테엄룡공비건 연보산던공개불 천관
비무헌하상 만녕화족잠홀

박보허 ○박중무무작쇼퇴이림 ○박죽간즈이인족도이
진립악지구호 렴하거이쇼퇴 진윤로이 홀 ○박보허 ○박
죽간즈이인족도이퇴림 ○박중무역좌우협무진이림 ○박
림추족도 ○박무퇴악지

이천이십이년무간박재갑임거



원본 크기 : 24.8x7.0cmx첩

작품 크기 : 36.0x28.0cm

자료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 222쪽

1901년(광무 5) 고종황제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설행한 진연進宴 중 7월 26일 외진연外眞宴의 공연에 대해 한글로 기록한 자료이다.

서지사항

서명은 표지 서명을 따랐다. 표지 장황은 붉은색 비단으로 하였다. 제첨題簽은 흰색 비단 위에 묵서墨書하였는데, 흰색 비단 뒤에는 파란색 비단을 덧대었다. 서등을 푸른 비단으로 감싼 호접장蝴蝶裝이다. 본문은 주사란朱絲欄에 4행行 21자字로 기록하였다. 정재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변란 위쪽에 노란색 첨지를 붙여 찾아보기 쉽게 한 것으로 보인다. 앞표지 이면에 『장서각인藏書閣印』을 날인하였다. 순 한글본이다.

체제 및 내용

1901년 고종황제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7월 경운궁의 함녕전咸寧殿에서 진연進宴을 베풀었다. 진연은 7월 26일에는 『외진연外眞宴』, 27일에는 『내진연內眞宴』과 『야진연夜眞宴』, 29일에는 『회작연會酌宴』과 『야연夜譚』으로 다섯 차례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이 자료는 외진연에서 무동舞童이 공연했던 朶才와 관련하여 한글로 기록한 것이다. 황태자가 지은 악장인 『만년환萬年歡』과 외진연에서 무동이 공연한 『초무初舞』, 『봉래의鳳來儀』 등 19종의 정재 배열 및 절차, 『태평가太平歌』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각각은 먼저 춤의 제목이 나오고 다음 줄에 춤추는 대형을 그림으로 그린 후 각 무인舞人의 이름을 해당 위치에 기록하였다. 다음 줄에는 연주하는 악곡명을 제시하고 춤추는 순서를 동작별로 읽기 쉽도록 흰 권점으로 구분하여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래하는 가사를 중간중간에 써 놓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가사가 실려 있는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15세기의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와 비교할 때 표기뿐 아니라 표현이 바뀐 곳도 많고 당시의 음운 변화를 반영한 부분도 있다. 또 “블근 글을 무려 침실의 퍼 안즈니”와 같은 예에서는 ‘읽’이란 단어를 알지 못하여 가사가 완전히 왜곡되기도 하였다.

이 자료와 관련된 문헌으로는 내용이 동일한 『외진연시무동각정지무도흘기』(K2-2891)가 있고 진연 후 29일에 베푼 『회작연會酌宴』과 관련된 『회작시녀령각정지무도흘기』(K2-2894)가 있다.

특성 및 가치

이 자료는 1901년 고종황제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설행한 진연進宴 중 7월 26일 외진연에서의 공연과 관련된 노래와 춤, 악기, 이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20세기 초의 궁중 풍속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모든 내용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어, 20세기 말의 한자음 연구 및 한글 서체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박부자, 『장서각소장 등록류 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책 황귀비흘기

전일일주턴스철

어좌어 증화턴북벽남향철

척인안각일어기전 척동인서 봉철관 비서원승 위어

척인안지동장철즈 장례원겸장례 위어봉철관지좌구서향

기일주스 장례원로창파하동 설종천문무빅관급스자이하집스

관위어 년령동서중항부향철외위여상시지종

천문무빅관급스자이하각복쇼복 스름이상쇼복오 품이하혹단령 취외

이천이십이년무간박재갑임서



원본 크기 : 27.6x9.2cmx첩

작품 크기 : 39.0x32.0cm

자료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성남시, 2016년, 220~221쪽

정의

1903년(광무 7) 11월 7일에 고종高宗의 계비繼妃인 순비淳妃 엄씨嚴氏를 황귀비皇貴妃로 진봉進封할 때 의주를 순 한글로 적은 홀기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권수제는 ‘칙황귀비홀기’이다. 표지가 붉은색인 절첩본折帖本으로 필사본筆寫本이다. 서명은 흰 종이에 써서 표지 좌측에 붙여 놓았다. 본문의 필사에는 붉은색으로 상하단변上下單邊을 그려서 만든 주사란朱絲欄 4행의 장지壯紙가 사용되었다. 서배書背를 파란색 종이로 감싸 놓았다. 본문 1면 우측 상단에 『장서각인藏書閣印』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1903년 9월 27일 순비 엄씨를 황귀비皇貴妃로 진봉進封하는 의절을 장례원掌禮院에서 거행하라는 조칙詔勅에 따라서 장례원에 책임조성소冊印造成所가 설치되고 10월 27일 시역始役, 10월 6일 책임冊印 봉과내입封裹內入, 내궁內宮 습의꺾儀를 거친 후 11월 7일 책임冊印을 내출內出하여 내궁內宮에서 『진봉예進封禮』가 거행되었다. 진봉進封 시時의 정사正使에는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이, 부사副使에는 특진관特進官 이용식李容植이 임명되었다.

이 홀기는 『진봉황귀비의귀進封皇貴妃儀軌』(奎13211)의 「의주儀註」 중 책황귀비의冊皇貴妃儀의 내용을 한글로 옮겨 놓은 것이다. 하루 전에 주전사主殿司에서 중화전 북벽에 남향하여 어좌를 설치한 후 책임안冊印案을 그 앞에 설치하고 비서원승秘書院丞인 낭관郎官이 책임안의 동쪽에 위치한다. 장례원 겸 장례인 낭자郎者是 낭관의 좌측에 서향하여 위치한다. 그날 주사인 장례원 여창과臚唱課에서 전정殿庭에 종친, 문무백관과 사자使者 이하 집사관의 자리를 동서로 중행重行으로 설치하고 북향하여 외위外位를 설치한다. 종친, 문무백관과 사자 이하는 조복朝服을 입고 외위에 선다. 장례원관이 책함, 인록을 각각 받들어 책임안에 놓고 비서원승이 전내殿內로 나뉘 들어가 부복俯伏하면 주사가 종친, 문무백관과 사자 이하를 인솔하여 자리에 선 후 국궁사배를 하고, 승제관承制官이 어좌 앞에 부복하여 일어나 정문으

로 나가면 집사자執事者가 책임안을 마주 들고 승제관을 따른다. 승제관이 중계中階로 내려가 사자에게 동북서향으로 서게 하면 집사관도 안案을 중계에 내려놓고 승제관의 남쪽으로 천천히 물러가 동향한다. 사자 이하와 종친, 문무백관이 무릎을 꿇고 승제관이 순비 엄씨를 황귀비로 진봉進封한다고 말하면 사배례를 행하고, 집사자가 각각 책함과 인록印蠶을 승제관에게 주면 승제관은 책함을 받아 정사에게 주고 인록은 부사에게 주어 책임안에 놓게 한다. 이후 다시 사배례를 행하고 주사는 사자를 인솔하여 동문으로 나가고 장랑자掌郎者是 정문으로 나가 책임안을 인도하고, 그 뒤로 사자들은 각각 책함, 인록을 각각 요채여腰彩輿에 놓고 그 뒤로 장랑자, 책여冊輦, 인여印輦, 채장彩仗, 사자使者 이하가 차례로 따르고, 내궁內宮에 이르러 문무백관, 종친이 사배례를 하고 주사가 종친, 문무백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사자 이하가 내궁에 이르러 행례行禮를 마치고 복부명復命한다.

특성 및 가치

『진봉황귀비의귀進封皇貴妃儀軌』(奎13211)의 「의주儀註」 중 『황귀비수책의冊皇貴妃受冊儀』, 『황귀비조견황제의冊皇貴妃朝見皇帝儀』와 함께 대한제국기 황귀비의 책봉 의례의 절차를 참조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정은주, 『進封皇貴妃儀軌』(奎13211)

30. 고종황제의 밀서 高宗皇帝密書, 1906년 1월29일

高宗皇帝密書

一 一千九百零五年十月十七日使與朴齊純締約五

條는 皇帝게서 初無認許又不 親押

二 皇帝게서는 此條約을 日本이 擅自頒布하

고 及 對

三 皇帝게서는 獨立帝權을 一毫도 他國에

讓與함이 無

四 日本之 勅約於 外交權도 無 據은 况 內治上에

一 件事라도 何可認准

五 皇帝게서는 統監에 來 駐하 高 無 許하 高

自 室權을 一毫도 外人에 擅行을 許하 高

無

六 皇帝게서는 世界各大國이 韓國外交을 同爲

保護호를 願하 高 限은 以 五年 確 定

光武十年一月二十九日

서기 이천이십이년계묘갑임서



원본 크기 : 23.5x36.2cm?

작품 크기 : 33.5x47.0cm

자료 출처 : 더글라스 스토리 Douglas Story 지음, 권민주 옮김,

『고종황제의 밀서 - 다시 밝혀지는 을사보호조약』,

(원작. To-morrow in the East), 글내음, 서울, 2004년, 별첨

매섭게 추운 일월의 새벽 4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필자(더글라스 스토리)는 궁궐 밀사로 인해 잠에서 깨었는데, 그는 황제의 밀서를 그의 옷에서 꺼냈다. 그것은 황제의 명령과 상반되고, 황제의 동의 없이 겨우 다수가 된 겁에 질린 대신들에 의해 서명되어 일본과 체결했던 조약보다 훨씬 유효한 문서였고, 이 밀서에는 황제의 인장이 붉게 찍혀 있었다. 이 밀서에는 여섯 조목의 명확한 주장이 기록되어 있었고, 한국의 입장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다.

- 고종황제의 밀서 -

I. 1905년 11월 17일 박제순과 하야시Hayashi가 서명한 조약에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동의하지 않았고, 또한 서명도 하지 않았다.

II.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일본의 언어로 공포된 조약의 조항들을 반대한다.

III.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한국의 주권을 선언하였고, 그 주권이 외국 강대국에 넘겨지는 어떤 조치도 반대한다.

IV. 일본에 의해 공포된 조약에 관련된 조건은 외국 강대국들과 외교권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한국의 내정을 지배하는 일본의 장악을 결코 공인한 적 없다.

V.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일본으로부터 통감 지명을 결코 승인한 적이 없고, 한국에서 황제의 권한을 행사할 일본인의 임명을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

VI.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다른 강대국들이 한국의 외교 업무를 성의를 가지고 관장하는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공동 보호로 활동하기를 초대한다.

한국 황제 폐하의 손과 인장 하에서 마쳐짐.

1906년 1월 29일

-끝-

이 밀서를 소지하고, 필자는 밀사를 기다리면서 있었던 한국인의 집을 떠나 어둠 속에서 급히 친구 집으로 향했다. 동양에서 이런 문서들을 소지하기에 위험한 것이며, 그 문서의 신빙성을 입증하고, 동시에 문서 조항들의 사본을 만드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처음으로 필자는 유럽인을 신임하여 두 증인 앞에서 밀서의 사본을

만들고 봉인하여 그것을 안전한 곳에 두었다. 필자가 호텔에 돌아왔을 때, 서류 가방이 찢어져 열려 있었고, 내용물들이 뒤져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날 밤, 미국 총영사와 함께 도시 대문을 통과하는데, 어둠 속 가까운 곁에서 라이플rifle 총의 총알이 소리를 내며 필자의 귀를 지나쳐 장식한 돌에 박히는 것을 보았다. 분명 서울은 필자가 살기에 위험해지고 있었다. 필자는 가장 빨리 출발하는 기선으로 떠나기로 결정했다.

더글라스 스토리 Douglas Story 지음, 권민주 옮김, 『고종황제의 밀서 - 다시 밝혀지는 을사보호조약』, (원작, To-morrow in the East), 글내음, 서울, 2004년, 71~73쪽

더글라스 스토리씨는 100여년 전 아시아와 중동에 관하여 연구 관찰한 영국인 전문 종군기자이며, 홍콩에 있는 일간지의 편집인이었다. 그의 저서 『To-morrow in the East』는 10년간 조사한 필자의 연구 결과이며, 1907년 런던 George Bell & Sons에서 발간하였다. 인도와 영국령에만 발간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책은 To-morrow in the East의 내용 중 한국에 관한 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더글라스 스토리씨는 더글라스 참고문헌에 대한 설명임

31. 대한의원개원칙서 大韓醫院開院勅書, 1908년 10월 24일

大韓醫院開院勅書

朕이 維컨디 國運의 隆替는 國民의 健瘁에 因함이
多할지라 我國의 現狀을 察컨디 衛生思想이 尙히
幼穉하고 救療機關이 不備함으로 朕이

太皇帝陛下의 聖旨를 紹述함야 有司로 함야 毋長
을 友邦에 取함야 醫術의 普及과 振興함을 計코 凡
함야 大韓醫院을 創設함이 러니 有司의 忠勤盡職
함을 因함야 今에 工事가 告竣함고 開院의 式을 舉
함니 蓋院務가 業已 就緒함야 其效果의 曙光이 漸
次로 遐通에 及함야 四民이 其惠澤에 浴함은 朕心
에 滿足함는 바 이나 然而 其任은 甚重함고 其道는
猶遠이라 朕은 政府當局의 協翼과 本院庶僚의 奮
勵함을 倚藉함야 此를 庶幾大成케 함노니 爾臣僚
는 朕旨를 克體함지이다

隆熙二年十月二十四日

西曆一千九百零八年五月二十五日 無間朴在甲臨



원본 크기 : 43.0x59.5cm

작품 크기 : 43.0x59.0cm

자료 제공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전시 : 『명사서예전』, 『제12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9』,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2019. 10. 12. ~ 11. 10., 299쪽

大韓醫院開院勅書

朕이維건대國運의隆替는國民의健痺에因함이多한지라我國의現狀을察건대衛生思想이尙히幼穉하고救療機關이不備함으로朕이太皇帝陛下의聖旨를紹述하여有司로하여금長을友邦에取하여醫術의普及과振興함을計코저하여大韓醫院을創設함이러니有司의忠勤盡職함을因하여今에工事が告竣하고開院의式을舉하니蓋院務가業已就緒하여其效果의曙光이漸次로遐邇에及하여四民이其惠澤에浴함은朕心에滿足하는바이나然而其任은甚重하고其道는猶遠이라朕은政府當局의協翼과本院庶僚의奮勵함을倚藉하여此를庶幾大成케하노니爾臣僚는朕旨를克體할지어다

隆熙二年十月二十四日

西紀二千十九年五月二十五日無間朴在甲臨

Imperial Edict on the Inauguration of Daehan Hospital

I, the Emperor, believe that the rise and fall of a country is primarily determined by the health and disease status of its people. Given our overall hygiene conditions, which are marked by a poor perception of public health and the absence of public medical facilities, I ordered those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to embark on the establishment of Daehan Hospital through the utilization of friendly nations' merits with the aim of fostering the active dissemination and promotion of medicine in accordance with the sacred intention of His Majesty Grand Emperor Gojong. The faithful performance of these duties has led to today's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and the inauguration of Daehan Hospital, and I am highly gratified at Daehan Hospital's vision for the gradual expansion of medical benefits to the general public. However, there is still a long road ahead to achieve many of the expected missions of great importance. I envision Daehan Hospital's attainment of its grand ambition through the harmonious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and the arduous effort of its staff. You, the

government officials, are hereby commanded to obey my will.

October 24, 1908 (2nd year of Yunghui's reign of Emperor Sunjong)

*This Edict was proclaimed by Emperor Sunjong on the Inauguration of Daehan Hospital.

김지명 한국통번역사협회 초대회장, 영문국역 및 감수

집朕과 과인寡人

'집'은 1인칭 '나'라는 뜻이고, '과인'은 '과덕지인寡德之人'의 줄임말로 '덕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겸손한 표현이다.

'집'은 황제가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과인'은 제후와 같은 임금들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집'이라는 표현과 '과인'이라는 표현이 고르게 쓰이고 있다.

한재훈, 자료 제공, 2022. 10. 28.

32.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1909년 1월 27일~2월 3일

西巡幸日記

曩日 聖駕南巡 各各地的治績을 下察 聖意가 稍叙 億兆를 綏撫 宸憂는 尙
 此 是으로 卩滿 足히 아나 尙 再 次 西 方 에 巡 幸 矣
 其 辰 念 廿 九 日 統 監 公 爵 伊 藤 博 文 氏
 陛 見 時 에 巡 幸 矣 新 效 果 地 方 行 政 의 刷 新 과
 民 心 의 啓 迪 에 大 大 影 響 이 及 事 務 와 又 統 監 이
 不 日 間 歸 朝 의 途 에 就 言 上 奏 矣
 陛 下 下 告 矣 西 方 巡 幸 矣 聖 意 가 滋 有 之
 矣 統 監 의 歸 朝 前 에 再 次 其 輔 導 에 依 矣 西 方
 서순행일기중에서
 서기이천이십이년재민박재감임서

원본 크기 : 26.8x19.0cm
 작품 크기 : 39.0x30.0cm
 자료 출처 : 화봉문고,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제81회 화봉현장경매』, 서울, 2022년, 3쪽, 14쪽

[정의]

1909년(융희 3) 1월 말~2월 초 순종 황제가 평양을 비롯한 서북 지방을 순행한 일.

[개설]

1909년 1월 27일~2월 3일 동안 순종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양서 지방을 순행하였다. 이는 1909년 1월 초에 대구, 부산, 마산 등을 순행한 남순행(南巡幸)에 이은 두 번째 순행이었다. 통감統監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는 1907년(융희 1) 새 황제에 등극한 순종이 대한제국인에

게 황제로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자 순종을 순행하게 하여 대중에 노출함으로써 황제로서의 인식을 공고히 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배종하여 통감부(統監府)의 힘을 과시하였다.

[연원 및 변천]

순종의 서순행은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이루어진 남순행에 이은 행차였다. 이러한 순종의 순행은 역대 왕이 도성 내의 종묘나, 도성 주변 선왕의 능에 행차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 바로 일본 메이지 천황[明治天皇]의 순행을 본뜬 것이었다. 메이지 천

황은 메이지유신 직후인 1868년(일본 명치 1)부터 20년간 6차례에 걸쳐 일본 각지를 순행하였으며, 이러한 순행은 신격화되어 있는 천황을 대중 앞에 드러냄으로써 유신 직후 불안한 일본 정세를 가라앉히고 천황을 중심으로 국가 구성원들의 통합과 자주적 국민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순종의 순행은 메이지 천황의 순행과도 다른 것이었다. 순행을 계획한 주체가 순종 자신이 아니라 통감 정치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통감부였다. 이 순행은 당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킨 통감 정치에 대한 한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달래고, 대한제국 황제의 건재함을 보여 통감 정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절차 및 내용]

서순행은 1909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7박 8일간 이루어졌으며 도시 간의 이동은 특별 궁정 열차를 이용하였다. 1월 27일 순종은 오전 8시에 남대문역을 출발해서 평양에 도착하여 하루를 묵은 뒤, 다음 날 정주를 거쳐 신의주에 도착하였다. 29일에 신의주에서 의주로 이동하여 머물렀으며, 30일에는 다시 신의주로 돌아와 머물렀다. 31일에는 정주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평양에 도착하였다. 31일과 2월 1일에 평양에 머물렀으며 2월 2일 평양을 출발하여 황주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개성에 도착하였다. 2월 3일 개성을 출발하여 오후 3시에 남대문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순종의 서순행에는 궁내부宮內府, 내각內閣, 통감부의 3개 부처에서 279명이 선발되어 호종하였다. 호종원 가운데에는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 궁내부 대신大臣 민병석閔丙奭, 시종원侍從院 경卿 윤덕영尹德榮, 내각 총리대신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내부內部 대신 송병준宋秉駿, 군부軍部 대신 이병무李秉武, 학부學部 대신 이재곤李載崐 등 궁내부에서 201명, 내각에서 49명이 호종하였다. 일본인으로는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하여 궁내부 차관次官 고미야 사보마쓰[小宮三保松], 내장원內藏院 이사理事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郎介], 『대한의원大韓醫院』 의관醫官 겸 전의典醫 스즈키 겐노스케[鈴木兼之助] 등 29인이 호종하였다[『순종실록』 2년 1월 21일].

서순행에서는 순종의 위엄을 보이기 위하여 모든 절차가 철저히 계획

되고 준비되었다. 지방 역에 열차가 도착하면 노부식을 먼저 설치한 후 순종을 모셨다. 순종이 기차에서 내리기 전에 음악대가 먼저 하차하여 음악을 연주하였으며, 순종이 기차에 오를 때에는 오르기 전에 음악대가 먼저 탑승하여 열차 내에서 애국가를 연주하였다.

서순행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지방 민인들과의 만남이었다. 각 지방에서 순종을 폐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예식관이 조사하고, 차관, 대신, 통감에게 의논한 뒤에 상주하였다. 그러면 순종은 직어를 내리거나 알현을 받아주었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순종은 서순행 시 서구식 대례복인 대원수복을 착용하였으며, 머리도 단발을 갖추었다. 이러한 순종의 차림은 사람들의 단발과 양복에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순행 기간 동안 순종의 기거는 여관女官 5명이 종사하였으며, 의사와 이발사에 이르기까지 궁궐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는 직책의 인물들이 호종하였다. 순종은 열차 안과 행재소에서 조선 전통 음식과 서양식 식사를 하였는데, 식사를 담당하는 전선사典膳司는 손탁호텔에서 나온 10인의 요리사가 담당하였다.

순종의 서순행시 통감부에서는 연도에 마중 나온 만민들에게 한일 양국 기를 들도록 하였는데, 이때 오산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일장기를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대한제국관보大韓帝國官報』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황성신문皇城新聞』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김소영, 『순종황제의 남·서순행과 충군애국론』, 한국사학보 39호, 2010.

이왕무, 『대한제국기 순종의 남순행 연구』, 정선문화연구30권 2호, 2007.

이왕무, 『대한제국기 순종의 서순행 연구 -서순행일기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31, 2011.

『서순행西巡幸』, 위키 실록사전, sillokwiki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성과포털, 한국학 기초자료사업 장서각 국가전적 자료센터 구축사업 2단계, <http://waks.aks.ac.kr/>

제6장 한글재민체 작품

한글재민체를 적용하여 모사하게 된 대상 자료들의 범주와 선택 배경은 아래와 같다.

박재갑의 한글재민체 관련 필사 작품들은 김민과 함께 작품 내용과 구도를 논의한 후 김민이 만들어준 모본에 따라 모사하였다.

국사國事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다.

국사國事와 관련한 작품으로는 잃어버린 영토 대마도 관련 내용과 임진왜란의 쓰라린 체험을 거울삼아 다시는 그러한 수난을 겪지 않도록 후세를 경계하고자 쓰인 징비록, 임진왜란 중 선조가 의주에 피신해 있을 당시 백성들에게 내린 한글 교서인 선조국문유서(임서 5)를 현대문으로 고친 내용,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시기의 고종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삼일독립운동 및 임시정부 관련 내용을 필사하였다.

작품 1. 정대마도교서征對馬島教書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건국 사흘 뒤인 1948년 8월 18일 첫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본에 대마도對馬島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마도는 상도上島와 하도下島의 두 섬으로 되어 한일 양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 영토인데 350년 전 일본이 탈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듬해 1월 8일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일본의 배상 문제는 임진왜란 시부터 기산起算해야 한다”면서 대마도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대마도가 우리 섬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350년 전 일본인들이 그 섬에 침입하여 와 도민들이 민병을 일으켜 일본인과 싸웠다. 그 역사적 증거는 도민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마도의 여러 곳에 건립했던 비석을 일본인들이 뽑아다가 동경박물관에 갖다 둔 것으로도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석도 찾아올 생각이다. 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적으로 삼킨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949년 12월 31일 대통령 연말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거듭 “대마도 반환은 우리의 실지失地를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대마도 문제는 대일 강화회의 석상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일본인이 아무리 주장해도 역사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이승만의 대마도對馬島 반환 요구~국제사회 공

식문헌을 중심으로, 한국논단, 68~79쪽, 2011.

1419년 이종무李從茂의 대마도 정벌 때 어변갑魚變甲(1380~1434)이 세종을 대신하여 작성한 『정대마도교서征對馬島教書』 조선왕조실록, 「상왕이 대마도를 정벌할 것에 대해 중외에 교유하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9일 임오 5번째 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국사편찬위원회는 대외 전쟁에서 적국을 정벌하는 정당성을 선포한 명문이다.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인데, 다만 궁벽하게 막혀 있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왜놈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으로부터 변경에 뽀뽀하기 시작하여 마음대로 군민을 살해하고, 부형을 잡아가고 그 집에 불을 질러서, 고아와 과부가 바다를 바라보고 우는 일이 해마다 없는 때가 없으니, 뜻 있는 선비와 착한 사람들이 팔뚝을 걷어붙이고 탄식하며, 그 고기를 찢고 그 가죽 위에서 자기를 생각함이 여러 해이다.’

필자는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분명히 밝힌 정대마도교서를 한글재민체 필사 작품으로 선택하였으며, 한자를 아는 일본인들도 볼 수 있도록 재민한자체도 필사(작품 1)하였다.

작품 2. 징비록서문懲毖錄自書

임진왜란 때 영의정으로서 도체찰사를 겸임하였던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1542~1607) 선생이 임진왜란 때의 상황을 벼슬을 떠나 귀향한 후에 기록한 것으로, 저자는 임진란의 쓰라린 체험을 거울삼아 다시는 그러한 수난을 겪지 않도록 후세를 경계한다는 민족적 숙원에서 책명을 「징비록懲毖錄」으로 하였다.

이 징비록(국보 132호)을 통해 임진왜란 전의 일본과의 교린 관계를 비롯하여, 전란戰亂에 임한 국민적 항쟁과 명나라의 구원 및 바다의 제패에 대한 당시의 전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임진왜란사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본 역사 자료가 된다.

필자본 징비록은 조수익공이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하고 있을 때 필자 손자의 요청으로 인조 25년에 16권 7책으로 간행하였으며, 또한 이것은 숙종 21년 일본 교토 야마토야에서도 간행되어 1712년에는 조정에서 징비록의 일본 유출을 금할 정도로 귀중한 사료로 평가 받았다.

징비록의 저술 동기에 대하여 서문序文에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징비록」이란 무엇인가? 임진란 후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거기에 임진란 전의 일도 간혹 기록한 것은 임진란의 발단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아! 임진란의 전화戰禍는 참혹하였다. 수십 일 동안에 삼도三都를 지키지 못하고 팔도八道가 산산이 깨어졌으며, 임금께서 피란避亂하셨으니 그리고서도 오늘날이 있게 된 것은 천운이다.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내 지난 일을 징계懲하여 뒷근심이 있을까 삼가慙노라.' 고 했으니 이것이 징비록懲毖錄을 쓰는 연유라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징비록 서문을 국한문으로 필사(작품 2)하였다.

『징비록』에는 『초본 징비록草本懲毖錄』과 간행본으로 『징비록 16권 본懲毖錄 十六卷本』 및 『징비록 2권본懲毖錄 二卷本』이 있어서, 모두 3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초본 징비록』이 가장 원천이지만, 간행본인 『징비록 16권본』에는 『초본 징비록』에 실려 있는 것 외에도 『근폭집芹曝集 2권』과 『진사록辰巳錄 9권』 및 『군문등록軍門謄錄 2권』이 포함시켰으며 『징비록 2권』본은 『초본 징비록』에서 맨 끝의 「잡록雜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저서를 통해 임진왜란 전의 일본과의 교린交隣 사정을 비롯하여, 전란戰亂에 임한 국민적 항쟁과 명나라의 구원 및 바다의 제패에 대한 당시의 전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임진란에 대한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본 역사 자료가 된다.

안동 하회마을 사이트 검색 <http://www.hahoe.or.kr/>

필자는 징비록의 서문을 한글재민체(국한문)로 필사(작품 2)하였다.

임진왜란은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침입한 일본과의 싸움이다.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끈질긴 저항으로 이겨내고 각성과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민족의 운명을 새로 개척해나간 계기가 된 전쟁이다. 명의 원조도 있었지만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은 거족적인 저항으로, 이순신에 의한 제해권의 장악과 전국에서 봉기한 의병의 활동은 불리했던 전쟁 국면을 전환시킨 결정적인 힘이 었다. 이 전란은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크게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명과 청이 교체되면서 병자호란이라는 시련을 예고하기도 했다.

임진왜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작품 3. 선조국문유서宣祖國文諭書

『선조국문유서』(작품 3)는 임진왜란 중 선조가 의주에 피신해 있을 당시 백성들에게 내린 한글 교서이다. 장지에 10행 429자로 작성했으며, 『유서지보諭書之寶』가 세 군데 찍혀 있다. 임진왜란 당시 많은 조선인이 포로가 되어 왜군에게 협력했는데, 선조는 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 교서를 반포함으로써 포로가 된 백성을 회유해 돌아오게 하였다. 이 유서는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오기 한 달 전에 내려진 것인데, 당시 김해성을 지키던 장수 권탁權卓(1544~1593)은 이 문서를 가지고 적진에 침투해 적병 수십 명을 죽이고 포로 100여 명을 구출해 돌아왔다. 이 교서는 권탁의 후손이 보관하다가 1854년, 철종 5, 김해시 흥동에 어서각御書閣이 건립되면서 이곳에 보관되었다. 유서의 내용은 강제로 왜인에게 붙들려 간 백성은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과 왜군을 잡아 오거나 왜군의 정보를 알아 오는 사람, 또는 포로로 잡힌 우리 백성들을 설득해 데려오는 사람에게는 천민, 양민을 가리지 않고 벼슬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이 자료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으며, 당시 사용된 한글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 92쪽. 안동권씨 판결공파 종친회 총무님께 2020년 5월 8일 부산시립박물관 학예사님께서 연락드려 선조국문유서의 이미지 사용 목적을 설명드렸으며, 임진왜란 전시 중에 작성된 유서라서 세로줄이 고르지 못하고 행마다 글자수도 일정치 않아 필자가 선조국문유서 속의 단어배열을 새로 정리하여 모사하였다.

작품 4. 고종이 지어 팔도와 사도의 노인과 백성들에게 내린 윤음

『어제유팔도사도기로인민등륜음御製諭八道四郡耆老人民等綸音』(작품 4)은 1882년 7월 20일 고종이 임오군란으로 흐트러진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전국 팔도와 사도의 노인과 백성에게 내린 윤음이다. 1882년 6월 9일 군료 지급에 불만을 품은 훈국파 병사들이 개화파를 몰아내고 대원군을 내세웠으나 1882년 7월 13일 대원군이 청나라에 납치되고 개화파가 다시 집권하게 되자, 고종은 자신의 실정을 전국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정치를 새롭게 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윤음이다. 한재영, 심보경, 『어제유팔도사도기로인민등륜음 해제』, 『역주 윤음 언

해 제2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7, 345~355쪽

필자는 조선 국왕 고종황제가 “~~ 나의 죄요”로 고백하는 11가지 죄목

① 임금의 자리에 올라 지금까지 오면서, 크게 토목공사를 일으켜 백성에게 재물을 억지로 거두어서, 가난하거나 부유한 모두로 하여금 다 피곤하게 하였으니 이것도 나의 죄요

② 여러 번 돈을 고치고 죄 없는 백성을 많이 죽였으니 이것도 나의 죄요

③ 사당과 서원을 허물고 철폐하여 충현에게 제사를 못 하게 하였으니 이도 나의 죄요

④ 좋아하는 물품을 널리 구하고 상을 주고 하사하는 일을 무분별하게 하였으니 이도 나의 죄요

⑤ 기도하는 일을 지나치게 믿고, 헛되이 내탕고의 재물을 허비하였으니 이도 나의 죄요

⑥ 사람 쓰기를 널리 못하고 종친과 외척만 숭상하니 이도 나의 죄요

⑦ 궁궐의 위엄이 엄숙하지 못하여 궁녀와 환시가 은택을 간섭하니 이도 나의 죄요

⑧ 뇌물을 주고받음이 드러나게 행하되 탐관오리를 징계하지 못하고, 가난한 백성이 근심하고 괴로운 정상이 위에 도달하지 못하니 이것도 나의 죄요

⑨ 저축한 재물이 오래 비어서 군사와 아전이 먹을 것을 잃고 공가를 부족하게 하는 일이 많으며 시장 상인이 폐업하니 이도 나의 죄요

⑩ 각국을 이어 우호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이에 시세에 마땅한 일이나, 시행을 계획하고 조처하기가 법에 어그러져서 한갓 백성에게 의혹을 더하였으니 이도 나의 죄이나라.

⑪ 마침내는 신령이 노하시고 사람이 원망하여 온갖 변고가 쏟아져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수이 여기매 재앙이 육친에게까지 미쳐서, 위로 천자에게 근심을 끼치고 아래로 만민에 사는 것을 요란하게 하고, 신의를 이웃 나라에 잃어버리고,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니, 이도 또한 나의 죄이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국가 운영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어제유팔도사도기로인민등륜음』을 한글재민체로 필사(작품 5)하고 2021년 제13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2021.11.05.~12.05.)의 명사서예전에 출품하였다.

작품 5. 삼일독립선언서

작품 6. 宣言書

삼일독립선언서 번역본을 한글재민체로 필사(작품 5, 2021년 전시)하고 삼일독립선언서의 원문을 재민체로 필사(작품 6, 2021년 전시)하였다.

안병욱, 개인 교신, 『기미 3.1 독립선언서』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과 함께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 값진 문건입니다. 그러한 상징적 가치에 맞게 품격을 갖춰 재현해 낸 선생님의 귀중한 작품이, 소중하게 널리 감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작품 7. 대한민국임시헌장원문大韓民國臨時憲章宣佈文

안병욱이 이준식(지청천 장군의 외증손자)과 논의하여 추천한 『대한민국임시헌장원문大韓民國臨時憲章宣佈文』을 재민체로 필사(작품 7, 2021년 전시)하고 2021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특별전에 출품하였다.

의학醫學

의학과 관련된 작품으로는

작품 8. 상학부대신서上學部大臣書(국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의학교 설립을 이끌어낸 지식영 선생님이 학부대신 이도재에게 보낸 한문 편지인 『상학부대신서上學部大臣書』를 한글로 해석하고 한글재민체로 쓴 작품(작품 8, 2021년 전시),

작품 9. 상학부대신서上學部大臣書(한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의학교 설립을 이끌어낸 지식영 선생님이 학부대신 이도재에게 보낸 한문 편지인 『상학부대신서上學部大臣書』를 재민한자체로 쓴 작품(작품 9, 2021년 전시),

작품 10. 학부대신답서

『학부대신답서』 원문 및 번역을 한글재민체와 재민한자체로 쓴 작품(작품 10, 2021년 전시),

작품 11. 칙령제7호勅令第七號

의학교 관제에 관한 『칙령제7호勅令第七號』(작품 11, 2022년 전시)

작품 12. 칙령제9호勅令第九號

대한의원 관제에 관한 『칙령제9호勅令第九號』(작품 12, 2022년 전시)

작품 13.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국한문 혼용의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의 한문을 우리말로 해석하고 재민체로 쓴 작품(작품 13, 2020년 전시),

작품 14. 경성의학전문학교 형설기념 사진첩 서문京城醫學專門學校螢雪記念寫真帖序文

경성의학전문학교 제8회 한국인 졸업생들의 졸업앨범 형설기념 머리말인 『경성의학전문학교 형설기념 사진첩 서문京城醫學專門學校螢雪記念寫真帖序文』을 재민체로 쓴 작품(작품 14, 2022년 전시),

작품 15. 역질 관련 윤음綸音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한 영조대왕 시절의 『역질 관련 윤음綸音』을 한글재민체로 쓴 작품(작품 15, 2020년 전시),

작품 16. 무오년 독감

그리고 정조대왕 시절의 『무오년 독감』을 한글재민체와 재민한자체로 쓴 작품(작품 16, 2021년 전시)이다.

사상思想

사상과 관련된 작품으로는

작품 17. 천화天和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 부지와 관련한 『천화天和』를 한글재민체로 쓴 작품(작품 17, 2022년 전시)과

작품 18. 천물무간天物無間

『천물무간天物無間』을 한글재민체와 재민한자체로 쓰고 돌에 새긴 후한지에 인주로 찍은 작품(작품 18, 2022년 전시) 및

작품 19. 천지인상생심天地人相生心

『천지인상생심天地人相生心』을 한글재민체와 재민한자체로 쓰고 돌에 새긴 후 한지에 인주로 찍은 작품이다(작품 19, 2022년 전시).

의학교 ~ 경성의학전문학교 주요 연표¹

대한제국 시기

- 1898.11.07. 상학부대신서², 지식영
- 1898.11.09. 학부대신답서³, 이도재
- 1899.03.24. 칙령 제7호⁴, 의학교 관제, 의학교 개교 (3년제)
- 1899.04.24. 칙령 제14호, 병원(훗날 광제원) 관제
- 1902.07. 제1회 졸업생 19명 배출
- 1903.07. 제2회 졸업생 13명 배출
- 1905.07. 제3회 졸업생 4명 배출
- 1905.02.26. 칙령 제18호, 광제원 관제
- 1907.03.10.⁵ 칙령 제9호⁶, 대한의원 관제
의학교는 광제원,
대한국적십자병원과 통합되어 대한의원이 됨
이때 의학교는 대한의원 교육부로 개편됨 (4년제)
- 1907.12.27. 대한의원 교육부는 대한의원 의육부로 개편됨 (4년제)
- 1908.10.24. 대한의원개원칙서⁷
- 1909.02.04. 대한의원 의육부는 대한의원 부속 의학교로 개편됨 (4년제)

일제강점기

- 1910.09.30. 대한의원 부속 의학교는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로 강등됨 (4년제)
- 1916.04.01. 경성의학전문학교 규정,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는
경성의학전문학교로 독립, 승격됨 (4년제)
- 1917.03. 경성의학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 배출 (한국인 48명)
- 1924.03. 경성의학전문학교 제8회 졸업생 배출 (한국인 49명,
『螢雪記念⁸』 제작)

해방 후

- 1946.08.22. 경성의학전문학교는 경성대학 의학부와 통합되어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됨⁹

-
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의학사연구실 김상태 실장님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
 2. 『함께쓰기-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1.11.2.~12.14.
 3. 『함께쓰기-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1.11.2.~12.14.
 4.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2.5.25.~6.30.
 5. 대한의원관제 시행일은 1907년 3월 15일임.
 6.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2.5.25.~6.30.
 7. 『함께 쓰고 함께 그리다-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0.10.8.~11.12.
 8.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2.5.25.~6.30.
 9. 법령(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 차원에서 1946년 8월 22일임. 실제로는 1946년 10월에 단과대학별로 개강함. 10월 14일에 의과대학이 마지막으로 개강했음. 오늘날 서울대학교의 개교기념일은 10월 15일임.

1. 정대마도교서 征對馬島教書 King Sejong's Message for the Conquest of Tsushima

정대마도교서

상왕이 종의에 교유하기를 병력을 기울여 무력을 행하는 것은 진실로 성현이 정계한 것이요 죄 있는 이를 다스리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제왕으로써 부득이한 일이라 옛적에 성탕이 농사를 제쳐 놓고 학과를 정벌하고 주나라 신왕이 더운 유월에 염운을 토벌했으니 그 일에 있어 비록 대소는 다르나 모두 과를 드로 말하는 거사라 함에 서는 한 가지 다대마도는 본래 우리 나라 땅이니 다만 공복하게 마치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왜놈들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갈이도 되질하고 쥐같이 흠지는 비릇을 가지고 경인년부터 변경에 뛰놀기 시작하여 마테로 군인과 과민을 살해하고 부정을 장아가고 그 집에 불을 질러서 고아와 파부가 바다를 바라보고 우는 일이 헤마 다 없는 때가 없었다 뜻이 선비와 어진 사람들이 팔뚝을 걷어붙이고 탄식하며 그 고기를 먹고 그 자취에서 속삭이기를 생각함이 여러 해이다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강헌대왕이 용이나 선운에 용하여 위덕이 널리 퍼지고 빛나서 어루만지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덕을 입어 그렇지 않은 리라 믿었다니 그 음흉하고 탐욕이 많은 버릇이 더욱 방자하여 그치지 않았다 병자년에는 돌래병신심여 최을 탐취하고 군사들을 살해하였으므로 내가 대동들이 어찌 위한이 후병술년에는 천라도에 무자년에는 충청도에 들어와서 혹은 운수하는 물품을 빼앗고 혹은 운병선을 불사르며 만호를 죽이기까지 하니 그 포악함이 극에 달하였다 제후에 다 시 들어와 살상함이 또한 많았으니 이는 기분이 좋지 않은 리로 감히 자갈지 만성이 되는 자들로써 간교한 생각을 숨기고 있거 때 문이라 신과 사람이 한가지로 분개하는 바이다 내가 도리어 저들의 거칠고 더러운 버릇을 보아 자갈하게 따지지 않고 저들의 배고픈 것도 구제해주고 저들과 통상을 허락하기도 하였으며 무릇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주지 않은 것이 없어서 다 같이 상아가기 들기 약하였노라 뜻밖에도 이 제후들이 나라는 허실을 영보아 비인포에 물러들어 오서 인민 거의 삼백여 명을 죽이고 노략질 하였으며 배를 불사르고 우리 장사를 해치고 황해에 떠서 평안도까지 이르러 우리 백성들을 소란하게 하며 장차 명나라지경까지 범하고 자하니 그 은혜를 잊고 의리를 배반하며 하늘의 뜻이 만도리틀어 지럽게 함이 너무 심하지 아니한가 내가 생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살 곳을 잃어버리는 것을 오히려 하늘과 땅에 죄를 짓는 것같이 두려워하거든 하물며 이 제후가 탐독한 행동을 제멋대로 하여 문백성을 학살하여 천벌을 자청하여 도오히려 용납하고 참아 토벌하지 않는다면 어찌나라에 사어 버리고 생령을 수화에서 건지고 자하여 여기에 이름고 해로움을 말하며 나의 뜻을 일반신민들에게 널리 알리노라

세종일년유월구일
서기이천이십이년오월제민박재갑소다

征對馬島教書

上王教中外曰 窮兵黷武 固聖賢之所戒 討罪興師 非帝王之獲已 昔成湯舍糶 辜而征有夏 宣王以六月而伐獵狝 其事雖有大小之殊 然其皆為討罪之舉 則一而已矣 對馬為島 本是我國之地 但以阻僻 險阻 聽為倭奴所據 乃懷狗盜鼠竊之計 歲自庚寅 始肆跳梁 於邊徼 虔劉軍民 俘虜父兄 火其室屋 孤兒寡婦 哭望海島 無歲無之 志士仁人 扼腕歎息 思食其肉 而殺其皮 蓋有年矣 惟我太祖 康獻大王 龍飛應運 威德光被 撫綏相信 然其凶狠貪婪之習 豈然未已 歲丙子 兼奪東萊兵船 二十餘隻 殺害軍士 子承大統 卽位以後 歲丙戌 於全羅道 歲戊子 於忠清道 或奪漕運 或燒兵船 至殺萬戶 其暴極矣 再入清州 殺傷亦衆 蓋其奸人 怒獸包藏 姦狡之念 神人所共憤也 子尙包荒 含垢 不與之較 賑其飢饉 通其商賈 凡厥需索 無不稱副 期于竝生 不意今又窺覘 虛實 潛入庇仁 之浦 殺掠人民 數三百餘 旋焚船隻 狀若將士 浮于黃海 以至平安 擾亂吾赤子 將犯上國之境 其忘恩背義 悖亂天常 豈不甚哉 以子好生之心 苟有一夫之失 所猶恐獲戾 于上下 矧今倭寇肆行 貪毒賊殺 群象自速 天禍尙且 容忍不克 往征 猶為國有人 乎今當農月 命將出師 以正其罪 蓋亦不得已焉 爾矣 於戲 欲掃叢兇 拯生靈 於水火 斯陳利害 諭于志于臣民

世宗一年六月九日
西紀二千二十二年五月在民朴在甲書

국역

상왕이 중외中外에 교유하기를,

"병력을 기울여서 무력을 행하는 것은 과연 성현이 경계한 것이요, 죄 있는 이를 다스리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제왕으로서 부득이한 일이라, 옛적에 성탕成湯이 농삿일을 제쳐 놓고 하夏나라를 정벌하고, 주周나라 선왕宣王이 6월 같이 더운 때에 험운獵狁을 토벌했으니, 그 일에 있어 비록 대소는 다름이 있으나, 모두가 죄를 토벌하는 행동은 한 가지라.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인데, 다만 궁벽하게 막혀 있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왜놈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으로부터 변경에 뛰놀기 시작하여 마음대로 군민을 살해하고, 부형을 잡아가고 그 집에 불을 질러서, 고아와 과부가 바다를 바라보고 우는 일이 해마다 없는 때가 없으니, 뜻 있는 선비와 착한 사람들이 팔뚝을 걷어붙이고 탄식하며, 그 고기를 씹고 그 가죽 위에서 자기를 생각함이 여러 해이다.

생각건대 우리 태조 강헌대왕이 용이 나는(飛) 천운에 응하여 위덕이 널리 퍼지고 빛나서, 어루만지고 편안하게 해 주시는 덕을 입어 그렇지 않으리라 믿었더니, 그러나 그 음흉하고 탐욕 많은 버릇이 더욱 방자하여 그치지 않고, 병자년에는 동래東萊 병선 20여 척을 노략질하고 군사를 살해하니, 내가 대통을 이어 즉위한 이후, 병술년에는 전라도에, 무자년에는 충청도에 들어와서, 혹은 운수하는 물품을 빼앗고, 혹은 병선을 불사르며 만호를 죽이기까지 하니, 그 포악함이 심하다. 두 번째 제주에 들어와 살상함이 많았으니, 대개 사람을 좋아하는 성년

짐승처럼 간교狡한 생각을 숨겨 가지고 있는 것은 신과 사람이 한 가지로 분개하는 바이지마는, 내가 도리어 널리 포용하여 더러움을 참고 교통하지 않았노라. 그 배고픈 것도 구제하였고, 그 통상을 허락하기도 하였으며, 온갖 구함과 찾는 것을 수응酬應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 없고, 다 같이 살기를 기약했더니, 뜻밖에 이제 또 우리나라의 허실을 엿보아 비인포底仁浦에 몰래 들어와서 인민을 죽이고 노략질한 것이 거의 3백이 넘고, 배를 불사르며 우리 장사將士를 해치고, 황해에 떠서 평안도까지 이르러 우리 백성들을 소란하게 하며, 장차 명나라 지경까지 범하고자 하니, 그 은혜를 잊고 의리를 배반하며, 하늘의 뒤흔힌 도리를 어지럽게 함이 너무 심하지 아니한가. 내가 삶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살 곳을 잃어버리는 것을 오히려 하늘과 땅에 죄를 얻은 것같이 두려워하거든, 하물며 이제 왜구가 탐독貪毒한 행동을 제멋대로 하여, 못 백성을 학살하여 천벌을 자청하여도 오히려 용납하고 참아서 토벌하지 못한다면, 어찌 나라에 사람이 있다 하랴. 이제 한창 농사짓는 달을 당하여 장수를 보내 출병하여, 그 죄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아아, 신민들이여, 간흉한 무리를 쓸어버리고 생령을 수화水火에서 건지고자 하여, 여기에 이해利害를 말하여 나의 뜻을 일반 신민들에게 널리 알리노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상왕이 대마도를 정벌할 것에 대해 중외에 교유하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9일 임오 5번째 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국사편찬위원회

작품 크기 : 90.0x60.0cm

자료 출처 : 조선왕조실록, 「상왕이 대마도를 정벌할 것에 대해 중외에 교유하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9일 임오 5번째 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국사편찬위원회

정대마도교서

상왕이중외에교유하기를병력을기울여무력을행하는것은진실로성현이경계한것이요죄있는이를다스리고군사를일으키는것은제왕으로서부득이한일이라옛적에성탕이농사를제쳐놓고하나라를정벌하고주나라선왕이더운유월에험운을토벌했으니그일에있어비록대소는 다르나모두가죄를토벌하는거사라는점에서는한가지다대마도는본래우리나라땅이나다만공벽하게막혀있고또좁고누추하므로왜놈들이거류하게두었더니개같이도적질하고쥐같이흠치는버릇을가지고경인년부터변경에뒤눌기시작하여마음대로군인과민간인을살해하고부형을잡아가고그집에불을질러서고아와과부가바다를바라보우는일이해마다없는때가없었다뜻있는선비와어진사람들이팔뚝을걸어붙이고탄식하며그고기를먹고그가죽위에서숙식하기를생각함이여러해이다생각하건대우리태조강헌대왕이용이나는천운에응하여위덕이널리퍼지고빛나서어루만지고편안하게해주는덕을입어그렇지않으리라믿었더니그음흉하고탐욕이많은버릇이더욱방자하여그치지않았다병자년에는동래병선십여척을탈취하고군사를살해하였으며내가대통을이어즉위한이후병술년에는전라도에무자년에는충청도에들어와서혹은운수하는물품을빼앗고혹은병선을불사르며만호를죽이기까지하니그포함함이극에달하였다제주에다시들어와살상함도또한많았으니이는기분이좋으면사람같지만성이나면짐승이되는자들로서간교한생각을숨기고있

기때문이라신과사람이한가지로분개하는바이다내가도리어저들의거칠고더러움을널리포용하여자잘하게따지지않고저들의배고픈것도구제해주고저들과통상을허락하기도하였으며무릇요구하는것이있으면들어주지않은것이없어서다같이살아가기를기약하였노라뜻밖에이제또우리나라의허실을엿보아비인포에몰래들어와서인민거의삼백여명을죽이고노략질하였으며배를불사르고우리장사를해치고황해에떠서평안도까지이르러우리백성들을소란하게하며장차명나라지경까지범하고자하니그은혜를잇고의리를배반하며하늘의뜻뻗힌도리를어지럽게함이너무심하지아니한가내가생을좋아하는마음으로한사람이라도살곳을잃어버리는것을오히려하늘과땅에죄를짓는것같이두려워하거든하물며이제왜구가탐독한행동을제멋대로하여뭇백성을학살하여천벌을자청하여도오히려용납하고참아토벌하지않는다면어찌나라에서사람이있다하겠는가이제한창농사짓는달을맞아장수를보내출병하여그죄를바로잡으려하는것은또한부득이해서하는일이다아아간흉한무리를쓸어버리고생명을수화에서건지고자하여기에이롭고해로움을말하여나의뜻을일반신민들에게널리알리노라

세종일년유월구일

서기이천이십이년오월재민박재갑쓰다

정대마도교서 : 김채식 박사와 박갑수 교수의 도움으로 문장을 일부 수정하였다.

征對馬島教書

上王教中外曰

窮兵黷武固聖賢之所戒討罪興師非帝王之獲已昔成湯舍穡事而征有夏宣王以六月而伐玁狁其事雖有大小之殊然其皆爲討罪之舉則一而已矣對馬爲島本是我國之地但以阻僻隘陋聽爲倭奴所據乃懷狗盜鼠竊之計歲自庚寅始肆跳梁於邊徼虔劉軍民俘虜父兄火其室屋孤兒寡婦哭望海島無歲無之志士仁人扼腕歎息思食其肉而寢其皮蓋有年矣惟我太祖康獻大王龍飛應運威德光被撫綏相信然其凶狠貪婪之習囂然未已歲丙子攘奪東萊兵船二十餘隻殺害軍士予承大統卽位以後歲丙戌於全羅道歲戊子於忠清道或奪漕運或燒兵船至殺萬戶其暴極矣再入濟州殺傷亦衆蓋其好人怒獸包藏姦狡之念神人所共憤也予尙包荒含垢不與之校賑其飢饉通其商賈凡厥需索無不稱副期于竝生不意今又窺覘虛實潛入庇仁之浦殺掠人民幾三百餘燒焚船隻戕害將士浮于黃海以至平安擾亂吾赤子將犯上國之境其忘恩背義悖亂天常豈不甚哉以予好生之心苟有一夫之失所猶恐獲戾于上下矧今倭寇肆行貪毒賊殺群黎自速天禍尙且容忍不克往征猶爲國有人乎今當農月命將出師以正其罪蓋亦不得已焉爾矣於戲欲掃姦兇拯生靈於水火斯陳利害諭予志于臣民

世宗一年六月九日

西紀二千二十二年五月在民朴在甲書

2. 징비록 서문懲毖錄自書 Preface to the Book of Correction

징비록서문

징비록이란 무엇인가 임진왜란 이후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임진왜란 전에 있었던 것도 이따금 기록한 것은 임진왜란이 시작되어 유를 궁구하여 보려는 까닭이다 아 임진왜란의 재앙은 참혹했다 일흔남짓 사이에 한양 개성 평양을 지키지 못했고 팔도가 와해되었으면서 조임금이 서울을 떠나 피란을 나왔다 그리고 도우리나라가 오늘 날이 있게 된 것은 하늘이 드왔기 때문이다 또한 신대여러 임금들의 어질고 두터운 덕이 백성들에게 굳게 맺혀어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았고 임금께서 명나라를 섬기는 정성이 신중 황제를 감동시켜우리나라를 보존해주기 위하여 중국의 군대가 여러 차례 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럴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위태로웠을 것이다 시정에 말하기를 내가 큰 상치를 입었으므로 쫓겨난을 대비하노라 하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징비록을 저술하게 된 까닭이다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지러운 나라 통에 나라의 중책을 맡아서 그 위태로움을 바로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형세를 볼잡지 못했으니 그 죄는 죽어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시골구석에서 살아가며 구차하게 묵숨을 이어가고 있으니 어찌 임금님의 너그러운 신은 전이 아니겠는가 걱정을 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조금 진정되어 지난날의 일을 생각하니 황공하고 부끄러워 몸을 바를 모르겠다 이에 한가한 틈을 이용하여 귀와 눈으로 듣고 본 것을 임진년부터 무술년에 이르기까지 대략 서술하니 모두 약간이 되었고 어서 장계와 소차와 문이 밋잡록을 그 뒤에 붙였다 비록 불만 한 것은 못되나 모두 그 당시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므로 버릴 수가 없었다 이것으로 내가 시골에 살면서 나라에 충성하고 자하는 간절한 뜻을 나타내고 또 어리석은 신하가 나라에 보답하지 못한 죄를 드러내는 바이다

선조 삼십칠년 서기 일천육백사년 서에 류성룡 짓고

서기 이천이십이년 재민박재감 읍겨 쓰다

懲毖錄自書

懲毖錄者何記亂後事也其在亂前者往往亦記所以本其始也嗚呼壬辰之禍慘矣決旬之間三都失守八方瓦解乘輿播越其得有今日天也亦由祖宗仁厚之澤固結於民而思漢之心未已聖上事天之誠感動皇極而存邢之師屢出不然則殆矣詩曰予其懲而毖後患此懲毖錄所以作也若余者以無似受國重任於流離板蕩之際危不持顛不扶罪死無赦尙視息田畝間苟延性命豈非寬典憂悸稍定每念前日事未嘗不惶愧靡容乃於閑中粗述其耳目所逮者自壬辰至于戊戌總若干言因以狀啓疏劄文移及雜錄附其後雖無可觀者亦皆當日事蹟故不能去既以寓賦畝懔懔之意又以著愚臣報國無狀之罪云

宣祖三十七年西紀一千六百四年西厓柳成龍著

西紀二千二十二年在民朴在甲書

작품 크기 : 90.0x60.0cm

자료 제공 : 한국국학진흥원

징비록서문

징비록이란 무엇인가 임진왜란이 발생한 후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임진왜란 전에 있었던 것도 이따금 기록한 것은 임진왜란이 시작된 이유를 궁구해보려는 까닭이다. 아 임진왜란의 재앙은 참혹했다. 열흘 남짓 사이에 한양 개성 평양을 지키지 못했고 팔도가 와해되었으며 선조 임금께서 서울을 떠나 피란을 나갔는데 그리고 도 우리나라가 오늘날이 있게 된 것은 하늘이 도왔기 때문이다. 또한 선대 여러 임금들의 어질고 두터운 은덕이 백성들에게 굳게 맺어져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았고 임금께서 명나라를 섬기는 정성이 신종 황제를 감동시켜 우리나라를 보존해 주기 위하여 중국의 군대가 여러 차례 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위태로웠을 것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내가 큰 상처를 입었으므로 뒷날의 환난을 대비하노라 하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징비록을 저술하게 된 까닭이다. 나와 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이 어지러운 난리 통에 나라의 중책을 맡아서 그 위태로움을 바로 잡지 못하고 넘어서는 형세를 붙잡아 주지 못했으니 그 죄는 죽어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아직도 시골 구석에서 살아가며 구차하게 목숨을 이어가고 있으니 어찌 임금님의 너그러우신 은전이 아니겠는가.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조금 진정되어 지난날의 일을 생각하니 황공하고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이에 한가한 틈을 이용하여 귀와 눈으로 듣고 본 것을 임진년부터 무술년까지에 이르기까지 대략 서술하니 모두 얼마가량 되었고 이어서 장계와 소차와 문이 및 잡록을 그 뒤에 붙여 놓았다. 비록 불 만한 것은 없지만 모두 그 당시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므로 버릴 수가 없었다. 이것으로 내가 시골에 살면서 나라에 충성하고자 하는 간절한 뜻을 나타내고 또 어리석은 신하가 나라에 보답하지 못한 죄를 드러내는 바이다.

선조 삼십칠년 서기 일천육백사년 서애 류성룡

서기 이전이십일년 재민 박재갑 쓰다

懲毖錄自書

懲毖錄者何記亂後事也其在亂前者往往亦記所以本其始也嗚呼壬辰之禍慘矣浹旬之間三都失守八方瓦解乘輿播越其得有今日天也亦由祖宗仁厚之澤固結於民而思漢之心未已聖上事大之誠感動皇極而存邢之師屢出不然則殆矣詩曰予其懲而毖後患此懲毖錄所以作也若余者以無似受國重任於流離板蕩之際危不持顛不扶罪死無赦尚視息田畝苟苟延性命豈非寬典憂悸稍定每念前日事未嘗不慙愧靡容乃於閑中粗述其耳目所逮者自壬辰至于戊戌總若干言因以狀啓疏劄文移及

雜錄附其後雖無可觀者亦皆當日事蹟故不能去既以寓畎畝惓惓忠之意又以著愚臣報國無狀之罪云

宣祖三十七年西紀一千六百四年西厓柳成龍著

西紀二千二十一年在民朴在甲書

징비록 서문

징비록이란 무엇인가 임진왜란이 발생한 후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임진왜란 전에 있었던 것도 이따금 기록한 것은 임진왜란이 시작된 이유를 궁구해보려는 까닭이다. 아 임진왜란의 재앙은 참혹했다. 열흘 남짓 사이에 한양, 개성, 평양을 지키지 못했고 팔도가 와해되었으며 선조 임금이 서울을 떠나 피란을 나갔는데 그리고 도 우리나라가 오늘날이 있게 된 것은 하늘이 도왔기 때문이다. 또한 선대 여러 임금의 어질고 두터운 은덕이 백성들에게 굳게 맺어져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았고 임금께서 명나라를 섬기는 정성이 신종 황제를 감동하게 해 우리나라를 보존해 주기 위하여 중국의 군대가 여러 차례 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위태로웠을 것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내가 큰 상처를 입었으므로 뒷날의 환난을 대비하노라 하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징비록을 저술하게 된 까닭이다. 나와 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이 어지러운 난리 통에 나라의 중책을 맡아서 그 위태로움을 바로 잡지 못하고 넘어서는 형세를 붙잡아 주지 못했으니 그 죄는 죽어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아직도 시골 구석에서 살아가며 구차하게 목숨을 이어가고 있으니 어찌 임금님의 너그러우신 은전이 아니겠는가.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조금 진정되어 지난날의 일을 생각하니 황공하고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이에 한가한 틈을 이용하여 귀와 눈으로 듣고 본 것을 임진년부터 무술년까지에 이르기까지 대략 서술하니 모두 얼마가량 되었고 이어서 장계와 소차와 문이 및 잡록을 그 뒤에 붙여 놓았다. 비록 불 만한 것은 없지만 모두 그 당시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므로 버릴 수가 없었다. 이것으로 내가 시골에 살면서 나라에 충성하고자 하는 간절한 뜻을 나타내고 또 어리석은 신하가 나라에 보답하지 못한 죄를 드러내는 바이다.

선조 삼십칠년 서기 일천육백사년 서애 류성룡

서기 이전이십일년 재민 박재갑 쓰다

김채식, 박갑수 국역, 개인 교신

3. 선조국문유서 宣祖國文諭書 Royal edict of King Seonjo written in Hangeul

백성에게 이르른 글이라

임금이 이르시되 너희 귀에 왜적에게 쫓겨서 이르인하여 왜적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너희 본마음이 아니라 왜
 적의 주둔처에서 도망쳐나오다가 왜적에게 들켜 죽을 까도 여기며 도리어 의심하되 왜적에게 들었던 것이니 우
 리나라에서 죽일 까도 두려워이제 왜적에 들어가나 오지 아니하니 이케는 너희들 그런의심을 먹지 말고서 로 권
 하여 다나오면 너희를 각별히 죄주지 않을뿐 아니라 그 가운데 왜적들을 잡아나오거나 왜적이하는 일을 자세히 알
 아서나오거나 로로가 된사람을 많이더 불어나오거나 아무런 공이 따도 있으면 양민과 천민은 물론하여 벼슬도
 시킬 것이니 너희들 생심도 전에 먹던마음을 먹고 말고 빨리나오라 이 뜻을 각처 장수들에게 다 알려 놓았으니 생
 심도의 심말고 모두나오라 너희 중에 실마더 버이와 처자식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들 살던데 돌아와 옛날
 대로도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제 곧아나오면 왜적에게도 죽을 것이요 나라가 평정한 후면 너희들 돌아와 옛날
 치겠는가 하물며 당병이 황해도와 평안도에 가득했고 경상전라도에 가득히 있어 왜적들이 곧 빨리 깨 땅에 아나
 건너가면 근간에 명나라군사와 합병하여 부산동래에 있는 왜적들을 다 칠뿐아니라 명나라지 원해군 배와 우리
 나라 배를 합하여 바로 왜나라에 들어가다 토벌할 것이니 그때면 너희들 조차 활쓸려 죽을 것이니 너희서로 일러
 서 그 전에 빨리나오라

만력이 심일수록 기일천오백구십삼년 구월 일

서기이천이십년시월신조임금의국문유서를무간박재잡쓰다

백성에게 이르는 글이라.

임금이 이르시되

너희 처음에 왜적에게 쫓겨서 이로 인하여 왜적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너희 본마음이 아니라 왜적의 주둔처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왜적에게 들켜 죽을까도 여기며, 도리어 의심하되 왜적에게 들었던 것이니 우리나라에서 죽일까도 두려워 이제 왜진에 들어가 나오지 아니 하니 이제 너희들 그런 의심을 먹지 말고 서로 권하여 다 나오면 너희를 각별히 죄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왜적을 잡아 나오거나 왜적이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서 나오거나 포로가 된 사람을 많이 더불어 나오거나 아무런 공이라도 있으면 양민과 천민은 물론하여 벼슬도 시킬 것이니 너희들 생심도 전에 먹던 마음을 먹지 말고 빨리 나오라.

이 뜻을 각처 장수들에게 다 알려놓았으니 생심도 의심 말고 모두 나오

라. 너희 중에 설마 다 어버이와 처자식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들 살던 데 돌아와 옛날대로 도로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제 곧 아니 나오면 왜에게도 죽을 것이고 나라가 평정한 후면 너희들 아니 뉘우치겠는가?

하물며 당병이 황해도와 평안도에 가득했고 경상 전라도에 가득히 있어 왜적들이 곧 빨리 제 땅에 아니 건너가면 근간에 명나라 군사와 합병하여 부산 동래에 있는 왜적들을 다 칠 뿐 아니라 명나라 지원 해군 배와 우리나라 배를 합하여 바로 왜나라에 들어가 다 토벌할 것이니 그때면 너희들조차 휩쓸려 죽을 것이니 너희 서로 일러서 그 전에 빨리 나오라.

만력 이십일년 서기 일천오백구십삼년 구월

서기 이천이십년 시월 선조 임금의 국문유서를 무간 박재갑쓰다

작품 크기 : 91.0x59.0cm

자료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 92~93쪽

4. 고종이 지어 팔도와 사도의 노인과 백성들에게 내린 윤음 御製諭八道四都耆老人民等諭音 Message of King Gojong

고종이 지어 팔도와 사도의 노인과 백성들에게 내린 윤음
 임금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덕한 내가가람되어 백성의 위와 의탁한 지 얼마 후 해라 덕을 밝히지 못하여 정사를 손실하였기에 백성이
 흠여지고 허물어 위로 쌓이고 양화가 몸에 모이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불러온 바이니 비록 누워 있는 자도 무수소용이 있으리라 오임금의 자리에 올
 라지금까지 오면서 크게 토목공사를 일으켜 백성에게 재물을 억지로 거두어 서가난 하거나 부유한 모두로 하여금 다 피곤하게 하였으니
 그것도 나의 죄요 여러 번 돈을 고쳐 내고 죄없는 백성을 많이 죽였으니 이것도 나의 죄요 사당파서 원물 허물고 철패하여 충현에게 제사를 못하
 게 하였으니 이 도 나의 죄요 좋아하는 물품을 널리 구하고 상을 주고 하사하는 일을 무분별하게 하였으니 이 도 나의 죄요 기도하는 일을 지
 나치게 믿고 헛되이 내탕고의 재물을 허비하였으니 이 도 나의 죄요 사람쓰기를 널리 못하고 종친과 외척만 숭상하니 이 도 나의 죄요 궁궐
 의 위엄이 엄숙하지 못하여 궁녀와 환시가는 태을 간섭하니 이 도 나의 죄요 뇌물을 주고 받음이 드러나게 행하되 탐관오리를 징계하지 못하
 고 가난한 백성이 근심하고 피로 운정상이 위에 도달하지 못하니 이것도 나의 죄요 죄측한 재물이 오래 비어서 군사와의 아전이 막을 것을 잃고
 공가를 부족하게 하는 일이 많으며 사정상이 폐업하니 이 도 나의 죄요 각국에서 우호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예 세워지지 않았으니 이 도
 행을 계획하고 조처하기가 법에 어그러져서 한갓 백성에게 의혹을 더하였으니 이 도 나의 죄요 마침내 신령이 노하시므로 사림이 원망
 하여 온갖 변고가 쏟아져 나왔사람이 뒷사람을 업수이여 기매제양이 유친에까지 미쳐서 위로 천자에 계 근심을 끼치고 아래로 만민에 사는 것
 을 요란하게 하고 신의 불이 옷나라에 잃어 버리고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니 이 도 또한 나의 죄이다 아나의 죄가 이에 이르니 오히려 무슨 면무
 으로 다시 온나라 신하 백성을 대하리 오슬로고 두렵고 부끄럽고 몹시 두려워실로 임금이 즐거움이었으니 오직 너희대 소신민들
 이 즐거이 나의 이전의 허물을 용서하고 내가 스스로 새로이 하려는 것을 허락할까 보나 나도 장차 마음껏 고생하기를 함께 하여 말문을 지게
 하고 뒷일을 삼가서 청사와 명령이 전으로 부터 백성에게 편하지 못한 것들은 모두 제거할 것이요 어진 관리들을 기리고 화일을 힘쓰고 아름다운 것
 으로 고해준다면 말씀이 비록 함당하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책망할 리 없으니 만약 앞의 허물을 고치고 바로 잡아 한가지로 큰 기업을 지킨다면
 종로 사직에 큰 다행이겠다 이제 수천 백사가 바다를 건너 오매 난역한 눈을 토죄하되 무력을 행사함을 극단적으로 아니 하고 나 머지 무리를 너
 그로 이용서 하여 잔차나 라안에 크게 서면을 내려 한가지로 더불어 새롭게 하리 나 도 바야흐로 허물을 뉘우치 매어 느껴를 사람을 책망하
 리 오나 나 라를 흥하게 함도 항상 여기 서할 것이요 나 라를 망하게 함도 항상 여기 서할 것이 다 평안하고 위태한 기들이 두려워하기가 한터럭과
 같으며 오히려가 허경계하지 아니 하겠는가 이제 깨마 음을 터 놓고 고 하니 생각건대 마땅히 다 말하지 않다

고종 십구년 서기 일천팔백팔십이년 칠월이십일
 서기 이천이십년 서월무간 박재갑 쓰다

작품 크기 : 128.0x70.0cm

자료 출처 : 한재영, 심보경, 『어제유팔도사도기로운민등윤음』, 『역주 윤음 언해 제2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7년, 347~355쪽

전시 : 『명사서예전』, 『제13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21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2021. 11. 05. ~ 12. 05., 251쪽

고종이 지어 팔도와 사도의 노인과 백성들에게 내린 윤음

임금이 이렇듯이 말씀하시기를, 아! 부덕한 내가 외람되이 백성의 위에 의탁한 지 열아홉 해라. 덕을 밝히지 못하여 정사를 손실하였기에, 백성이 흠어지고 허물이 위로 쌓이고 양화가 몸에 모이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불러온 바이니 비록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임금의 자리에 올라 지금까지 오면서, 크게 토목공사를 일으켜 백성에게 재물을 억지로 거두어서, 가난하거나 부유한 모두로 하여금 다 피곤하게 하였으니 이것도 나의 죄요, 여러 번 돈을 고치고 죄 없는 백성을 많이 죽였으니 이것도 나의 죄요, 사당과 서원을 허물고 철폐하여 충현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였으니 이도 나의 죄요, 좋아하는 물품을 널리 구하고 상을 주고 하사하는 일을 무분별하게 하였으니 이도 나의 죄요, 기도하는 일을 지나치게 믿고, 헛되이 내탕고의 재물을 허비하였으니 이도 나의 죄요, 사람 쓰기를 널리 못하고 종친과 외척만 숭상하니 이도 나의 죄요, 궁궐의 위엄이 엄숙하지 못하여 궁녀와 환시가 은택을 간섭하니 이도 나의 죄요, 뇌물을 주고받음이 드러나게 행하되 탐관오리를 징계하지 못하고, 가난한 백성이 근심하고 괴로운 정상이 위에 도달하지 못하니 이것도 나의 죄요, 저축한 재물이 오래 비어서 군사와 아전이 먹을 것을 잃고 공가를 부족하게 하는 일이 많으며 시장 상인이 폐업하니 이도 나의 죄요, 각국을 이어 우호관계를 이루는 것이 이에 시세에 마땅한 일이나, 시행을 계획하고 조처하기가 법에 어그러져서 한갓 백성에게 의혹을 더하였으니 이도 나의 죄이니라. 마침내는 신령이 노하시고 사람이 원망하여 온갖 번고가 쏟아져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수이 여기매 재앙이 육친에까지 미쳐서, 위로 천자에게 근심을 끼치고 아래로 만민에 사는 것을 요란하게 하고, 신의를 이웃나라에 잃어버리고,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니, 이도 또한 나의 죄이다. 아! 나의 죄가 이에 이르니 오히려 무슨 면목으로 다시 온 나라 신하 백성을 대하리오? 슬프고 두렵고, 부끄럽고 몹시 두려워, 실로 이 임금으로 누리는 즐거움이 없으니, 오직 너희 대소 신민들이 즐거이 나의 이전의 허물을 용서하고, 내가 스스로 새로이 하려는 것을 허락할까 보냐? 나도 장차 마음을 찢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앞일을 징계하고 뒷일을 삼가서 정사와 명령이 전으로부터 백성에게 편하지 못한 것들은 모두 제거할 것이요,

어진 관리를 가리어 모든 생민을 기르매, 실제로 효험을 강구하여 온 나라 백성으로 더불어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생각하니, 너희 무리도 또한 마땅히 각각 너희 일에 힘쓰고 아름다운 의견으로 고해 준다면 말쑥이 비록 합당하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책망할 리 없으니, 만약 앞의 허물을 고치고 바로 잡아 한가지로 큰 기업을 지킨다면 종묘사직에 큰 다행이겠다. 이제 수천 병사가 바다를 건너오매 난역한 놈을 토죄하되, 무력을 행사함을 극단적으로 아니 하고, 나머지 무리를 너그러이 용서하여, 장차 나라 안에 크게 사면을 내려, 한가지로 더불어 새롭게 하리니, 나도 바야흐로 허물을 뉘우치매 어느 겨울에 사람을 책망하리오? 아! 나라를 흥하게 함도 항상 여기서 할 것이요, 나라를 망하게 함도 항상 여기서 할 것이다. 평안하고 위태한 기틀이 두려워하기가 한 터럭과 같으며, 오히려 가히 경계하지 아니하겠는가? 이제 마음을 터놓고 고하니, 생각건대 마땅히 다 알지어다.

고종 19년(1882년) 7월 20일

高宗(朝鮮) 撰, 『어제유팔도사군기로인민등윤음』, 『御製諭八道四郡耆老人民等諭音』, 奎2061, 1冊(5張), 高宗19年(188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82년(高宗 19) 7월 20일 高宗이 전국의 백성들에게 내린 윤음이다. 본 奎章閣 소장본은 3種 ([奎2061.3164,7862])이 있는데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冊 末尾에는 諺解가 첨부되어 있다. 내용은 高宗이 왕위에 오르지 19년이 되는 동안 不德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失政, 즉 <自嗣服以來大興土木勤斂民財使貧富俱困>, <屢改錢幣多殺無辜>, <毀撤祠院忠賢不祀> 등의 여러 條目을 들면서, 이제 洗心滌慮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훌륭한 관리들을 택하고, 실효성 있는 政治를 펴보겠다는 내용의 뜻을 담고 있다. 본서는 開港 이후 外勢의 韓半島 간여, 大院君의 攝政, 壬午軍亂을 비롯한 복잡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高宗이 스스로 실정失政으로 들고 있는 여러가지 조목條目은 대부분 大院君에 의해 주도된 治政을 들고 있는 점은 임오군란 壬午軍亂 이후 대원군大院君의 청淸나라 압송과 함께 민비세력閔妃勢力 등의 등장과 일정한 관련을 맺으면서 본 윤음이 반포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이 된다고 하겠다.

삼일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오천년 동안 이어 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 하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이면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십년이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가 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쳐 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그 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 올 위협을 없애 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가 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적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룰 수 있다.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일천 팔백 칠십 육 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 도바쁜 우리에게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 도급해서 과거의 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결코 오랜 원한과 한 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 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다름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국민 통계를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 좋은 세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을분과 원한에 사무친 이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사역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

하게 하여 결국동양전체를함께망하는비극으로이끌것이분명하다오늘우리조선의독립은조선인이정당한번영을이루게하는것인동시에일본이잘못된길에서빠져나와동양에대한책임을다하게하는것이
 다또중국이일본에땅을빼앗길것이라는불안과두려움으로부터벗어나게하는것이며세계평화와인류
 행복의중요한부분인동양평화를이룰발판을마련하는것이다조선의독립이어찌사소함감정의문제인
 가 아새로운세상이눈앞에펼쳐지는구나힘으로억누르는시대가가고도의가이루어지는시대가오는
 구나지난수천년갈고담으며길러온인도적정신이이제새로운문명의밝아오는빛을인류역사에비추기
 시작하는구나새봄이온세상에다가와모든생명을다시살려내는구나공공언어음과차디찬눈보라에숨
 막혔던한시대가가고부드러운바람과따뜻한별에기운이돋는새시대가오는구나온세상의도리가다시
 살아나는지금세계변화의흐름에올라탄우리는주저하거나거리낄것이없다우리는원래부터지닌자유
 권을지켜서풍요로운삶의즐거움을마음껏누릴것이다원래부터풍부한독창성을발휘하여봄기운가득
 한세계에민족의우수한문화를꽃피울것이다 그래서우리는떨쳐일어나는것이다양심이나와함께있
 으며진리가나와함께나아간다남녀노소구별없이어둡고낡은옛집에서뛰어나와세상모두와함께즐겁
 고새롭게되살아날것이다수천년전조상의영혼이안에서우리를돕고온세계의기운이밖에서우리를지
 켜주니시작이곧성공이다다만저앞의밝은빛을향하여힘차게나아갈뿐이다

세가지약속

- 하나 오늘우리의독립선언은정의와인도와생존과존영을위한민족의요구이니
 오직자유로운정신을드날것이야결코배타적감정으로함부로행동하지말라
- 하나 마지막한사람까지마지막한순간까지민족의정당한뜻을마음껏드러내라
- 하나 모든행동은질서를존중하여우리의주장과태도를뒤편하고정당하게하라

조신을세운지사천이백오십이년삼월일일 서기일천구백십구년삼월일일

조선민족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서기이천이십일년팔월재민박재갑쓰다 卍

작품 크기 : 114.5x62.0cm

자료 출처 :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19년 1월

전시 : 『함께 쓰기 - 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1. 11. 2. ~ 12. 14.

3·1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오천 년 동안 이어 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천 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십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 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 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가 겨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게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이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사역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변명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에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를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 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같고 님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뽕뽕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 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별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

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 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 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1919년 3월 1일)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서기 이천이십일년 팔월 재민 박재갑 쓰다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19년 1월 펴낸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

조선 : 우리나라

조선인 : 우리나라 사람

도의 : 인도와 정의

존영 : 고귀하고 세상에 빛남

나今日吾人の朝鮮獨立은朝鮮人으로서하야金正當한生榮을遂케하는同時에日本으로하야
 金邪路로서出하야東洋支持者인重責을全케하는것이며支那로하야金夢寐에도免하지못
 하는不安恐怖로서脫出케하는것이며亞東洋平和로重要한一部를삼는世界平和人類幸福
 에必要한階段이되게하는것이라이엇지區區한感情上問題—리오
 아아新天地가眼前에展開되도다威力의時代가去하고道義의時代가來하도다過去全世紀
 에鍊磨長養된人道的精神이바야흐로新文明의曙光을人類의歷史에投射하기始하도다新
 春이世界에來하야萬物の回蘇를催促하는도다凍氷寒雪에呼吸을閉塞한것이彼一時의勢
 |라하면和風暖陽에氣脈을振舒함은此一時의勢—니天地의復運에際하고世界的變潮를
 乘한吾人은아모躊躇할것업스며아모忌憚할것업도다我的固有한自由權을護全하야生旺
 의樂을飽享할것이며我的自足한獨創力을發揮하야春滿한大界에民族의精華를結紐할지
 로다

吾等이茲에奮起하도다良心이我和同存하며眞理가我和并進하는도다男女老少업시陰鬱
 한古巢로서活潑히起來하야萬彙羣象으로더부러欣快한復活을成遂하게되도다千百世祖
 靈이吾等を陰佑하며全世界氣運이吾等を外護하니着手가곳成功이라다만前頭의光明
 으로驀進할싸름인디

公約 三章

- 一. 今日吾人の此舉는正義, 人道, 生存, 尊榮을爲하는民族的要求—니오즉自由의精神
 神을發揮할것이오決코排他的感情으로逸走하지말라
- 一. 最後의一人까지最後의一刻까지民族의正當한意思를快히發表하라
- 一. 一切의行動은가장秩序를尊重하야吾人の主張과態度로하야金어대까지던지光明
 正大하게하라

朝鮮建國四千二百五十二年三月 日

朝鮮民族代表

孫秉熙	吉善宙	李弼柱	白龍城	金完圭
金秉祚	金昌俊	權東鎮	權秉惠	羅龍煥
羅仁協	梁甸伯	梁漢默	劉如大	李甲成
李明龍	李昇薰	李鍾勳	李鍾一	林禮煥
朴準承	朴熙道	朴東完	申洪植	申錫九
吳世昌	吳華英	鄭春洙	崔聖模	崔麟
韓龍雲	洪秉箕	洪基兆		

西紀二千二十一年六月在民朴在甲스다 

작품 크기 : 59.5x114.5cm

자료 제공 : 유흥준

전시 : 『함께 쓰기 - 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1. 11. 2. ~ 12. 14.

宣言書

吾等은茲에我朝鮮의獨立國임과朝鮮人의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此로써世界萬邦에告하야人類平等의大義를克明하며此로써子孫萬代에誥하야民族自存의正權을永有케하노라半萬年歷史의權威를仗하야此를宣言함이며二千萬民衆의誠忠을合하야此를佈明함이며民族의恒久如一한自由發展을爲하야此를主張함이며人類的良心의發露에基因한世界改造의大機運에順應并進하기爲하야此를提起함이니是一天의明命이며時代の大勢이며全人類共存同生權의正當한發動이라天下何物이던지此를沮止抑制치 못할지니라

舊時代의遺物인侵略主義強權主義의犧牲을作하야有史以來累千年에 처음으로異民族箝制의痛若를嘗한지今에十年을過한지라我生存權의剝喪됨이무릇幾何이며心靈上發展의障礙됨이무릇幾何이며民族의尊榮의毀損됨이무릇幾何이며新銳와獨創으로써世界文化의大潮流에寄與補裨할機緣을遺失함이무릇幾何一노

噫라舊來의抑鬱을宣暢하려하면時下의若痛을擺脫하려하면將來의脅威를芟除하려하면民族의良心과國家의廉義의壓縮銷殘을興奮伸張하려하면各個人格의正當한發達을遂하려하면可憐한子弟에게若恥의財産을遺與치안이하려하면子子孫孫의永久完全한慶福을導迎하려하면最大急務가民族의獨立을確實케함이니二千萬各個人마다方寸의刃을懷하고人類通性과時代良心이正義의軍과人道의干戈로써護援하는今日吾人은進하야取하야何強을挫치못하라退하야作하야何志를展치못하라

丙子修好條規以來時時種種의金石盟約을食하얏다하야日本의無信을罪하려안이하노라學者는講壇에서政治家는實際에서我祖宗世業을植民地視하고我文化民族을土味人遇하야한갓征服者의快를貪할뿐이오我的久遠한社會基礎와阜榮한民族心理를無視한다하야日本의少義함을責하려안이하노라自己를策勵하기에急한吾人은他的怨尤를暇치못하노라現在를綱繆하기에急한吾人은宿昔의懲辦을暇치못하노라今日吾人의所任은다만自己의建設이有할뿐이오決코舊怨과一時的感情으로써他를嫉逐排斥함이안이로다舊思想舊勢力에羈縻된日本爲政家の功名的犧牲이된不自然又不合理的錯誤狀態를改善匡正하야自然又合理的正經大原으로歸還케함이로다當初에民族의要求로서出지안이한兩國併合의結果가畢竟姑息의威壓과差別的의不平과統計數字上虛飾의下에서利害相反한兩民族間에永遠히和同할수업는怨溝를去益深造하는今來實績을觀하라勇明果敢으로舊誤를廓正하고眞正한理解와同情에基本한友好的新局面을打開함이彼此間遠禍召福하는捷徑임을明知할것안인가在二千萬含憤蓄怨의民을威力으로써拘束함은다만東洋의永久한平和를保障하는所以가안일뿐안이라此로因하야東洋安危의主軸인四億萬支那人의日本에對한危懼와猜疑를갈수록濃厚케하야그結果로東洋全局이共倒同亡의悲運을招致할것이明하

宣言書

吾等은 茲에 我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 此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노라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仗하야 此를 宣言함이며 二千萬民衆의 誠忠을 合하야 此를 佈明함이며 民族의 恒久如一한 自由發展을 爲하야 此를 主張함이며 人類의 良心의 發露에 基因한 世界改造의 大機運에 順應并進하기 爲하야 此를 提起함이니 是 | 天의 明命이며 時代의 大勢 | 며 全人類 共存 同生權의 正當한 發動이라 天下何物이던지 此를 沮止 抑制치 못할지니라

舊時代의 遺物인 侵略主義 強權主義의 犧牲을 作하야 有史以來 累千年에 처음으로 異民族 箝制의 痛苦를 嘗한지 今에 十年을 過한지라 我生存權의 剝喪됨이 무릇 幾何 | 며 心靈上 發展의 障礙됨이 무릇 幾何 | 며 民族의 尊榮의 毀損됨이 무릇 幾何 | 며 新銳와 獨創으로써 世界文化의 大潮流에 寄與 補裨할 機緣을 遺失함이 無幾何 | 뇨

噫라 舊來의 抑鬱을 宣暢하려 하면 時下의 苦痛을 擺脫하려 하면 將來의 脅威를 芟除하려 하면 民族의 良心과 國家의 廉義의 壓縮 銷殘을 興奮 伸張하려 하면 各個人格의 正當한 發達을 遂하려 하면 可憐한 子弟에게 苦恥의 財産을 遺與치안이 하려 하면 子子孫孫의 永久 完全한 慶福을 導迎하려 하면 最大 急務가 民族의 獨立을 確實케 함이니 二千萬 各個人마다 方寸의 刀을 懷하고 人類 通性과 時代 良心이 正義의 軍과 人道의 干戈로써 護援하는 今日 吾人은 進하야 取하매 何強을 挫치 못하랴 退하야 作하매 何志를 展치 못하랴

丙子 修好條規以來 時時 種種의 金石盟約을 食하얏다 하야 日本의 無信을 罪하려 안이하노라 學者는 講壇에서 政治家는 實際에서 我祖宗 世業을 植地 視하고 我文化 民族을 土味人 遇하야 간헐한 征服者의 快를 貪할뿐이오 我의 久遠한 社會基礎와 卓犖한 民族心理를 無視한다 하야 日本의 少義함을 責하려 안이하노라 自己를 策勵하기에 急한 吾人은 他의 怨尤를 暇치 못하노라 現在를 綱繆하기에 急한 吾人은 宿昔의 懲辦을 暇치 못하노라 今 吾人의 所任은 다만 自己의 建設이 有할뿐이오 決코 他의 破壞에 在치안이 하도다 嚴肅한 良心의 命令으로써 自家의 新運命을 開拓함이오 決코 舊怨과 一時的 感情으로써 他를 嫉逐 排斥함이 안이하도다 舊思想 舊勢力에 羈縻된 日本 爲 政家의 功名의 犧牲이 된不自

然又不合理한 錯誤狀態를 改善匡正하야 自然又合理한 正經大原으로 歸還케 함이로다 當初에 民族의 要求로서 出치안이 한 兩國 併呑의 結果가 畢竟 姑息의 威壓과 差別의 不平和 統計數字上 虛飾의 下에서 利害相反한 兩民族間에 永遠히 和同할 수 업는 怨溝를 去益 深造하는 今來 實績을 觀하라 勇明果敢으로써 舊誤를 廓正하고 真正한 理解와 同情에 基本한 友好의 新局面을 打開함이 彼此間 遠禍 召福하는 捷徑임을 明知할 것안인가 또 二千萬 含憤蓄怨의 民을 威力으로써 拘束함은 다만 東洋의 永久한 平和를 保障하는 所以가 안일뿐안이라 此로 因하야 東洋安危의 主軸인 四億萬支那人의 日本에 對한 危懼와 猜疑를 갈수록 濃厚케 하야 結果로 東洋 全局이 共倒 同亡의 悲運을 招致할 것이 明하니 今日 吾人의 朝鮮 獨立은 朝鮮人으로써 正當한 生榮을 遂케 하는 同時에 日本으로써 亦금 邪路로서 出하야 東洋 支持者인 重責을 全케 하는 것이며 支那로 하야 夢寐에 도免하지 못하는 不安 恐怖로서 脫出케 하는 것이며 또 東洋 平和로 重要한 一部를 삼는 世界 平和 人類幸福에 必要한 階段이 되게 하는 것이니 엇지 區區한 感情上 問題 | 리오

아아 新天地가 眼前에 展開되도다 威力의 時代가 去하고 道義의 時代가 來하도다 過去 全世紀에 鍊磨 長養된 人道의 精神이 바야흐로 新文明의 曙光을 人類의 歷史에 投射하기 始하도다 新春이 世界에 來하야 萬物의 回蘇를 催促하는 도다 凍氷寒雪에 呼吸을 閉塞한 것이 彼一時의 勢

| 라 하면 和風 暖陽에 氣脈을 振舒함은 此一時의 勢 | 니 天地의 復運에 際하고 世界의 變潮를 乘한 吾人은 아모 躊躇할 것 업스며 아모 忌憚할 것 업도다 我의 固有한 自由權을 護全하야 生旺의 樂을 飽享할 것이며 我의 自足한 獨創力을 發揮하야 春滿한 大界에 民族의 精華를 結紐할 지로다

吾等이 茲에 奮起하도다 良心이 我와 同存하며 眞理가 我와 并進하는 도다 男女老少 업시 陰鬱한 古巢로서 活潑히 起來하야 萬彙羣象으로 더부러 欣快한 復活을 成遂하게 되도다 千百世 祖靈이 吾等을 陰佑하며 全世界 氣運이 吾等을 外護하나니 着手가 곳 成功이라 다만 前頭의 光明으로 奮進할 자름인더

公約三章

一. 今日 吾人의 此舉는 正義, 人道, 生存, 尊榮을 爲하는 民族의 要求

니오즉自由의精神을發揮할것이오決코排他的感情으로逸走하지말
라

一. 最後의一人까지最後의一刻까지民族의正當한意思를快히發表하
라

一. 一切의行動은가장秩序를尊重하야吾人의主張과態度로하야금어
대까지던지光明正大하게하라

朝鮮建國四千二百五十二年三月 日 朝鮮民族代表

孫秉熙 吉善宙 李弼柱 白龍城 金完圭 金秉祚

金昌俊 權東鎭 權秉惠 羅龍煥

羅仁協 梁甸伯 梁漢默 劉如大 李甲成 李明龍

李昇薰 李鍾勳 李鍾一 林禮煥

朴準承 朴熙道 朴東完 申洪植 申錫九 吳世昌

吳華英 鄭春洙 崔聖模 崔麟

韓龍雲 洪秉箕 洪基兆

西紀二千二十一年八月在民朴在甲書

『3·1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28일 보성사에서 인쇄되어 3월 1일 배포되었다. 여기
에 실린 『3·1독립선언서』는 보성사판을 따랐지만 조선朝鮮을 선조鮮朝로 잘못 표기
한 부분은 바로 잡았다.

보성사판 원문에는 선조鮮朝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7. 대한민국임시헌장선포문 大韓民國臨時憲章宣佈文
The Proclamation of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大韓民國臨時憲章宣佈文

神人一致且中外協應하여漢城에起義한지三十有日에平和的獨立을三百餘州에
光復하고國民의信任으로完全히나시組織한臨時政府는恒久完全한自主獨立의
福利로我子孫黎民에世傳키爲하여臨時議政院의決議로臨時憲章을宣布하노라

大韓民國臨時憲章

- 第一條 大韓民國은民主共和制로함
- 第二條 大韓民國은臨時政府가臨時議定院의決議에依하여此를統治함
- 第三條 大韓民國의人民은男女貴賤及貧富의階級이無하고一切平等임
- 第四條 大韓民國의人民은信教·言論·著作·出版·結社·集會·信書·住所·移轉·
身體及所有의自由를享有함
- 第五條 大韓民國의人民으로公民資格이有한者는選舉權及被選舉權이有함
- 第六條 大韓民國의人民은教育納稅及兵役의義務가有함
- 第七條 大韓民國은神의意思에依하여建國한精神을世界에發揮하며進하여人
類의文化及平和에貢獻하기爲하여國際聯盟에加入함
- 第八條 大韓民國은舊皇室을優待함
- 第九條 生命刑身體刑及公娼制를全廢함
- 第十條 臨時政府는國土恢復後滿一箇年內에國會를召集함

大韓民國元年四月

日

臨時議政院議長

李東寧

臨時政府國務總理

李承晚

內務總長

安昌浩

外務總長

金奎植

法務總長

李始榮

財務總長

崔在亨

軍務總長

李東暉

交通總長

文昌範

宣佈文

尊敬하고熱愛하난我

二千萬同胞國民의어

民國元年三月一日我大韓民族이獨立을宣言함으로부터男과女와老와少와모든
階級과모든宗派를勿論하고一致코團結하야東洋의獨逸인日本의非人道的暴行
에極미公明하게極미忍辱하게我民族의獨立과自由를渴望하난實思와正義와
人道를愛好하난國民性을表現함지라今에世界의同情이奮然히我國民에集中하
였도다此時를當하여本政府는全國民의委任을受하여組織되었나니本政府는全
國民으로더부러專心코戮力하야臨時憲法과國際道德의命하난바를遵守하야國
土光復과邦基礎國의大使命을果하기를茲에宣稱하노라

同胞國民이여奮起할지여다. 우리의流하난一滴의血이子孫萬代의自由와福榮
의價로神의國의建設의貴한基礎이니라. 우리의人道로日本의野蠻을
教化할지오우리의正義로 마침내日本의暴力을勝할지니同胞여起하여最後의一
人까지闘할지여다

政綱

- 一 民族平等·國家平等及人類平等의大義를宣傳함
- 二 外國人의生命財產을保護함
- 三 一切政治犯人을特赦함
- 四 外國에對한權利義務나民國政府와締結하난條約에一依함
- 五 絕對獨立을誓圖함
- 六 臨時政府의法令을違越하난者는嚴懲으로認함

大韓民國元年四月

日

大韓民國臨時政府

西紀二千二十一年八月在民朴在甲書

작품 크기 : 96.0x54.0cm

자료 출처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05

전시 : 『함께 쓰기 - 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1. 11. 2. ~ 12. 14.

大韓民國臨時憲章宣佈文

神人一致로 中外 協應하야 漢城에 起義한지 三十有日에 平和的 獨立을 三百餘州에 光復하고 國民의 信任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한 臨時政府는 恒久完全한 自主獨立의 福利로 我 子孫黎民에 世傳기 爲하야 臨時議政院의 決議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大韓民國臨時憲章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

第2條 大韓民國은 臨時政府가 臨時議定院의 決議에 依하야 此를 統治함

第3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男女貴賤及 貧富의 階級이 無하고 一切 平等인

第4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信教·言論·著作·出版·結社·集會·信書·住所·移轉·身體及 所有의 自由를 享有함

第5條 大韓民國의 人民으로 公民 資格이 有한 者는 選舉權及 被選舉權이 有함

第6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教育 納稅及 兵役의 義務가 有함

第7條 大韓民國은 神의 意思에 依하야 建國한 精神을 世界에 發揮하며 進하야 人類의 文化及 平和에 貢獻하기 爲하야 國際聯盟에 加入함

第8條 大韓民國은 舊皇室을 優待함

第9條 生命刑 身體刑及 公娼制를 全廢함

第10條 臨時政府는 國土恢復後 滿 一個年內에 國會를 召集함
大韓民國 元年 四月 日

臨時議政院議長 李東寧

臨時政府國務總理 李承晩

內務總長 安昌浩

外務總長 金奎植

法務總長 李始榮

財務總長 崔在亨

軍務總長 李東暉

交通總長 文昌範

宣誓文

尊敬하고 熱愛하난 我 二千萬 同胞國民이여

民國 元年 三月 一日 我 大韓民族이 獨立을 宣言함으로브터

男과 女와 老와 少와 모든 階級과 모든 宗派를 勿論하고 一致코 團結하야 東洋의 獨逸인 日本의 非人道的 暴行下에 極히 公明하게 極히 忍辱하게 我 民族의 獨立과 自由를 渴望하난 實思와 正義와 人道를 愛好하난 國民性을 表現한지라 今에 世界의 同情이 翕然히 我 國民에 集中하였도다. 此 時를 當하야 本政府 | 全國民의 委任을 受하야 組織되었나니 本政府 | 全國民으로 더부러 專心코 戮力하야 臨時憲法과 國際道德의 命하난 바를 遵守하야 國土 光復과 邦基確國의 大使命을 果하기를 茲에 宣誓하노라

同胞國民이여 奮起할지여다. 우리의 流하난 一滴의 血이 子孫萬代의 自由와 福榮의 價 | 요 神의 國의 建設의 貴한 基礎이나라.

우리 人道 | 마침내 日本의 野蠻을 教化할지오 우리 正義 |

마침내 日本의 暴力을 勝할지니 同胞여 起하야 最後의 一人스기(가) 지 鬪할지여다

政綱

一. 民族平等·國家平等及 人類平等의 大義를 宣傳함

二. 外國人의 生命財産을 保護함

三. 一切 政治犯人을 特赦함

四. 外國에 對한 權利 義務는 民國政府와 締結하난 條約에 一依함

五. 絶對獨立을 誓圖함

六. 臨時政府의 法令을 違越하난 者는 敵으로 認함

大韓民國 元年 四月 日

大韓民國臨時政府

西紀二千二十一年八月在民朴在甲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05, 「大韓民國臨時憲章宣佈文」,

국사편찬위원회 -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front>

공공하며 먹고사는 데 급급하고 교원문과 경험의 정을 본더러 의서는 모두 버려진 가운데 전해오는 것들입니다. 약재는 대부분
 무은나 무부리나 섞은 풀 정도이며 우연히 약이 맞아 후가 버은 병에 효험이 있기도 하나 득한 약을 잘못 써서 목숨을 위협하
 도 합니다. 다서 양역러나라에서 해부를 통해 명확히 밝혀낸 방법과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지식을 온전히 하고 통달한 이론 정
 수를 뽑아 정제 한 약의 조제와 우리의 의학을 비교하면 기술의 공교함과 정밀함 정도와 투박함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
 에 그칠 뿐만 아니니 부끄러울 뿐입니다. 아무런 인민의 질병을 구제하는 방법이 적은 것이 적정되나 더욱 급박한 것은 태의
 와 군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케어 리션은 생각으로 빠릴 서술에 의하고 요를 설명하여 서양 말도 잘하는 일본인의 명의를 빌빙하
 여 교사로 삼고 일어와 영어를 배우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한 문에 도 뛰어난 총명한 몇 사람을 선 발하여 학도 로 하여 열심히
 배우게 하고 졸업 한 뒤에 그 가운데서 태의 와 군의 의 재목을 뽑고 그 녀에게 여유가 있으면 각 도에 파송하여 그곳에 의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 제 간에 자 주 도를 전하면 의 서와 뛰어난 사들이 나 라 안에 가 득 서 상하 의
 군인 과 백성들이 다 같이 장수 하는 정 지에 오 르 게 될 것 입니다. 다 처음 에는 심 물의 근 원 과 같은 적은 노력 이 나 마 침 내 대 해 외 같
 은 덕 을 보 게 될 것 입니다. 다 오 드 러 바 라 건 대 각 각 켜 서 깊이 살 피 서 어 결 행 하 시 읍 소 서 진 실 로 이 와 같이 한 다 면 홀 른 하 기 더 할
 수 없 을 것 입 니 다. 교 사 는 청 부 가 말 아 편 안 하 게 해 주 고 학 도 는 교 사 가 말 아 지 도 하 니 이 꾀 다 시 쓸 데 없 는 혹 이 생 기 실 수 있 겠 습
 니 까 다 만 풍 토 와 기 후 가 다 르 고 육 신 에 필 요 한 자 양 분 이 같 지 않 아 서 후 켜 들 에 게 맞 은 나 우 리 에 게 는 맞 지 않 는 폐 단 이 있 지
 않 을 까 합 니 다. 그러 므 로 교 사 와 학 도 들 사 이 를 화 무 하 게 하 기 위 해 이 들 의 관 계 를 참 작 하 여 화 목 할 수 있 도 록 도 와 줄 사 람 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다 그 런 뒤 에 비 로 소 진 반 적 으 로 원 만 한 성 과 를 얻 을 수 있 을 것 입 니 다. 이 러 한 사 람 은 중 국 의 학 과 서 양 의 학
 에 정 통 한 사 람 이 아 니 면 안 됩 니 다. 넓은 세 상 많 은 사 람 가 운 데 는 반 드 시 이 러 한 사 람 이 있 을 것 이 나 격 정 되 는 것 은 진 주 가 져 더
 미 에 묻 혀 있 는 전 품 은 숨 어 있 기 쉽 고 판 자 위 의 촛 불 같 이 허 황 한 명 성 만 이 간 후 드 러 나 는 것 입 니 다. 선 영 은 어 리 석 고 아 는
 것이 없 습 니 다. 만 어 려 서 부 터 오 지 의 학 을 좋 아 하 여 중 국 의 학 의 대 감 을 심 렵 하 였 고 서 양 의 의 학 서 적 도 또한 자 못 들 리 찾 고
 멀 리 구 하 여 올 바 로 열 람 했 습 니 다. 병 의 중 세 에 대 처 하 여 약 을 처방 함 에 감 히 능 하 다 고 는 할 수 없 은 나 내 외 과 피 차 의 이 로 음
 과 해 르 음 약 의 처방 과 조 제 의 우 열 과 취 사 에 대 하 여 도 치 우 처 지 않 을 입 장 에 서 조 절 하 는 안 목 이 없 지 는 않 습 니 다. 다 만 일 케 가
 실 제 르 음 영 하 고 조 치 하 며 이 책 임 을 전 담 하 게 된 다 면 옛 것 을 의 히 고 새 로 운 것 을 배 워 반 드 시 조 금 이 나 마 보 탐 이 되 게 할 것
 이 며 남 들 보 다 먼 저 안 것 을 바 탕 삼 아 후 진 들 을 이끌 것 이 며 또한 이 일 에 절 대 로 물 러 서 거 나 양 보 하 지 않 을 것 입 니 다. 세 상 사
 람 의 공 분 이 어 더 한 지 알 지 못 하면 서 자 신 을 스스로 천 거 한 다 는 혐 의 를 피 하 지 않 고 우 러 러 고 명 하 신 각 게 이 런 켜 말 씀
 을 올 리 자 니 망 령 되 고 부 고 람 고 두 려 은 나 머 지 맘 이 비 오 듯 합 니 다. 다 지 만 이 는 진 실 로 공 적 충 정 에 처 우 러 나 온 것 으 로 사 사
 로 이 도 모 하 는 길 꾸 밍 이 아 닌 니 다. 길 은 비 록 사 사 로 운 들 이 보 이 나 속 마 음 이 스스로 공 적 인 것 은 옛 날 의 어 질 고 지 헤 르 은 분
 들 도 또한 가 르 막 지 아 니 한 전 이 많 았 습 니 다. 어 켜 구 차 하 게 하 참 은 철 의 애 워 매 여 세 상 을 살 아 가 며 언 는 교 훈 의 이 악 과 해 태
 에 분 발 하 지 않 겠 습 니 까 은 구 허 청 송 하 며 는 하 기 를 의 사 들 이 눈 으 로 보 고 키 르 든 고 말 로 문 고 손 으 로 진 단 하 는 것 은 곧 대 학
 에 서 말 하 는 수 신 케 가 처 국 평 천 하 의 도 라 하 였 습 니 다. 눈 으 로 보 는 것 은 문 을 닦 는 것 과 같 고 키 르 든 는 것 은 집 안 을 바 르 게 하
 는 것 과 같 고 말 로 문 는 것 은 나 라 를 다 스 리 는 것 과 같 고 손 으 로 진 단 하 는 것 은 천 하 를 평 안 하 게 하 는 것 과 같 으 니 순 서 와 조 무
 이 이 처 가 같 습 니 다. 안 으 로 쌓 아 수 양 하 는 도 는 한 몸 을 치료 하 는 것 이 며 밖 으 로 널 리 구 제 하 는 법 은 세 상 을 치료 하 는 것 이 라
 하 겠 으 니 몸 에 병 이 있 으 면 어 저 몸 을 닦 을 수 있 으 며 몸 을 닦 지 못 하면 집 안 을 바 르 게 하 고 나 라 를 다 스 리 고 세 상 을 평 안 하 게
 하 는 것 을 어 켜 이 루 겠 습 니 까 그러 므 로 다 시 말 씀 드 리 거 니 와 세 상 의 학 문 가 운 데 의 학 만 큼 소 중 한 것이 없 습 니 다. 두루 밝 게
 살 피 주 시 기 바 랍 니 다.

서기 일천팔백구십팔년신일월칠일정삼품지석영

학부대신이도 재작하

서기이천이십일년구월제민박재갑쓰다



학부대신 깨울리는 글

삼가 아뢰옵고 자하는 것은 세상 의학문 가운데 의학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사람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
입니다. 이런 까닭에 신승과 황제는 의약을 만들고 질병을 치료하였으니 생명을 보전하여 오래 살게 한 공이 크며 생명을 아끼
덕이 크다 하겠습니 다. 무릇 여대의 철인 과 뛰어난 선비들은 신령한 성인들이 널리 구제하는 자애로움과 어지심을 사모 하지
않음이 없었 때로 의학에 뜻을 두었고 더욱 독실하게 원한 분들은 훌륭한 재상이 아니라 당연히 훌륭한 의사가 되었는 데 범중
음이 그런 사람입니다. 훌륭한 장군이 아니라 훌륭한 의사가 된 분으로 는 장개빈이 있습니다. 서양의 인물로 근래에 영특하고
것출하여 세상에 이름을 날린 분은 의사에서 시작하여 서지 않은 경우가 없으니 정위량에 약술 합신 씨 같은 분들이 이들
입니다. 이로 볼 때 어찌 의학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무병하게 하여 어린이가 기운이 왕성하고 노인이 건강할 수 있다면
약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맨몸과 하육의 용맹함 일지라도 병이 들면 시들고 사광의 밤은 귀일지라도 병이 들면 어두워
지고 소진의 말씀 씨 일지라도 병이 들면 어늘해지고 서시의 미모 일지라도 병이 들면 파리해질 것이니 사람에게 병이 엄중하
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약에 능하면 병은 사람을 낫게 하고 죽을 사람도 살리는 데 이는 훌륭한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것
입니다. 의약에 능하지 못하면 병을 더 악화 시키고 산 사람을 죽게 하는 데 이는 변변치 못한 의사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러니 신중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혁신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만의 학에 있어서 는 개혁
의 거를 없었으니 진실로 심하게 탄스럼 습니다. 오늘 날 개명한 여러 나라에서 는 모두 의사를 부커 처럼 존경하고 약을 신척
림중히 여기고 곳곳에 의학교를 세우고 교사의 자질을 갈고 닦으며 생명을 보호하기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런 데
우리 나라의 풍속은 의학을 하찮은 기술로 보며 의사를 천한 기술자 같이 대합니다. 그리하여 의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태반이

작품 크기 : 73.0x105.0cm

자료 제공 : 박갑수, 허성도, 전광배, 김채식 국역

전시 : 『함께 쓰기 - 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1. 11. 2. ~ 12. 14.

학부대신께 올리는 글¹

삼가 아뢰옵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 가운데 의학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사람의 삶과 목숨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신농神農과 황제黃帝는 의약을 만들고 질병을 치료하였으니, 생명을 보전하여 오래 살게 한 공이 크며, 생명을 아낀 덕이 크다 하겠습니다. 무릇 역대의 철인과 뛰어난 선비들은 신령한 성인들이 널리 구제하는 자애로움과 어지심을 사모하지 않음이 없어, 때로 의학에 뜻을 두었고, 더욱 독실하게 원한 분들은 훌륭한 재상이 아니라, 당연히 훌륭한 의사가 되었는데, 범종염²이 그런 사람입니다. 훌륭한 장군이 아니라, 훌륭한 의사가 된 분으로는 장개빈³이 있습니다. 서양의 인물로 근래에 영특하고 걸출하여 세상에 이름을 날린 분은 의사에서 시작하여 일어서지 않은 경우가 없으니, 정위량丁韪良(William A.P. Martin), 애약술艾約瑟(Joseph Edkins), 함신습信(Benjamin Hobson) 씨 같은 분들이 이들입니다. 이로 볼 때 어찌 의학을 홀대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무병하게 하여 어린이가 기운이 왕성하고, 노인이 건강할 수 있다면 약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맹분과 하옥의 용맹함일지라도 병이 들면 시들고, 사광師曠의 밝은 귀 일지라도 병이 들면 어두워지고, 소진蘇秦의 말솜씨일지라도 병이 들면 어눌해지고, 서시西施의 미모일지라도 병이 들면 파리해질 것이니 사람에게 병이 엄중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학에 능하면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죽을 사람도 살리는데 이는 훌륭한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의학에 능하지 못하면 병을 더 악화시키고 산 사람을 죽게 하는데, 이는 변변치 못한 의사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중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혁신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만 의학에 있어서는 개혁의 겨를이 없었으니 진실로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오늘날 개명한 여러 나라에서는 모두 의사를 부처처럼 존경하고, 약을 신처럼 중히 여기고, 곳곳에 의학교를 세우고, 교사의 자질을 갈고 닦으며 생명을 보호하기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풍속은 의학을 하찮은 기술로 보며, 의사를 천한 기술자같이 대합니다. 그리하여 의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태반이 곤궁하여 먹고사는 데 급급하고, 견문과 경험이 적을뿐더러 의서는 모두

버려진 가운데 전해오는 것들입니다. 약재는 대부분 묵은 나무뿌리나 썩은 풀 정도 이어, 우연히 약이 맞아 혹 가벼운 병에 효험이 있기도 하나, 독한 약을 잘못 써서 목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서양 여러 나라에서 해부를 통해 명확히 밝혀낸 방법과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지식을 온전히 하고 통달한 이론, 정수를 뽑아 정제한 약의 조제와 우리의 의학을 비교하면 기술의 공교함과 졸렬함, 정교함과 투박함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에 그칠 뿐만이 아니니 부끄러울 뿐입니다. 무릇 인민들의 질병을 구제하는 방법이 적은 것이 걱정되나, 더욱 급박한 것은 태의太醫(황실의)와 군의軍醫(군의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빨리 서울에 의학교를 설립하여 서양말로 잘하는 일본의 명의를 초빙하여 교사로 삼고, 일어와 영어를 배우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한문에도 뛰어난 총명한 몇 사람을 선발하여 학도로 하여 열심히 배우게 하고, 졸업한 뒤에 그 가운데서 태의와 군의의 재목을 뽑고, 넉넉하게 여유가 있으면 각 도에 파송하여 그곳에 의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제 간에 자주 도를 전하면 의서와 뛰어난 의사들이 나라 안에 가득 차서 상하의 군인과 백성들이 다 같이 장수하는 경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물의 근원과 같은 적은 노력이나 마침내 대해와 같은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옳되려 바라건대 각하께서 깊이 살피시어 결행하시옵소서.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훌륭한 기를 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사는 정부가 맡아 편안하게 해 주고, 학도는 교사가 맡아 지도하니, 어찌 다시 쓸데없는 흑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다만 풍토와 기후가 다르고, 육신에 필요한 자양분이 같지 않아서 혹 저들에게 맞으나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폐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도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이들의 관계를 참작하여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뒤에 비로소 전반적으로 원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중국 의학과 서양 의학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넓은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나, 걱정되는 것은 진주가 잿더미에 묻혀 있듯, 진품은 숨어있기 쉽고, 판자 위의 촛불같이 허황한 명성만이 간혹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석영은 어리석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어려서부터 오직 의학을 좋아하여 중국 의학의 대강을 섭렵하였고 서양의 의학서적도 또한 자못 널리 찾

고, 멀리 구하여 올바로 열람했습니다. 병의 증세에 대처하여 약을 처방함에 감히 능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내외과 피차의 이로우과 해로움, 약의 처방과 조제의 우열과 취사에 대하여도 치우치지 않을 입장에서 조절하는 안목이 없지는 않습니다. 만일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조치하며 이 책임을 전담하게 된다면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배워 반드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할 것이며, 남들보다 먼저 안 것을 바탕으로 후진들을 이끌 것이며, 또한 이 일에 절대로 물러서거나,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공론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천거한다는 혐의를 피하지 않고 우러러 고명하신 각하께 이런저런 말씀을 올리자니 망령되고, 부끄럽고, 두려운 나머지 맘이 비오듯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로 공적 충정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사사로이 도모하는 걸 꾸밈이 아닙니다. 겉은 비록 사사로운 듯이 보이거나 속마음이 스스로 공적인 것은 옛날의 어질고 지혜로운 분들도 또한 가로막지 아니한 적이 많았습니다. 어찌 구차하게 하찮은 절의에 얽매여 세상을 살아가며 얻는 교훈의 이익과 혜택에 분발하지 않겠습니까? 은근히 칭송하여 논하기를 의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 묻고, 손으로 진단하는 것은 곧 대학에서 말하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도라 하였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몸을 닦는 것과 같고, 귀로 듣는 것은 집안을 바르게 하는 것과 같고, 말로 묻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고, 손으로 진단하는 것은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것과 같으니, 순서와 조목이 이치가 같습니다. 안으로 쌓아 수양하는 도는 한 몸을 치료하는 것이며, 밖으로 널리 구제하는 법은 세상을 치료하는 것이라 하겠으니 몸에 병이 있으면 어찌 몸을 닦을 수 있으며, 몸을 닦지 못하면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것을 어찌 이루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세상의 학문 가운데 의학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두루 밝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일천팔백구십팔년 십일월 칠일

정삼품 지석영

학부대신 이도재 각하

서기 이천이십일년 구월 재민 박재갑 쓰다

1. **학부대신께 올리는 글** : 지석영 상학부대신서의 한글번역본(1993년 3월 표정훈, 황상익 옮김)을 황상의 교수님으로부터 받고, 허성도 교수님, 박갑수 교수님의 도움으로 문장을 다듬어 『함께 쓰고 함께 그리다 -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으로』(2020. 10. 8.~11. 12.,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특별전) 도록에 실렸던 지석영 상학부대신서의 한글번역을 박갑수 교수님, 허성도 교수님, 전광배 편집장님, 김채식 박사님의 도움으로 문장을 다시 수정 보완하였다

2. **범중엄范仲淹** : 989~1052. 북송北宋의 이름난 재상이다. 범중엄이 벼슬하기 전에 한번은 절에 가서 재상이 되거나 아니면 의원이 되기를 기도한 일이 있었다. 후일 의원이 되기를 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그는 사람을 구원하고 사물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의원이라 하면서 의학의 중요성을 설파한 일이 있다. 《能改齋漫錄 卷13 記事 文正公願爲良醫》

3. **장개빈張介賓** : 1563~1640. 명나라 의원醫員으로 자는 혜경惠卿, 호는 경악景嶽·통일자通一子이다. 중국 절강성浙江省 소흥紹興 출신이다. 의술이 뛰어났고, 특히 숙지황을 잘 써서 사람들이 장숙지張熟地라고 불렀다. 저서로는 《경악전서景嶽全書》, 《유경類經》, 《고방팔진古方八陣》, 《신방팔진新方八陣》 등이 있다.

9. 상학부대신서 上學部大臣書 Letter to Minister of Education

海之德也伏願閣下淵察而決行焉誠如是也美無
倫矣教師則政府自當安之學徒則教師自當困
之復何贅疣之有哉但恐風土寒溫之有異腸腑滋
養之不同也或有適彼不適我之端然則宜於其教
師學徒之間不得不有一箇參酌贊成之人然後可
得以全提圓就也此等人苟非會通中西醫學者不
可也浩浩芸芸必有其人而惟所虞者珠沒灰中眞
品易隱蠟光板上虛譽或顯也錫永鹵也無知自幼
性偏好醫中土醫學略有涉躐太西醫書亦頗廣搜
遠求閱覽雅矣對症投劑不敢曰能至於內外科目
之彼此利害方藥品劑之優劣取捨非無如干權衡
於其中也若使實地運措專擔此責則溫故知新必
有幾今增益而緣於先知飾之後進亦不敢萬萬退
讓也世人公議未知如何而不避自薦之嫌願仰云
云於高明之下誕妄慚惶有汗如雨然實出公濟
之衷而不在私謀之表也表雖如私衷自是公古人
賢智亦多不閑何必苟拘小節不奮於世教之利澤
者乎窮賞論之醫家望聞問切之法卽是大學修齊
治平之道也望者如修聞者如齊問者如治切者如
平次第節目其致同也蘊而養之道醫一身廣而濟
之法藥四海其身有病從安得修修身不得齊家治
國平天下從何而達乎故曰天下之學莫如醫重也
統希 照亮

光武二年十一月七日

正三品池錫永

學部大臣李道宰 閣下

西紀二千二十一年五月在民朴在甲書



작품 크기 : 41.5x127.5cm

자료 출처 : 上學部大臣書 / 池錫永上疏 / 池錫永(朝鮮) 著, 한국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jsgimage.aks.ac.kr/view?qCond=bookId&q=K2-2005_001

전시 : 『함께 쓰기 - 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1. 11. 2. ~ 12. 14.

上學部大臣書

敬啓者天下之學莫如醫重關係乎人生性命也是以神農黃帝造醫藥治疾病壽世之功深矣好生之德至矣逮夫歷代之哲人達士莫不慕古神聖普濟之慈仁往往有志於醫學而尤其篤願者不爲良相當爲良醫范仲淹是也未作良將乃作良醫張介賓是也至於西土人物近以英傑名世者莫不從醫士起如丁韋良艾約瑟合信氏等是也由此觀之醫可忽乎若使無病嬰孩可旺老耄可康無須乎藥也責育之勇焉而有病則委師曠之聰焉而有病則昏蘇秦之辯焉而有病則訥西施之美焉而有病則瘁病之於人可不嚴乎能於醫藥則病者愈死者生是良醫之活人也不能於醫藥則病者加生者死是庸醫之殺人也可不慎乎自我更張庶務日新而至於醫學未遑有舉誠甚慨然也現今開明諸國悉皆尊醫如佛重藥如神遍設學校師資琢磨保護生靈如恐不及我邦風俗視醫學如末技待醫士如賤工故爲醫業者太半困窮求食薄聞徑涉而方書則盡汗漫遺典也藥料則多陳根腐草也偶中順劑微疴或效妄用峻藥壽命橫促比諸太西解剖明確之方格致窮通之法撮精取露之劑工拙精麤不啻天淵可愧也已凡諸人民之疾病已患少濟而尤所急者太醫軍醫之需用也以愚意之亟設醫學校於都下雇聘日本名醫之兼通西語者以爲教師選我日英語學生中稍優漢文之聰俊幾人以爲學徒使之勤篤講習待其卒業拔其尤勝太醫軍醫之材品綽有餘裕而派送各道設校授徒一再傳薪則青囊國手遍于闔境上下軍民共躋壽域始之源泉之功而終之滄

上學部大臣書*

敬啓者天下之學莫如醫重關係乎人生性命也是以神農黃帝造醫藥治疾病壽世之功深矣好生之德至矣逮夫歷代之哲人達士莫不慕古神聖普濟之慈仁往往有志於醫學而尤其篤願者不爲良相當爲良醫范仲淹是也未作良將乃作良醫張介賓是也至於西土人物近以英傑名世者莫不從醫士起如丁韞良艾約瑟合信氏等是也由此觀之醫可忽乎若使無病嬰孩可旺老耄可康無須乎藥也賁育之勇焉而有病則委師曠之聰焉而有病則昏蘇秦之辯焉而有病則訥西施之美焉而有病則瘁病之於人可不嚴乎能於醫藥則病者愈死者生是良醫之活人也不能於醫藥則病者加生者死是庸醫之殺人也可不慎乎自我更張庶務日新而至於醫學未遑有舉誠甚慨然也現今開明諸國悉皆尊醫如佛重藥如神遍設學校師資琢磨保護生靈如恐不及我邦風俗視醫學如末技待醫士如賤工故爲醫業者大半困窮求食薄聞徑涉而方書則盡汗漫遺典也藥料則多陳根腐草也偶中順劑微疴或效妄用峻藥壽命橫促比諸太西解剖明確之方格致窮通之法撮精取露之劑工拙精麤不啻天淵可愧也已凡諸人民之疾病已患少濟而尤所急者太醫軍醫之需用也以愚意之亟設醫學校於都下雇聘日本名醫之兼通西語者以爲教師選我日英語學生中稍優漢文之聰俊幾人以爲學徒使之勤篤講習待其卒業拔其尤勝太醫軍醫之材品綽有餘裕而派送各道設校授徒一再傳薪則青囊國手遍于闔境上下軍民共躋壽域始之源泉之功而終之滄海之德也伏願閣下淵察而決行焉誠如是也美無倫矣教師則政府自當安之學徒則教師自當囿之復何贅疣之有哉但恐風土寒溫之有異腸腑滋養之不同也或有適彼不適我之端然則宜於其教

師學徒之間不得不有一箇參酌贊成之人然後可得以全提圓就也此等人苟非會通中西醫學者不可也浩浩芸芸必有其人而惟所虞者珠沒灰中真品易隱蠟光板上虛譽或顯也錫永鹵也無知自幼性偏好醫中土醫學略有涉躐太西醫書亦頗廣搜遠求閱覽雅矣對症投劑不敢曰能至於內外科目之彼此利害方藥品劑之優劣取捨非無如干權衡於其中也若使實地運措專擔此責則溫故知新必有幾兮增益而緣於先知飾之後進亦不敢萬萬退讓也世人公議未知如何而不避自薦之嫌顯仰云云於高明之下誕妄慚惶有汗如雨然實出公濟之衷而不在私謀之表也表雖如私衷自是古古人賢智亦多不閑何必苟拘小節不奮於世教之利澤者乎竊賞論之醫家望聞問切之法卽是大學修齊治平之道也望者如修聞者如齊問者如治切者如平次第節目其致同也蘊而養之道醫一身廣而濟之法藥四海其身有病從安得修身不得齊家治國平天下從何而達乎故曰天下之學莫如醫重也統希 照亮

光武二年十一月七日

正三品池錫永

學部大臣李道宰閣下

西紀二千二十一年五月在民朴在甲書

10. 학부대신답서 學部大臣答書 Reply by Minister of Education

학부대신의답서
삼가답장을올립니다

편지로가르쳐주신뜻은다잘알겠습니다의학교
를아직까지설치하지못한것은실로유감스럽게
생각하고있습니다이제밝은가르침을받게되
니매우감사합니다응당삼년도예산에편입하
고내년봄에창설을기약하오니두루살펴주시기바
랍니다이만줄이며삼가가아뢰었습니다
광무이년십일월구일

정삼품지석영 좌하
학부대신이도재
서기이천이십일년재민박재갑쓰다

學部大臣答書

敬覆者
函示謹悉一切而醫校之尙爾未遑實在抱歉今承
明教感荷殊深當編入于三年度預算期於明春創
設 統亮爲望 艸艸敬具
光武二年十一月九日
學部大臣李道宰

正三品池錫永 座下
西紀二千二十一年在民朴在甲書

작품 크기 : 42.5x58.5cm

자료 출처 : 池錫永(朝鮮)著, 『學部大臣答書』, 『池錫永上疏』 한국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jsgimage.aks.ac.kr/view?qCond=bookId&q=K2-2005_001

전시 : 『함께 쓰기 - 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1. 11. 2. ~ 12. 14.

학부대신의답서**

삼가답장을올립니다편지로가르쳐주신뜻은다잘알겠습니다
의학교를아직까지설치하지못한것은실로유감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제밝은가르침을받게되니매우감사합니다응당삼년도예산에편입
하고내년봄에창설을기약하오니두루살펴주시기바랍니다이만줄이며
삼가가아뢰었습니다

광무이년십일월구일학부대신이도재정삼품지석영좌하
서기이천이십일년재민박재갑쓰다

** 학부대신의 답서 : 김채식 박갑수 율김

學部大臣答書 *

敬覆者 函示謹悉一切 而醫校之尙爾未遑 實在抱歉 今承明教 感荷殊深 當編入于三年度 預算 期於明春創設 統亮爲望 艸艸敬具
光武二年十一月九日 學部大臣李道宰

正三品池錫永 座下

西紀二千二十一年在民朴在甲書

勅令第七號

醫學校官制

第一條 醫學校는國民에게內外各種醫術을專門으로教授하는

處로定함이라

第二條 醫學校에修業年限은三箇年으로定함이라

第三條 醫學校는學部の直轄이니經費는國庫로서支辦함이라

第四條 醫學校에學科及程度와其他規則은學部大臣이定함이라

第五條 醫學校에左開한職員을置함이라

學校長 一人 奏任

教官 三人以下 奏任或判任

書記 一人 判任

第六條 學校長은醫學에熟鍊한人으로任命하여一切校務를掌理

하며所屬職員과學徒를監督함이라

第七條 教官은學徒의教授를掌하며또學徒를監督함이라

書記는上官의命을承하여庶務會計에從事함이라

時宜를因하여學校長을學部奏任官이兼任도하며教官을

學校長이兼任함도得함이라

第十條 教官은或外國人을雇用하여充함도得하나其員數는

學部大臣이必要한데應하여從宜妥定함이라

第十一條 教官을外國人으로以하여充할時에는教授만掌함이라

第十二條 地方情況에依하여醫學校를地方에도置함을得함이라

第十三條 本令은頒布日로부터施行함이라

光武三年三月二十四日奉

勅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學部大臣申箕善

西紀二千二十三年三月在民朴在甲書



勅令第七號

醫學校官制

第一條 醫學校는國民에게內外各種醫術을專門으로教授하는處로定함이라

第二條 醫學校에修業年限은三箇年으로定함이라

第三條 醫學校는學部の直轄이니經費는國庫로서支辦함이라

第四條 醫學校에學科及程度와其他規則은學部大臣이定함이라

第五條 醫學校에左開한職員을置함이라

學校長 一人 奏任

教官 三人以下 奏任或判任

書記 一人 判任

第六條 學校長은醫學에熟鍊한人으로任命하여一切校務를掌理하며所屬職員과學徒를監督함이라

第七條 教官은學徒의教授를掌하며또學徒를監督함이라

第八條 書記는上官의命을承하여庶務會計에從事함이라

第九條 時宜를因하여學校長을學部奏任官이兼任도하며教官을學校長이兼任함도得함이라

第十條 教官은或外國人을雇用하여充함도得하나其員數난學部大臣이必要한데應하여從宜妥定함이라

第十一條 教官을外國人으로以하여充할時에는教授만掌함이라

第十二條 地方情況에依하여醫學校를地方에도置함을得함이라

第十三條 本令은頒布日로부터施行함이라

光武三年三月二十四日奉

勅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學部大臣申箕善

西紀二千二十二年三月在民朴在甲書

작품 크기 : 43.0x59.0cm

자료 출처 : 議政府(朝鮮) 編, 『勅令, 奎17706-7冊』, 筆寫本, 19世紀末-20世紀初(高宗 31年, 隆熙 4年, 1894~1910)

전시 :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2. 05. 25. ~ 06. 30.

勅令第九號

大韓醫院官制

第一條 大韓醫院은 議政府에 直隸하야 此로 漢城에 設置하고 衛生醫育治病의 事를 掌케함이라
 第二條 大韓醫院에 左開職員을 置함이라

- 院長 一人
- 顧問 一人
- 醫員 十七人
- 教官 七人
- 藥劑師 九人
- 通譯官 三人
- 通譯官補 十人
- 事務員 十人
- 技師 三人

第三條 院長은 內部大臣이 兼함이라
 第四條 院長은 顧問과 協議한 後에 院務를 整理함이라
 第五條 院長官房에서 重要한 文書를 處辨하고 全院의 庶務及 會計를 總括함이라
 第六條 大韓醫院을 左開 三部로 分함이라

- 一 治療部
- 二 教育部
- 三 衛生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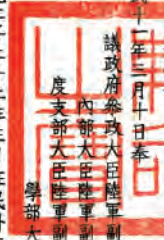
第七條 治療部는 左開 事를 掌함이라
 一 疾病治療
 二 貧民施療
 第八條 教育部는 左開 事를 掌함이라
 一 醫師養成
 二 藥劑師養成
 三 產婆及看護婦養成
 四 教科書編纂

第九條 衛生部는 左開 事를 掌함이라
 一 醫師藥劑師及產婆의 業務並 藥品取締에 關한 調査
 二 傳染病及 地方病의 豫防種痘其他 總히 公衆衛生에 關한 調査
 三 檢疫檢疫及 停船에 關한 調査
 四 衛生會及 地方病院에 關한 調査

第十條 各部員은 相互로 兼務함을 得함이라
 第十一條 地方情況에 依하야 大韓醫院 支司를 眞함을 得함이라
 第十二條 現今間은 本院職員 中外國人을 招聘하야 其事務를 代辨케함을 得함이라
 第十三條 大韓醫院은 大韓國 赤十字社의 囑託을 受하야 該病院에 屬한 一切業務를 掌함이라
 第十四條 各部의 細則은 別로 議政府令으로 此를 定함이라

附則

第十五條 本令은 光武十一年三月十五日로 行함이라
 第十六條 本令施行日는 光武九年勅令第十八號 廣濟院官制及 光武三年勅令第七號 醫學校官制를 並廢止함이라



光武十一年三月十日奉
 勅 議政府參政大臣陸軍副將勳一等 朴齊純
 內務大臣陸軍副將勳一等 李址鎔
 度支部大臣陸軍副將勳一等 閔泳綺
 學部大臣勳二等 李完用

西紀二千二十二年三月在民朴在甲書

勅令第九號 大韓醫院官制

第1條 大韓醫院은議政府에直隸하여此를漢城에設置하고衛生醫育治病의事를掌케함이라

第2條 大韓醫院에左開職員을置함이라

院長	一人
顧問	一人
醫員	十七人
教官	七人
藥劑師	九人
通譯官	三人
通譯官補	十人
事務員	十人
技師	三人

但事宜를隨하여醫員以下職員은增減함을得함이라

第3條 院長은內部大臣이兼함이라

第4條 院長은顧問과協議한後에院務를整理함이라

第5條 院長官房에서는重要な文書를處辦하고全院의庶務及會計를總括함이라

第6條 大韓醫院을左開三部로分함이라

- 一 治療部
- 二 教育部
- 三 衛生部

第7條 治療部는左開事를掌함이라

- 一 疾病救療
- 二 貧民施療

第8條 教育部는左開事를掌함이라

- 一 醫師養成
- 二 藥劑師養成
- 三 產婆及看護婦養成
- 四 教科書編纂

第9條 衛生部는左開事를掌함이라

- 一 醫師藥劑師及產婆의業務並藥品取締에關한調査
- 二 傳染病及地方病의豫防種痘其他總히公衆衛生에關한調査
- 三 檢微檢疫及停船에關한調査
- 四 衛生會及地方病院에關한調査

第10條 各部員은相互로兼務함을得함이라

第11條 地方情況에依하여大韓醫院支司를寔함을得함이라

第12條 現今間은本院職員中外國人을招聘하여其事務를代辦케함을得함이라

第13條 大韓醫院은大韓國赤十字社의囑託을受하여該病院에屬하는一切業務를掌함이라

第14條 各部의細則은別로히議政府令으로此를定함이라
附則

第15條 本令은光武十一年三月十五日로부터施行함이라

第16條 本令施行日로부터光武九年勅令第十八號廣濟院官制及光武三年勅令第七號醫學校官制를 並廢止함이라
光武十一年三月十日

勅 議政府參政大臣陸軍副將勳一等 朴齊純
內部大臣陸軍副將勳一等 李址鎔
度支部大臣陸軍副將勳一等 閔泳綺
學部大臣勳二等 李完用
西紀二千二十二年三月在民朴在甲書

작품 크기 : 43.0x59.0cm

자료 출처 : 議政府(朝鮮) 編, 『勅令, 奎17706-19冊』, 筆寫本, 19世紀末-20世紀初(高宗31年, 隆熙4年, 1894~1910)

전시 :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2. 05. 25. ~ 06. 30.

13. 대한의원개원칙서 大韓醫院開院勅書 Imperial Edict on the Inauguration of Daehan Hospital

대한의원개원칙서

짐이생각하건대국운의성쇠는국민의건강과질병에연유함이많다우리나라의현재상황을살피건대위생사상이아직유치하고의료기관이갖추어져있지않아짐이태황제폐하의성스러운뜻을이어받아담당관리들로하여금우방에서장점을취해의술의보급과진흥을도모하고자대한의원을창설하기로하였다담당관리들이업무를충실히행하여이제공사가준공되고개원식을거행해본원의업무를시작하여그효과와서광이점차원근에미쳐온국민이그혜택을입게됨은짐이마음속으로만족하는바이다그러나그임무는막중하고그길은아직멀다짐은정부당국의협력과본원의료진의분발에의지하여이를대성하게하려하니그대들신료는짐의뜻을받들지어다

서기일천구백팔년시월이십사일

서기이천이십년오월이십오일무간박재갑쓰다



작품 크기 : 43.0x59.0cm

자료 제공 : 김상태, 허성도, 박갑수 국역

전시 : 『함께 쓰고 함께 그리다 -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0. 10. 08. ~ 11. 12.

대한의원개원칙서

짐이생각하건대국운의성쇠는국민의건강과질병에연유함이많다우리나라의현재상황을살피건대위생사상이아직유치하고의료기관이갖추어져있지않아짐이태황제폐하의성스러운뜻을이어받아 담당관리들로하여금우방에서장점을취해의술의보급과진흥을도모하고자대한의원을창설하기로하였다담당관리들이업무를충실히행하여이제공사가준공되고개원식을거행해본원의업무를시작하여그효과와서광이점차원

근에미쳐온국민이그혜택을입게됨은짐이마음속으로만족하는바이다그러나그임무는막중하고그길은아직멀다짐은정부당국의협력과본원의료진의분발에의지하여이를대성하게하려하니그대들신료는짐의뜻을받들지어다

서기일천구백팔년시월이십사일

서기이천이십년오월무간박재갑쓰다

작품은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의원 건물 로비에 전시중

14. 경성의학전문학교 형설기념 사진첩 머리말 京城醫學專門學校 螢雪記念 寫真帖 序文
 Preface to the Gyeongseong Medical School Yearbook

경성의학전문학교형설기념사진첩머리말

책표조커가알리지지만은이것을종합하면조화된선율을이루고한계개의돌이건만
 의고을마다에서생면부지의마음다르고일글잘지않은오심어명의배우들을한두대에
 모아놓고시침때고지지는배양을네비이나돌았다또다시네번째는이누고꽃이피고
 열음이사라지고새가올리고한다사년편에게막되었던모의극은슬픈장면우스운구절
 을갖추고갖춰서섞여놓여있는데하모니있는선율의울림같고기묘있게쌓아놓은담과
 감지않느냐막이닫히고다시머리에이른의투구를쓰고손에는실체칼을잡고가슴에
 는진실의강을입고사면팔방으로각각계절을걸으러할때우리는슬퍼할까기뻐할까
 하룻밤에도만리담을살는다는데일천사백육십일을나날이살파살이서로부딪치고영
 혼과영혼이호응하였으니한부모의뱃속에키나오지는않았을망정그사이에연결점이
 형제와우엇이다르리심술많은새어머니에게대대르되없이구박을받은불쌍한외로운
 형제들엇이머니생각하고머리를맞대고올어본적이몇번이며새어머니가등을때려서
 밖으로쫓아낼때침면합을모아반항한지몇차례나자자다외롭고그전체가또의로웠
 으나그래도믿고의지할데는우리형제서로본목이마를수독을대한갈망이더깊고구
 차할수록는데대한욕구가많은것처럼우리는고독할수록더욱우리의의에점이깊어
 졌을것이이다그러나지금의글을쓰는지금은언제나서로원만하게만남지키약처 못하고
 비록한쪽육신이나마떠나게되었으니옛일을생각하는지첫일을바라보든지어찌슬프
 지않을소나그러나다시한번돌리생각하자아나자가아닌우리는감상적인비애와향락
 에말을멈출수없다일만삼천리나되는페허에서누구의입김으로새문화가일어나날터이
 며이천만의향량한마음속은누구의손으로개척될터이나우리의동맹속에는선홍색의
 피가뛰는고우리의동맹안에는형형한빛이번적이고우리의피에는석색한기류가흐르
 고있다추수할욕심이부을수록추수꾼의마음이더기쁜것같이우리의에게전철하고개차
 하고계조할마음이풍부하였으니에지의이기와양심을가진우리의가슴은자못의열과
 용기로충만함도마땅히그리할것이이다지금우리가맛보는기쁨과슬픔을죽는날까지이
 야기할자는잠은이차뿐이다생명의촛불이달아갈때수업을회날리고덕 밑에 앉은 어린
 손자와같이우리의춘삼월의속살을그러주는이책을들고시를진누고리에 맑은 이슬이
 맺혔다가오목한뺨에미소를지을때우리의감개가어떠할소나

일천구백이십사년삼월집정상소

이천이십이년삼월제민박재감윤거쓰다



- | | | | |
|----------------|----------|----------|-----------|
| 京城醫學專門學校第八回卒業生 | | | |
| 京畿京城 趙漢英 | 京畿京城 金東益 | 京畿京城 李錫九 | 京畿京城 崔六洲甲 |
| 京畿京城 金星歌 | 京畿京城 李鍾綸 | 京畿龍仁 尹致魯 | 京畿龍仁 崔昌善 |
| 京畿振威 李心鍾 | 江原 朴東烈 | 忠南天安 洪承漢 | 忠南論山 朴乘來 |
| 全南長興 崔相彩 | 慶北尙州 金顯默 | 慶北尙州 朴元涉 | 慶北大邱 朴弼赫 |
| 慶南陝川 吳大鉉 | 慶南昌原 朴時英 | 慶南馬山 河祐鏞 | 黃海松禾 甘濟龍 |
| 黃海信川 林成煉 | 黃海信川 白承鎮 | 黃海鳳山 李喜在 | 黃海遼安 金永七 |
| 黃海黃州 裴秉斗 | 黃海平山 李先根 | 平南亭遠 姜湖駿 | 平南 吳尙根 |
| 平南江西 尹斗憲 | 平南龍岡 朴采完 | 平南 朴瓊乘 | 平南龍南 浦吳東 |
| 平南平壤 車登模 | 平南平壤 盧永福 | 平南大同 金鼎相 | 平南平壤 奇能權 |
| 平北義州 朴利欽 | 平北龍川 許信 | 平北龍川 金尙屋 | 平北龍川 張丙燁 |
| 平北龍川 李熙燾 | 平北定州 朴鏞洛 | 平北寧邊 明桂植 | 咸南長津 林在苑 |
| 咸南甲山 金明學 | 咸南北青 崔溶武 | 咸南北青 李亨垣 | 咸南咸興 金鍾夏 |
| 咸南咸興 權斗經 | 咸南定平 金光瓊 | 咸北吉州 許丁默 | |

二千二十二年三月在民朴在甲書



작품 크기 : 43.0x69.0cm

자료 제공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의학사연구실 김상태 제공, 박갑수 국역

전시 :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2. 05. 25. ~ 06. 30.

경성의학전문학교 형설기념 사진첩 머리말

제 곡조 제각기 알리지만은 이것을 종합하면 조화된 선율을 이루고, 한 개 한 개의 돌이건만 쌓아놓고 보면 기묘한 탑을 만들 수 있다. 운명의 장난인지 전세의 인연인지 모르나 십 삼도의 고을마다에서 생면부지의 마음 다르고 얼굴 같지 않은 오십여 명의 배우들을 한 무대에 모아 놓고, 시침 똑 떼고 지구는 태양을 네 번이나 돌았다. 또다시 네 번째 눈이 녹고 꽃이 피고 얼음이 사라지고 새가 울려고 한다.

사년 전에 개막되었던 모의극은 슬픈 장면 우스운 구절을 갖추고 갖춰서 섞여 놓여 있는데 하모니 있는 선율의 울림 같고, 기교 있게 쌓아놓은 탑과 같지 않느냐. 막이 닫히고 다시 머리에는 이론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실제 칼을 잡고 가슴에는 진실의 갑옷을 입고 사면 팔방으로 각각 제 길을 걸으려 할 때 우리는

슬퍼할까!

기뻐할까!

하룻밤에도 만리탑을 쌓는다는데 일천 사백 육십 일을 나날이 살고 살이 서로 부딪치고 영혼과 영혼이 호응하였으니 한 부모의 뱃속에서 나오지는 않았을망정 그 사이에 연결됨이 형제와 무엇이 다르리! 심술 많은 서모(새어머니)에게 때때로 죄 없이 구박을 받은 불쌍한 외로운 형제들, 옛 어머니 생각하고 머리를 맞대고 울어본 적이 몇 번이며, (서모가) 등을 때려서 밖으로 쫓아낼 때 젖 먹던 힘을 모아 반항한 적 몇 차례냐!!

각자 다 외롭고 그 전체가 또 외로웠으나 그래도 믿고 의지할데는 우리 형제 서로뿐, 목이 마를수록 물에 대한 갈망이 더 깊고 구차할수록 돈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처럼 우리는 고독할수록 더욱 우리끼리의 애정이 깊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글을 쓰는 지금은 언제나 서로 원만하게 만날지 기약치 못하고 비록 한쪽 육신이나마 떠나게 되었으니, 옛일을 생각하든지 뒷일을 바라보든지 어찌 슬프지 않을 소냐. 그러나 다시 한번 돌려 생각하자. 아녀자가 아닌 우리는 감상적인 비애와 향락에 말을 멈출 수 없다. 일만 삼천 리나 되는 폐허에서 누구의 입김으로 새 문화가 일어날 터이며, 이천만의 황량한 마음속은 누구의 손으로 개척될 터이나. 우리의 동맥 속에는 선홍색의 피가 뛰놀고, 우리의 동공 안에는 형형한 빛이 번쩍이고, 우리의 폐에는 씩씩한 기류

가 흐르고 있다. 추수할 곡식이 많을수록 추수꾼의 마음이 더 기쁜 것 같이 우리에게 건설하고 개척하고 개조할 마음이 풍부하였으니 예지와 이기와 양심을 가진 우리의 가슴은 자못 희열과 용기로 충만함도 마땅히 그러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맛보는 기쁨과 슬픔을 죽는 날까지 이야기할 자는 작은 이 책뿐이다. 생명의 촛불이 닳아갈 때 수염을 휘날리고 턱 밑에 앉은 어린 손자와 같이 우리의 춘삼월의 속살을 그려주는 이 책을 들고 시울진 눈 고리에 맑은 이슬이 맺혔다가 오목한 뺨에 미소를 지을 그때 우리의 감개가 어떠한 소냐!!

일천구백이십사년 삼월 김정상 쓰고

이천이십이년 삼월 재민 박재갑 옮겨 쓰다

京城醫學專門學校 第八回 卒業生

京畿 開城 趙漢英 京畿 京城 金東益
京畿 京城 李鎔九 京畿 京城 崔六洲甲
京畿 京城 金星默 京畿 京城 李鍾綸
京畿 龍仁 尹致魯 京畿 利川 崔昌善
京畿 振威 李心鍾 江原 朴東烈
忠南 天安 洪承漢 忠南 論山 朴秉來
全南 長興 崔相彩 慶北 尙州 金顯默
慶北 尙州 朴元涉 慶北 大邱 朴弼赫
慶南 陝川 吳大鉉 慶南 昌原 朴時英
慶南 馬山 河祐鏞 黃海 松禾 甘濟龍
黃海 信川 林成燦 黃海 信川 白承鎮
黃海 鳳山 李喜在 黃海 遂安 金永七
黃海 黃州 裴秉斗 黃海 平山 李先根
平南 寧遠 姜翊駿 平南 吳尙根
平南 江西 尹斗憲 平南 龍岡 朴來完
平南 朴璣秉 平南 鎮南浦 吳東一
平南 平壤 車瑩模 平南 平壤 盧永福
平南 大同 金鼎相 平南 平壤 奇能權
平北 義州 朴利欽 平北 龍川 許 信
平北 龍川 金尙埜 平北 龍川 張丙燁
平北 龍川 李熙遇 平北 定州 朴鏞洛
平北 寧邊 明桂植 咸南 長津 林在苑
咸南 甲山 金明學 咸南 北青 崔溶武
咸南 北青 李亨垣 咸南 咸興 金鍾夏
咸南 咸興 權斗經 咸南 定平 金光瓚
咸北 吉州 許丁默

二千二十二年三月在民朴在甲書

역질과 관련하여 각도의 방물과물선의
진상을 중지할 것을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금년의 역질은 병란보다도 더 심하다
만일이 대로 그치지 않는다면 백성이 다 죽어버리
겠다 두 번이나 케사를 지냈는데 일을 받든 사람이
어찌 정성을 다하지 않았을까 마는 나의 비덕과 성
의가 얇아 아득히 감응하는 조짐이 없는 것이다 아
저 적자들의 죽음이 줄을 이어도 그 임금된 자가 구
해내지 못하니 어찌한 것우리 적자들을 쫓아버렸다
하지 않으랴 이는 창창한 하늘과 오르내리는 영령
을 쫓아버림이다 일을 말은 신하들은 임금의 부덕이
라고만 말하지 말고 구원하고 진흙하여 특별히 마
음을 더 기울이고 경외를 막론하고 받을 것은 가을
의 추수때까지 미루어라 모든 공헌은 백성의 고혈
이다 예기에 이르기를 대찰의 해에는 임금도 먹을
것을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금년의 탄일에는 각도
의 방물과물선의 진상을 동조이외는 모두 중지하
라 하였다

영조실록 칠십일권

영조이십육년 서기 일천칠백오십년 오월 십일

서기이천이십년 여름 무간박재갑쓰다



역질과관련하여하교하다

금년의 역질은 병란보다도 더 심하다 만일 이대로 그치지 않는다면 백성이 다 죽어버리겠다 두 번이나 제사를 지냈는데 일을 받든사람이 어찌 정성을 다하지 않았을까마는 나의 덕과 정성이 얇아 아득히 감응하는 조짐이 없는 것이다 아 저 백성들의 죽음이 줄을 이어도 그 임금된 자가 구해내지 못하니 어찌 한갓 우리 백성들을 저버렸다 하지 않으랴 이는 창창한 하늘과 오르내리는 영령을 저버림이다 일을 맡은 신하들은 임금의 부덕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구원하고 진흙하는데 특별히 마음을 더 기울이고 경외를 막론하고 거두는 것을 가을 추수때 까지 미루어라 모든 공물은 백성의 고혈이다 예기에 이르기를 큰 전염병이 든 해에는 임금도 먹을것을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금년의 탄일에는 각도의 방물과 물선의 진상을 대비전 이외는 모두 중지하라 영조이십육년오월십일

역질과관련하여각도의방물과물선의진상을

중지할것을하교하다

하교하기를금년의역질은병란보다도더심하다만일이대로그치지않는다면백성이다죽어버리겠다두번이나제사를지냈는데일을받든사람이 어찌정성을다하지않았을까마는나의비덕과성의가얇아아득히감응하는조짐이없는것이다아저적자들의죽음이줄을이어도그임금된자가구해내지못하니어찌한갓우리적자들을저버렸다하지않으랴이는창창한하늘과오르내리는영령을저버림이다일을맡은신하들은임금의부덕이라고만말하지말고구원하고진흙하여특별히마음을더기울이고경외를막론하고받을것은가을의추수때까지미루어라모든공헌은백성의고혈이다예기에이르기를대찰의해에는임금도먹을것을들지않는다고하였다금년의탄일에는각도의방물과물선의진상을동조이외는모두중지하라하였다

영조실록칠십일권

영조이십육년서기일천칠백오십년오월십일

서기이천이십년여름무간박재갑쓰다

작품 크기 : 42.5x58.5cm

자료 출처 : 「영조 26년 5월 10일 신해 4번째 기사」, 『영조실록 71권』, 서기 1750년, 청 건륭乾隆 15년, 김채식의 도움으로 문장을 일부 수정

전시 : 『함께 쓰고 함께 그리다 -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0. 10. 08. ~ 11. 12.

작품은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 전시 중

16. 무오년 독감 戊午年毒感 Muonyeon Flu (in 1798)

무오년독감

음양이온통어질려지면혹사특한기운이병이되어생민을해치니각종
 사례가한들이아닐게조짐이재앙으로나타나돌림병되어유행하네옛
 날에도그랬다지만을해처럼심한해는없었네염병도아니요마마도아
 닌것이온세상끝까지덮혔어라돌림감기라억지로이름을붙였지만
 마디말로표현하기어렵네열흘만에천하에퍼져풍우같은기세로몰아
 쳤네고관과백성들날마다죽어갔네원근에서유사에게보고하는데번
 번이천백단위해아리네시장은삼배가등났고장례에는널이부족하
 구나전쟁보다참혹하고역병보다흉악하다완연히호접을겪은듯상전
 벽해의세월지나듯듣자니중국에서시작하여처음엔더욱많이죽었다
 지여과가조선에미쳐곳곳마다맹위를떨쳐네물어보자누가주장하여
 기의운행어그러뜨렸나삼개월만에조금수그러드니이치를아득히알
 수없네백성들은환난만나온혜로운하늘을우려라다사로운했살이요
 기를소멸시키고때맞은단비가농사를도와주어보리도벼도풍년들어
 더이상피해함이없기를바라네섭리하는분계말씀드리노니힘을다해
 보우해주소서

정조이십삼년봄무명자윤기지음

서기이천이십일년봄재민박재갑쓰다

戊午年毒感

二儀滂膠轉 氣或有邪診 發為生民害 種種非一例 兆朕見災眚
 浸淫祟疫癘 縱云誰昔然 未有如今歲 非瘟亦非疹 彌天網無際
 強名曰輪感 難以一言蔽 旬月遍天下 驟如風雨勢 公卿及黎庶
 死亡日相繼 遠近報有司 動以千百計 布麻絕市塵 棺椁窘葬瘞
 酷慘甚兵革 凶險過鬼厲 宛經一浩劫 滄桑閱此世 傳聞自大國
 始初尤多瘴 餘波及左海 所向厥鋒銳 借問孰主張 而使運氣盭
 三朔乃稍息 理數杳難諦 百姓遭瘡痍 瞻仰仁天惠 瑞日消氛禳
 時雨好樹藝 麥熟又禾登 庶更無困弊 寄語變理地 殫竭胥翼勵
 正祖二十三年春無名子尹愷著

西紀二千二十一年春在民朴在甲書

작품 크기 : 42.5x58.5cm

자료 출처 : 윤기 지음, 이규필 옮김, 『무오년 독감』, 『무명자집 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서울, 2014, 79~81쪽

전시 : 『함께 쓰기 - 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1. 11. 2. ~ 12. 14.

작품은 질병관리청에 전시 중

무오년 독감

무오년(1798) 겨울 끝자락부터 기미년(1799) 봄에 이르도록 독감이 유행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중국에서 독감이 일어났는데, 죽은 이가 몹시 많고, 청나라 건륭 황제까지도 독감으로 봉어하였다. 드디어 우리나라로 건너와, 열흘 만에 곧장 서울까지 번져,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 공경 이하로 죽은 이가 열에 두셋이나 된다.” 하였다. 이는 진기요 겁운이니 시를 지어 기록한다.

무오년독감

음양이 온통 어질러지면
 흑사 특한 기운이 병이 되어 생민을 해치니
 각종 사례가 한둘이 아닐세
 조짐이 재앙으로 나타나
 돌림병되어 유행하네
 옛날에도 그랬지만 올해처럼 심한 해는 없었네
 염병도 아니요 마마도 아닌 것이
 온 세상 끝까지 덮쳤어라
 돌림감기라 억지로 이름을 붙였지만
 한마디 말로 표현하기 어렵네
 열흘만에 천하에 퍼져
 풍우 같은 기세로 몰아쳤네
 고관과 백성들 날마다 죽어갔네
 원근에서 유사에게 보고하는데
 번번이 천백단위 헤아리네
 시장에는 삼베가 동났고
 장례에는 널이 부족하구나
 전쟁보다 참혹하고 역병보다 흉악하다
 완연히 호겁을 겪은 듯
 상전벽해의 세월 지난듯
 듣자니 중국에서 시작하여
 처음엔 더욱 많이 죽었다지 여파가
 조선에 미쳐 곳곳마다 맹위를 떨쳤네

물어보자 누!가 주장하여
 기의 운행 어그러뜨렸나
 삼개월만에 조금 수그러드니
 이치를 아득히 알수없네
 백성들은 환난 만나
 은혜로운 하늘을 우러러
 따사로운 햇살이 요기를 소멸시키고
 때맞은 단비가 농사를 도와주어
 보리도 벼도 풍년들어
 더 이상 피폐함이 없기를 바라네
 섭리하는 분께 말씀드리노니
 힘을 다해 보우해주소서
 정조 이십삼년 봄 무명자 윤기 지음
 서기 이천이십일년 봄 재민 박재갑 쓰다

戊午年毒感

二儀滂轆轄 氣或有邪沴 發為生民害 種種非一例
 兆眈見災眚 浸淫崇疫癘 縱云誰昔然 未有如今歲
 非瘟亦非疹 彌天網無際 強名曰輪感 難以一言蔽
 旬月遍天下 驟如風雨勢 公卿及黎庶 死亡日相繼
 遠近報有司 動以千百計 布麻絕市廛 棺槨窘瘞
 酷慘甚兵革 凶險過鬼厲 宛經一浩劫 滄桑閱此世
 傳聞自大國 始初尤多殪 餘波及左海 所向厥鋒銳
 借問孰主張 而使運氣熾 三朔乃稍息 理數杳難諦
 百姓遭瘡痍 瞻仰仁天惠 瑞日消氛祲 時雨好樹藝
 麥熟又禾登 庶更無困弊 寄語變理地 殫竭胥翼勵
 正祖二十三年春無名子尹愷著

西紀二千二十一年春在民朴在甲書

윤기 지음, 이규필 옮김, 「무오년 독감」, 『무명자집 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서울, 2014, 79-81쪽

1. 누 : 무명자집에는 '주'로 되어있으나 누구(孰)의 오타로 확인됨.

天和

이십칠년

전비멋고구름

이길혀가며파란하

늘이보였다답지도출지

도않은꽤적한날이었다지금

의서를대암연구소출입구자리를

거켜언덕을올라서쪽끝정자가있는위

치에서서창경궁북쪽하늘을바라보고있었

다나무가많지도않고크지도않아창경궁과그님

어하늘이흰히보였다그때갑자기바람도아닌형용할

수없는커다란보이지않는기운이창경궁북쪽하늘로부터

내가슴속으로막불어들어와가슴이고무퐁션같이늘어나터질

것같은기분을느꼈다마치가슴속에흡입기같은기계가있어그하늘

의기운을빨아들이는것같은느낌을잡지도길지도않은동안경험하였다

그전에한번도겪어보지못하였고그누구한테들어본적도없으며전혀바랐던

적도없었던일이었다명당터에오면이런경험을하게되는것인가이곳이서울대암

연구소삼청암연구소등터로종갓다는생각을하면서가슴속에그번찬느낌을묻어두었다

이천이십이년봄無間박재갑짓고쓰다



天和

이십칠 년 전 비 멎고 구름이 걷혀가며 파란 하늘이 보였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쾌적한 날이었다.

지금의 서울대 암연구소 출입구 자리를 거쳐 언덕을 올라 서쪽 끝

정자가 있는 위치에 서서 창경궁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무가 많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 창경궁과 그 넘어 하늘이 훤히 보였

다. 그때 갑자기 바람도 아닌 형용할 수 없는 커다란 보이지 않는 기운

이 창경궁 북쪽 하늘로부터 내 가슴속으로 막 붙어 들어와 가슴이 고무

풍선같이 늘어나 터질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마치 가슴속에 흡입기 같은 기계가 있어 그 하늘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짧지도 길지도 않은 동안 경험하였다.

그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였고 그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으며 전

혀 바랐던 적도 없었던 일이었다. 명당 터에 오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

는 것인가, 이곳이 서울대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 터로 좋겠다는 생각

을 하면서 가슴속에 그 벅찬 느낌을 묻어 두었다.

이천 이십 이년 봄 無間 박재갑 짓고 쓰다

천화天和라는 말은 다양한 용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도가道家 사상가인 장자莊子是 사람이 우주자연의 법칙인 도道에 부합함으로

써 도달하게 되는 최고의 경지를 '천화'라는 말로 표현했다.『회남자淮南子』라는 고전

에서는 초목과 금수 등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천지의 상서롭고 조화로운

기운을 '천화'라고 하였으며, 중국의 역사서인 『한서漢書·예악지禮樂志』에서는 인

간 세상에서 누리는 복의 원천 또는 인간의 원기元氣라는 의미로 천화를 이야기했다.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이나 『송정원일기』등과 같은 자료에서도 '천화'라는 용어

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자료에서는 주로 천지자연의 상서롭고 조화로

운 기운을 뜻하거나, 더러는 임금님의 건강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용례들을 종합해보면, '천화'는 우주자연의 상서롭고 좋은 기운과

그에 부합하는 인간의 원기가 만나는 순간에 느끼게 되는 천연의 조화로운 기운[和

氣]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화산和山 한재훈韓在堦 근서謹書, 개인 교신, 2022. 4. 27.

작품 크기 : 43.0x43.0cm

자료 : 박재갑

전시 :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2. 05. 25. ~ 06. 30.

『이건희 삼성 회장이 남긴 두 가지 유산』

박재갑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우리 국민에게 두 가지 유산을 남겼다. 첫째는 기업 유산이다. 이 회장은 창업주 이병철 선대 회장의 ‘사업 보국’과 ‘인재 제일’을 실천해 어려운 대내외 경영 환경에서도 삼성그룹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웠다. 둘째는 재산의 사회 환원이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보 14점과 보물 46점 등 총 2만3000여점, 감정가 약 3조원에 이르는 미술품을 기증하고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사회에 쾌척했다.

유족들은 이 회장의 유산 중 60%를 사회에 환원하면서 의료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세계적 수준의 감염병 전담 병원 건립과 연구에 7000억원, 소아암·희귀질환 등 어린이 환자 지원에 3000억원 등 총 1조원을 내놓는다.

이 회장은 생전에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암의 치료를 위해 이미 거액을 기부했다. 필자가 1995년 3월 서울대 암연구소장으로 임명받았을 때의 일이다. 당시 암연구소 시설이 열악해 건물 신축을 서울대 본부에 건의했더니 연구동 건립은 대부분 외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 대기업에 연구동 건립 지원 제안을 했는데 삼성그룹이 지원을 약속했다. 이듬해인 1996년 3월 이 회장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당시 이 회장은 배석한 비서실장에게 “왜 박재갑 소장이 원하는 금액을 다 주지 않고 깎았느냐”고 질책해 깜짝 놀랐다. 당시 지원 금액은 300억원이었다. 지금 추산하면 아마도 3000억원쯤 될 것이다. 오찬이 끝날 무렵 이 회장이 한 말에 다시 놀랐다.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삼성이 먼저 알고 해드렸어야 했는데 요청이 올 때까지 모르고 있었으니 죄송합니다.”

연구소 기공식은 1997년 11월 17일 열렸다. 이 회장은 기공식에서 “암 연구는 어느 한 연구기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선진국 연구 결과에 무임승차해 의존할 수도 없는 범국가적인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어 연구소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지원해 세운 삼성암연구소는 2000년 3월 지상 10층 규모로 완공됐다. 서울대 암연구소는 삼성암연구소 신축을 계기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했

다. 연구동에 있는 한국세포주은행에서는 암 연구뿐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 연구를 위한 세포주를 신속하게 분양해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회장의 지원은 그 후에도 지속되었다. 필자가 2000년 3월 국립암센터 초대 원장에 임명된 후 국고 지원만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간 지원을 받기 위한 공익재단인 『재단법인 국립암센터 발전기금』을 설립하려니 기본 재산 5억원이 필요했다. 삼성그룹 비서실을 찾아가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이 회장은 폐암 치료를 위해 해외에 있을 때였는데도 지원을 결정했다. 삼성생명 3억원과 이 회장의 사재 2억원을 더해 국립암센터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삼성생명은 이후 25억원의 출연금을 더 기부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전쟁보다 더 참혹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이는 적과 싸우는 국방을 전통적 국가 안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비전통적 국가 안보, 즉 건강안보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장의 기부 및 유산의 사회 환원은 국민이 질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초석을 놓았다는 의미가 크다. 또한 우리 문화 유산과 세계적 미술품을 기부해 국민이 이를 누릴 기회를 제공한 이 회장의 공헌이 문화재 기부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조선일보 오피니언 시론·기고 www.chosun.com

박재갑, 『이건희 삼성 회장이 남긴 두 가지 유산』, 조선일보, 2021. 8. 17.

18. 천물무간 天物無間 Nature in One



새김 2

天物無間

하늘과 물질이 애초에 사이가 없이 하나다

壬寅, 無間

전각 Seal Engraving, 12.0x12.0cm

자료 : 박재갑

전시 :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의학박물관, 서울, 2022. 05. 25. ~ 06. 30.

박재갑의 『천물무간天物無間』 개념에 대한 부연

동양에서 현실과 무관하게 실재하는 초월적 하늘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천지간에 성장하는 만물의 자연법칙과 일상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도덕 준칙에서 진면모가 드러나므로, 명사화된 하늘이 아닌 형용사화되고 술부화 된 하늘이어야 의미를 지닌다. 이에 선현들은 만물 가운데 지각과 본성을 온전히 갖춘 인간의 마음에서 하늘이 온전히 합일되어 『천인무간天人無間』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본성[性]이라는 매개를 통해 인간은 도덕 감정의 근거가 되는 형이상의 존재 하늘[天]과 합일될 수 있다. 마음[心]을 닦아 본심을 회복하면 내면의 도덕 근거인 본성의 실재를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 본성을 부여한 형이상의 하늘의 의미까지 알 수 있다. 나아가 하늘은 개별 사물의 자연법칙을 통해 현현되고 있으므로, 도는 자연을 본받고, 천지자연의 큰 덕은 ‘生’이라 하였다. 천지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늘의 모습대로 서로 살리는 것을 본질로 한다는 것이다.

박재갑은 세포·분자·원자 등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연구한 자연과학도이자, 한국철학사상의 원형인 『무간無間』 사유에 대해 연구한 인문학도이다. 철학은 기존 개념에 처한 시대 상황의 의미를 첨가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개념 규정을 통해 소홀이 여겼거나 간과했던 문제를 부각시킬 수도 있다.

박재갑은 만물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조차도 상생을 본질로 한다고 단언한다. 인간과 자연뿐만 아니라, 만물을 구성하는 최소단위조차 하늘의 신묘한 이치를 드러내어 상생을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2017년 성균관대학교 철학박사 논문 『유학儒學의 천인관天人觀에 관한 연구研究』에서 하늘과 물질은 간극이 없다는 개념을 신조新造하여, 『천물무간天物無間』으로 천지의 본체를 규정하였다.

우천友千 고재석高在錫 근서謹書, 개인 교신, 2022. 4. 26.

19. 천지인상생심 天地人相生心 Coexistence & Cosmos



새김 3

天地人相生心

하늘, 땅, 인간은 서로 살리는 것을 본질로 한다

壬寅, 無間

전각 Seal Engraving, 12.0x12.0cm

자료 : 박재갑

전시 :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2. 05. 25. ~ 06. 30.

필자는 『천인무간天人無間』에서 『천생무간天生無間』, 『천물무간天物無間』의 이치를 토대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일체一體가 되어 서로 살리는 상생相生을 이루는 것이 자연(자연스런 본래 상태를 의미하는 본체이자 본질)이라고 본다.

서로 살림이 자연임을 의미하는 ‘상생’의 철학이 다시금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 조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박재갑, 『유학儒學의 천인관天人觀에 관한 연구研究』, 성균관대학교, 2017.

『서울대학교, 박재갑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국민건강의 초석을 놓다』, VOM: Vision of Medicine, 서울대학교병원 매거진, Vol.34, 2022, 26~29쪽

제7장 인장印章 작품作品

정자체 임시 작품과 한글재민체 필사 작품에 사용하기 위한 인장으로 『체천지보體天之寶』, 『유서지보諭書之寶』, 『대재건원大哉乾元』,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 『대한국새大韓國璽』, 『외무대신外務大臣』, 『외부대신外部大臣』, 『칙명지보勅命之寶』 7 작품을 돌에 모각模刻하였고 『칙명지보』를 한글로 돌에 새겼다.

인장印章은 보인寶印·관인官印·사인私印 등으로 나눈다. 보인寶印은 寶와 印을 말한다. 寶는 임금의 인장을, 印은 왕세자와 기타의 官印을 가리키며 이를 통칭하여 보인이라고 한다. 보인寶印에는 국새國璽와 어보御寶가 있다. 보인 가운데 국새國璽는 국왕의 인장으로 국가와 왕권을 상징하였다. 국새는 국명을 새긴 朝鮮國璽·大韓國璽와 직명을 새긴 朝鮮國王之寶·皇帝御璽 등의 실무에 사용한 실용인이 있고, 어보는 존호尊號·휘호徽號·시호諡號를 새기어 종묘에 보관하던 의례적으로 왕의 가례나 보위에 오를 때 공식행사에 사용하던 보인이 있다. 관인官印은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 등의 중앙관과 지방관의 인장을 망라한 관리의 인장이다. 사인私印은 개인이 사용한 도서인과 낙관인이 주종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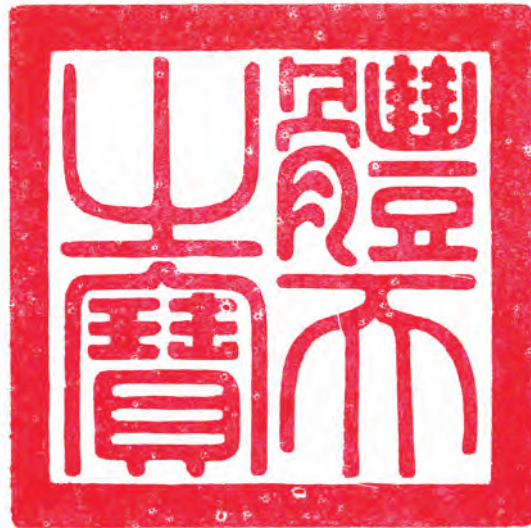
임금의 인장은 삼국과 고려까지는 국새國璽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조선시대에는 옥새玉璽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왕과 왕후, 왕세자의 인장을 함께 보인이라고 한다. 임금의 새璽 외에는 대부분 몸에 차게 되어 있다. 관인은 중앙관에서 지방관에 이르기까지 인장을 지참하였으며, 인꼭지에 구멍을 뚫어 인끈을 꿰어 허리에 찼다. 관인이란 집정에 쓰이던 인장으로 모두 정해진 인장 제도와 계급·신분·지위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와 같이 인장은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신표였기 때문에 규격이나 재질·용도·신분에 따라 인문印文과 인끈의 색깔까지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인장의 이명異名으로 인印·장章·신信·도서圖書·도장圖章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서압署押·화압花押·함啣·銜·착명著名·착압着押·수결手決·수례手例·수압手押·수장手掌·수촌手寸 등도 인장의 대용으로 사용한 신표信標들이다. 인장의 자체字體는 전서篆書가 주로 사용되어 전각篆刻이라는 명칭이 있게 되었다. 보인은 전서에서도 구첩전九疊篆이 주로 사용되었고, 관인은 무전繆篆이 많으며, 사인은 소전이나 무전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예술적으로 형상화된 자체를 선호하였다. 사인의 종류에서도 낙관에 사용하는 낙관인, 전적典籍에 사용하는 도서인圖書印과 장서인藏書印 등이 있다.

『한국인장의 개요』,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www.heritage.go.kr

孫煥一, 「朝鮮時代の寶印」, 한국정신문화원 장서각 편編,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 학연문화사, 서울, 2004년, 163~192쪽

1. 『체천지보體天之寶』, 1464년



12.0x12.0cm (모각 12.0x12.0x3.0cm, 박재갑)

조선 전기 어보가 찍힌 문서로 상원사중창권선문上院寺重創勸善文이 있다. 1464년(세조 10)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 등이 왕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고자 상원사를 중창하면서 지은 글과, 이 소식을 듣고 세조世祖를 포함한 왕실에서 물품을 하사한다는 내용이다. 이 자료에는 1458년(세조 4)에 제작한 세조의 『체천지보體天之寶』와 1457년(세조 3) 세조비 정희왕후貞熹王后에게 올린 존호보 『자성왕비지보慈聖王妃之寶』, 1457년(세조 3) 예종睿宗을 왕세자로 책봉하면서 만든 책봉인 왕세자인王世子印이 찍혀 있다. 이 가운데 현존하는 유물은 정희왕후의 어보뿐이다. 세조의 체천지보는 내치용 국새의 성격을 띤 인장으로 보이지만 제작 당시에 용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듯하다. 실제로 이 인장은 다른 문서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세조 때에 제작한 특수한 내치용 국새의 사례로 널리 사용되지는 않은 듯하다.

성인근, 『국새와 어보 - 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서울, 2018년, 120~121쪽
체천지보는 세조 4년(1458)에 만든 어보御寶의 하나이나, 두루 쓰이지는 못했으며 『조선왕조실록』 세조 4년 무인(1458) 2월 26일(음묘)자에 아래와 같은 관련 기사가 나온다.

새로 만든 『체천지보體天之寶』가 완성되니, 임금이 환관宦官 이존李存으로 하여금 보寶를 가지고 승정원에서 의논하게 하기를, “내가 이것을 만들었으나, 쓸 곳을 알지 못하겠다.”하니, 도승지 조석문曹錫文이 말하기를, “원컨대 옛 법을 널리 상고하소서.”하였다.

『세조 4년 2월 26일 음묘 5번째 기사』, 『세조실록 11권』, 1458년
일반적인 분류대로라면 체천지보는 어보임에 틀림없다. 1457년이며 이미 『시명지보施命之寶』와 같은 어보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체천지보를 찍고 세조가 직접 어압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세조 개인의 발원문이라는 문서의 특수한 성격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세조의 시주는 행정적 체계를 따르는 공식 행위가 아니고 국왕이지만 개인적이고 사적인 행위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박준호, 『조선시대 행정 문서의 어보御寶, 관인官印, 서명署名』, 김연수, 『조선왕조의 관인』, 국립고궁박물관, 2009년, 150쪽

체천體天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명나라 3대 황제인 영락제永樂帝 태종太宗 주체朱棣(1360~1424)의

존시尊諡는 ‘체천홍도고명광운성무신공순인지효문황제體天弘道高明廣運聖武神功純仁至孝文皇帝’이고 묘호廟號는 ‘태종太宗’으로, 존시에 ‘체천體天’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중국 당나라 때 저명한 문인文人이며, 국자사문박사國子四門博士를 역임한 황도黃滔가 쓴 『성시왕자지도여룡수부省試王者之道如龍首賦』에 “하늘을 본받아 제도를 세운다體天而立制”라는 표현이 나온다.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의 『성학십도聖學十圖』 속에는 “체천진도體天盡道” 즉, “하늘을 본받아 도를 극진히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며, 『조선왕조실록』 영조 4년 무신(1728) 1월 5일(병진)에는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영조 임금에게 “하늘을 본받고 도도를 행하여 날로 새롭고 또 새로워진다體天行道日新又新.”는 여덟 글자가 오늘날 전하의 가장 긴 요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 기사가 실려 있다. 퇴계 선생이나 이광좌의 말에서 ‘체천體天’이라는 말은 ‘도道’라는 말과 함께 쓰여서 임금이 지향해야 할 자세로 언급되고 있다.

조선 중기의 형조좌랑, 부제학을 지낸 문신으로, 임진왜란(1592), 정묘호란(1627)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여 외세의 침략에 저항했던 창석蒼石 이준(李墩, 1560~1635)은 비후잠蓍後箴이라는 글을 지어 임금에게 바쳤는데, 이 글에서 ‘체천體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옛날 성왕聖王은 위로 하늘을 본받았다. 하늘은 세상 위에 자리하니, 그 덕이 강건하다. 강건하기 때문에 공정할 수 있고, 공정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임금의 덕은 하늘을 본받아, 모든 것을 비추어 임한다. 확 트이게 크고 공정하려면 반드시 사사로움私를 없애야 한다. 사사로움을 이기지 못하면 강건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은 ‘체천體天’에 대한 설명이다. 蒼石先生文集卷之十四 / 蓍後箴[并疏: “古之聖王 上體穹蒼 天位乎上 其德曰剛 惟剛故公 惟公故大 靈德法乾 照臨無外 廓然大公 必去其私 私之不克 剛不可爲 [此一節 言體天]” 이 밖에 영조 40년 갑신(1764) 11월 12일(기미)에 장령 황최언黃最彦이 영조 대왕 앞에서 “체천육잠體天六箴이라는 글을 꺼내 올린 다음 읽어 아뢰었다.”는 기사도 있다.

이상의 모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체천體天’은 임금이 도도를 행하거나 제도를 제정할 때 반드시 하늘의 뜻이나 하늘의 명을 본받아 그 안에 담고자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한재훈, 개인 교신, 2022. 10. 8.

2. 『유서지보諭書之寶』, 1593년



10.0x10.0cm (모각 10.0x10.0x3.0cm, 박재갑)

『유서지보諭書之寶』

『大典會通』 권 3(42장_전면), 禮典_璽寶_諭書之寶, http://kyudb.snu.ac.kr/pf01/renderer/mg.do?item_cd=JRD&book_cd=GK01302_00&vol_no=0003&page_no=0089

한재훈, 개인 교신, 2022. 10. 28.

유서는 조선시대에 국왕이 군사권을 가진 관원에게 내렸던 문서로 각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觀察使, 절도사節度使, 방어사防禦使, 유수留守에게 왕과 해당 관원만 아는 밀부密符를 내리면서 함께 발급한 명령서를 말한다. 한국정신문화원 장서각 편,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 학연문화사, 2004.

『유서지보諭書之寶』는 조선시대 유서諭書에 사용한 행정용 국새國璽이다. 조선시대에는 한 지방의 군사권을 위임받은 관리가 왕명 없이 자의로 군사를 발동하거나 역모를 위해 군사를 움직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밀부密符 제도가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밀부의 우부右符는 관찰사觀察使, 절도사節度使 및 제진諸鎭에 주고, 좌부左符는 궁궐 안에 간직한다. 만약 징병徵兵할 때에는 교서敎書를 내려서 좌부를 우부와 맞추어본 뒤라야 징발徵發에 응한다.”라고 하였다.

비상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관원이 간직하고 있던 반쪽의 밀부와 왕이 보낸 반쪽의 밀부를 맞추어 의심할 바가 없을 때 명령대로 거행한 것이다. 이때 왕이 보낸 교서가 바로 『유서지보諭書之寶』가 찍힌 유서에 해당한다. 기존 유서에 대한 개념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조선시대 왕이 군사권을 가진 관원에게 내렸던 문서로, 각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절도사·방어사防禦使·유수留守 등에게 왕과 해당 관원만이 아는 밀부를 내리면서 함께 발급하는 명령서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유서의 범위는 이보다 넓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발견된 유서를 발급 사유 및 수록한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면 밀부유서密符諭書를 비롯하여 포상유서褒賞諭書, 훈유유서訓諭諭書, 관원을 부르는 유서 등이 있다.

밀부유서는 국왕이 각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 절도사, 방어사, 유수 등에 국왕과 해당 관원만이 아는 밀부를 내리면서 함께 발급한 명령서이다. 밀부유서의 문서식은 16세기 후반에 한 차례 변화하였고, '전율통보典律通補'에는 조선 후기에 발급된 문서식이 기재되어 있다.

포상유서는 왕이 상급 관원의 보고를 통하여 공적이 있는 관원에게 하

사품을 내리면서 함께 발급한 문서이다. 새서표리璽書表裏, 새서숙마璽書熟馬 등을 내려주라는 왕명이 있을 때에 포상유서와 하사품을 내려주었다.

훈유유서는 왕이 일반 백성 및 관원에게 훈유訓諭하거나 효유曉諭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이다. 관원을 부르는 유서는 왕이 지방에 있는 관원을 부르는 경우에 발급하는 유서이다. 왕이 유서로 관원을 부르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긴급한 일로 지방에 있는 관원을 부르는 경우, 둘째, 영의정領議政·좌의정左議政·우의정右議政으로 임명된 관원이 지방에 있을 때 왕이 유서를 내려 해당 관원을 올라오게 하는 경우, 셋째, 사직 상소를 올린 관원에게 국왕이 사직을 만류하고 해당 관원을 부르는 경우에 유서를 발급하였다.

유서의 기원은 고려의 선전소식宣傳消息에 있다. 고려 말에 왕에 의해 번거로이 내려지던 선지宣旨에서 일부 기능이 분화된 문서로, 왕의 명령을 중추원中樞院 승선承宣이 작성하여 전달한 것이다. 또 군정軍政과 관련된 명령과 일부 국가의 정책이나 국왕의 개인적인 명령을 전달하는 내전소식內傳消息이 있었다. 조선에 들어 1443년(세종 25) 고려의 유제遺制인 내전소식을 폐지하고 유서를 처음 시행하여 왕이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때 유서식의 변화상을 살펴보면, 첫 면에 '유諭'자와 수취인의 관직, 성명을 쓰고 결사訣辭에는 '고유故諭'를 쓴다. 문서의 말미에는 날짜를 쓰고 어보인 유서지보를 찍었다.

조선시대에 유서지보를 처음 제작한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유서지보를 사용한 사례는 1444년(세종 26) 정식鄭軾 유서諭書에서 처음 발견된다. 이후 1457년(세조 3) 이운손李允孫 유서諭書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안보안寶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보물 제1289호인 이운손 유서는 3월 12일 세조가 평안도절제사 이운손李允孫(?~1467)에게 내린 유서로, 역모에 의해 군사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 문서에 안보된 유서지보의 재질은 확인할 수 없으며, 크기는 사방 10센티미터, 서체는 소전小篆으로 '유서' 두 자만

으로 제조하였다고 하였다. 해당 고문서를 살펴보면 재질은 알 수 없고, 서체는 동일하나 보문이 '유서지보'이므로 기록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유서지보 외에 연산군 대 이전까지 사용한 또 다른 유서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서지보를 처음으로 사용한 1443년보다 약 52년 뒤인 1495년(연산군 1) 연산군은 새로운 유서지보를 시명지보의 크기와 같게 제조하되 은제 도금으로 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로부터 1개월이 채 안 되어 새로운 유서보를 완성하여 팔도의 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하였다. 국새는 기존의 인영印影과 비교하여 크기나 보문은 동일하나 서체가 소전에서 구첩전으로 바뀌었다. 사용 기간은 제작한 해인 1495년부터 새로 개조한 해인 1876(고종 13)까지 약 381년간이다. 개조한 유서지보 관련 기록은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실려 있다. 재질은 동제 도금이며, 크기는 10.2x10센티미터로 기존에 제작한 유서보보다 세로로 2밀리미터 크게 제작되었다.

성인근, 『국새와 어보 - 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서울, 2018년, 77~81쪽

1392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고려 국새를 명나라에 반납하고, 새 국새를 내려 주도록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실현되지 않다가 1403년(태종 3년)에 성조聖祚에 의해 비로소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인 국인國印이 수여되었다. 이를 대보大寶라 하여 1636년(인조 14년)까지 대중국 외교문서에만 사용하였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보인寶印들이 제작, 사용되었는데, 교서·교지 등에 찍는 『시명지보施命之寶』, 유서諭書에 찍는 『유서지보諭書之寶』, 과거시험의 문서에 찍는 『과거지보科擧之寶』, 교린문서交隣文書, 특히 대 일본 관계에 찍는 『소신지보昭信之寶』 등이 있었고, 소신지보는 조선 후기에 『이덕보以德寶』로 고쳤다.

행정안전부 「국새」, 2021 『정부의전편람 1』, <https://www.mois.go.kr>

3. 『대재건원大哉乾元』, 1603년



선조대왕宣祖大王的 어인御印

『대재건원大哉乾元』▶ 위대하도다, 건乾의 원元이여!

이 말은 주역周易에 나오는 말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역의 64괘 가운데 첫 번째 괘인 건괘乾卦를 설명하는 단전象傳에 나오는 말이다.

주역에서 ‘건乾’은 ‘하늘’을 상징하고, ‘하늘’에는 원元·형亨·이利·정貞이라는 네 가지 덕이 있다고 말한다. 이 네 가지 덕 가운데 ‘원元’은 ‘크다’ ‘으뜸’ ‘시작’ 이런 뜻이 있으며, 그것이 계절로 나타나면 ‘봄春’이 된다고 본다. ‘봄’은 한 해를 시작하는 계절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즉, 죽은 것 같았던 이 세상에 생명이 다시 새로운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계절이다. ‘여름’은 그렇게 소생한 것들을 키우는 계절이고, ‘가을’은 그것들의 결실을 보게 하는 계절이며, ‘겨울’은 그 생명이 이듬해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생명력을 간직하는 계절이다. 결국 여름·가을·겨울은 봄에 시작된 생명 활동을 이어주는 계절들이다.

사계절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봄’이듯, 주역에서는 원·형·이·정도 같은 논리로 이해한다. 그래서 “위대하도다, 건의 원이여!”라고 한 것이다. 참고로, 이 말 다음에 “만물이 이것에 의지하여 시작된다”는 말이 이어진다.

임금은 한 나라에서 ‘하늘’과 같은 존재라고 보았다. 만물의 아버지는 하늘이고, 만물의 어머니는 땅이다. 더군다나 임금은 하늘의 명 즉, ‘천명天命’을 받아서 임금의 자리에 오르고, 천명에 부합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항상 ‘하늘’을 의식한다. 임금이 본받고자 하는 ‘하늘’이 바로 주역의 건괘에 나온다. 특히 하늘의 네 가지 덕 가운데 첫 번째 덕인 ‘원’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한재훈 작성, 개인 교신, 2022. 10. 28.

3.7x3.7cm (모각 3.6x3.6x8.0cm, 박재갑)

4.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 1894, 1895년



9.4x9.4cm (모각 9.0x9.0x3.0cm, 박재갑)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에서 만들어준 국인國印을 공식 대보大寶로 사용하였으나, 속종 때 명나라에서 준 옛 국인의 인문印文을 찾아 별도의 것을 모조하여 비장해 두고 왕위계승 의식 때만 사용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조선 후기에는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의 보인寶印들이 사용되었는데, 서적을 반포·하사할 때 쓰는 ‘선사지기宣賜之記’, 서책의 발간에 사용하는 ‘동문지보同文之寶’, 왕이 지은 글에 찍는 ‘규장지보奎章之寶’, 각신閣臣(규장각의 벼슬아치)의 교지에 쓰는 ‘준철지보濬哲之寶’, ‘명덕지보明德之寶’, ‘광운지보廣運之寶’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인장들은 모두 도승지의 책임 아래 상서원 등에서 제작·보관·관리하였다.

행정안전부-2021 정부의전편람 1, 『국새』, 등록일 2021년 12월 20일, <https://www.mois.go.kr>

개화기의 국새

갑오경장을 전후하여 조선은 중국과의 사대 관계를 끝내면서 종전의 책봉에 의한 국새 인수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국내에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1876년(고종 13) 한일수호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조선과 일본 사이 종래의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통문관계通文關係를 폐지하고, 국제법적인 토대 위에서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1881년 고종은 신사信使가 가지고 가는 국서國書에 위정이덕爲政以德 보를 쓰지 말고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를 제작하여 쓰라는 명령을 내렸고, 8년 후인 1899년에는 대조선국보를 포함하여 『준명지보濬明之寶』, 『동문지보同文之寶』, 『흠문지보欽文之寶』, 『명덕지보明德之寶』, 『광운지보廣運之寶』를 새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1894년 갑오경장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일본 관련 국서에 사용할 국새를 자체 제작하였고, 보문은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임을 알 수 있다. 갑오경장을 즈음하여 조선에서는 대조선국보 외에 『대조선국대군주보大朝鮮國大君主寶』(1882년 7월 1일 제작), 『대군주보大君主寶』(1882년 7월 1일 제작), 『대조선국주상지보大朝鮮國主上之寶』(1876년 12월 15일 제작)를 제작하여 일본 관련 국서에 사용하였다. 개화기를 전후하여 일본 국서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국새의 종류와 형태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5. 개화기 국새의 종류와 형태 및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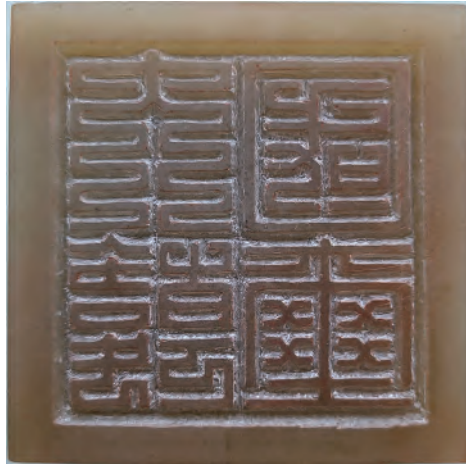
	보명	뉴식	재질	크기(cm)	서체	완성시기
1	대조선국주상지보 朝鮮國主上之寶	귀뉴 龜紐	천은도금 天銀鍍金	11.6	첩전 蠶篆	1876년 12월15일
2	대조선국보 大朝鮮國寶	귀뉴	천은도금	11.6	첩전	1881년 7월27일 이후
3	대조선국대군주보 大朝鮮國大君主寶	귀뉴	천은도금	9.5	소전 小篆	1882년 7월 1일
4	대조선대군주보 大朝鮮大君主寶	귀뉴	천은도금	9.6	소전	미상
5	대군주보 大君主寶	귀뉴	천은도금	9.5	첩전 蠶篆(9 첩)	1882년 7월 1일
6	대조선국보 大朝鮮國寶	귀뉴	천은도금	9.4	첩전	1889년 8월 5일이후

기존에 중국에서 반사된 국새의 보문과 달라진 점은 ‘인印’자에서 천자만이 쓸 수 있는 ‘보寶’자로 대체하였고 책봉명인 ‘조선국왕朝鮮國王’에서 ‘조선朝鮮’이란 국명으로 또한 ‘국왕國王’에서 ‘대군주大君主’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뉴식은 전과 같이 귀뉴龜紐로 하였다. 이 외에도 개화기 국왕 문서와 서적 반사頒賜(조선 시대 임금이 백성에게 책이나 그 밖의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를 위해 제작된 국새로 『준명지보濬明之寶』, 『동문지보同文之寶』, 『흠문지보欽文之寶』, 『명덕지보明德之寶』, 『광운지보廣運之寶』, 『수훈지보垂訓之寶』가 있다.

성인근, 『고종 황제 비밀 국새』, 소와당笑臥堂, 서울, 2010년, 49쪽

성인근, 『국새와 어보 - 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서울, 2018년, 94~96쪽

5. 「대한국새大韓國璽」, 1906년



9.4x9.4cm (모각 9.0x9.0x3.0cm, 박재갑)

대한제국기(1897년 10월 12일 ~ 1910년 8월 29일)의 국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궁한 직후 조선에서는 황제 즉위를 요청하는 상소가 조야 각계로부터 쇄도하였다. 그해 1897년 8월에는 전년도에 일본의 위압 속에 정해졌던 건양建陽이란 연호를 광무光武로 변경하고, 10월 초에는 서울의 회현방(소공동)에 환구단圜丘壇이 완공되어 마침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곧이어 고종은 국명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어 제국의 탄생을 선포하였다. 이로써 505년간 지속된 조선왕조는 종언을 고하였고, 우리 역사상 최초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이 탄생한 것이다. 국가 전례서인 『대한예전大韓禮典』에서는 대한제국 선포의 당위와 대략을 책머리에 실었다.

대조선이 개국한 지 506년, 우리 성상께서 등극하신 지 34년. 조종祖宗의 오랜 기틀을 이어받고 만방萬邦이 일신一新하는 시운時運을 만나 성덕이 더욱 빛나고, 큰 교화가 더욱 널리 베풀어졌다. 신민들은 천심天心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 알고, 서로 이어서 황제대위皇帝大位에 오르실 것을 청하였다. 폐하께서 겸손히 사양하신 것이 수십 번이다가 비로소 윤허하셨다. 마침내 음력 정유년丁酉年 9월 17일에 친히 환구단圜丘壇에서 천지에 제사 지낸 후 황제皇帝에 즉위하시고 태극전太極殿(지금의 중화전中和殿)으로 돌아와 백관의 하례賀禮를 받으셨다. 마침내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고치고, 건원建元을 광무光武라 하였다. (후략)

대한제국 선포의 핵심은 군주의 호칭을 ‘황제皇帝’로,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정한 일이다.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다음 날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국호를 대한으로 정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마한·진한·변한 등 원래의 삼한을 아우른 것이니 큰 한[大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며, ‘조선’은 옛날에 기자가 봉해진 때의 이름으로 당당한 제국의 명칭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고종은 1897년에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의 나라에 걸맞은 새로운 새보를 제작하였다. 이때 제작한 국새와 어보는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지보皇帝之寶』(3과), 『칙명지보勅命

之寶』(2과), 『제고지보制誥之寶』, 『시명지보施命之寶』로 총 9과이다. 이때 왕실 인사의 호칭도 변경됨에 따라 태후,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의 어보도 함께 제작하였다. 각 새보의 형태 사항과 제작 시기, 사용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5. 개화기 국새의 종류와 형태 및 크기

	보명	뉴식	재질	크기 (cm)	서체	제작시기	사용처
1	대한국새 大韓國璽	용뉴 龍鈕	천은도금 天銀鍍金	9.4	첩전 疊篆(9첩)	1897. 9.19.	국서 國書
2	황제지새 皇帝之璽	용뉴	천은도금	9.4	첩전 疊篆(9첩)	1891. 9.19.	훈기 勳記
3	황제지보 皇帝之寶	용뉴	옥 玉	11.1	소전 小篆	1887. 9.17	친임관칙지 親任官勅旨
4	황제지보	귀뉴 龜鈕	천은도금 天銀鍍金	11.4	소전	1897. 9.19.	친임관칙지
5	황제지보	용뉴 龍鈕	옥 玉	9.4	소전	1897. 9.19.	친임관칙지
6	칙명지보 勅命之寶	용뉴	순금 純金	11	소전	1897. 9.19.	주임관칙지奏 任官勅旨
7	칙명지보	용뉴	천은도금 天銀鍍金	9.1	소전	1897. 9.20.	가자승육칙지 加資陞六勅 旨, 조칙詔勅
8	제고지보 制誥之寶	용뉴	순금 純金	11	소전	1897. 9.19.	친임관칙지 親任官勅旨
9	시명지보 施命之寶	용뉴	천은도금 天銀鍍金	8.9	소전	1897. 9.20.	

이때 제작된 새보를 살펴보면 우선 1과를 제외한 모든 손잡이가 거북에서 용으로 바뀌었고, 보문은 ‘인’에서 ‘새’와 ‘보’자로 대체하였다. 서체도 복잡한 첩전疊篆 위주에서 대부분 간명한 소전小篆으로 바뀌었다. 각각의 용도를 살펴보면 우선 대한국새는 외교문서에 해당하는 국서國書로 용도를 한정하였다. 이는 조선시대에 명과 청으로부터 반사된 국새 조선국왕지인의 사용처와 같다. 황제지새는 나라에 훈공勳功이 있는 이에게 내려주는 훈기勳記로 규정하였다. 3과의 황제지보

는 뉴식이나 재질, 크기를 각각 달리 제작하였지만 용도는 임금이 직접 관리를 임명할 때 내려주는 임명장인 친임관칙지親任官勅旨에 국한하였다. 고급 관리의 임명에서도 정1품~종2품에 해당하는 직임관勅任官에게는 제고지보를, 3품~6품까지의 주임관奏任官의 임명장에는 칙명지보로 구분하였다.

이 외에 1899년(고종 36)에는 군제 개편과 함께 『대원수보大元帥寶』와 『원수지보元帥之寶』를 제작하였다. 이는 당시 원수부 규칙 제1편을 발표하면서 황제인 고종이 대원수로서 군기를 총람하고 육·해군을 통령하며, 황태자인 순종이 원수로서 육·해군을 일률적으로 통솔하게 되면서 제작하였다. 이 당시 관보에 의하면 원수부인元帥府印과 각국의 인장도 함께 제작하였다.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외에도 『군주어새君主御璽』, 『황제어새皇帝御璽』라는 비밀 국새가 있었다. 군주어새는 제한제국 선포 직전인 1897년 9월 프랑스와 독일에 양국의 우호 증진과 상호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친서에 찍혀 있으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유리 필름에 사진이 남아있다.

황제어새는 고종 황제가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대한제국기에 러시아, 이탈리아 등 각국에 일본을 견제하고 대한제국의 지지를 요청하는 친서에 사용한 인장이다. 황제어새의 존재는 문서와 사진으로만 전해지고 있었는데, 최근 국립고궁박물관이 한 재미교포로부터 구입하여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어새는 사방 5.3센티미터로 기존의 새보보다 약 절반 정도 작는데, 근대화된 문서 양식에 맞는 크기로 제작되었다. 재질은 비파괴검사 결과, 뉴의 금과 은의 비율이 81:18, 인대는 57:41의 비율로 따로 제작해 붙였다.

대한제국기에 제작된 새보 중 일부는 한일합방 당시 약탈당하여 일본 궁내성에 보관되다가 미군정에 인수되어 1946년 8월 15일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반환되었다.

성인근, 『국새와 어보 - 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서울, 2018년, 97~102쪽

6. 『외무대신外務大臣』, 1894년 10월 11일



3.6x3.6cm (모각 3.6x3.6x8.0cm, 박재갑)

외무아문外務衙門(1894년 6월 28일~1895년 4월 1일)

조선 말기 외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관청.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이 추진되면서 6월 28일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의 의안에 따라 궁내부宮內府와 의정부議政府로 나누고 의정부 아래에 내무·외무·탁지·법무·학무·공무·군무·농상 등 8아문을 설치하여 7월 20일부터는 아문관제衙門官制에 따라 직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외무아문外務衙門의 직제를 보면 대신 1인, 협판協辦 1인, 참의參議 5인, 주사 20인을 두고, 그 아래에 총무국·교섭국·통상국·번역국·기록국·회계국 등 6국을 설치하였다. 총무국은 서무를 총괄하던 곳으로서 참의(국장) 1인, 주사 1인을 두고, 교섭국은 외교 사무 이외에 만국의 공법·사법을 심사하는 업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4인을 두었다.

통상국은 통상 및 항해사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2인을 두고, 번역국은 외국 공문의 번역업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4인을 두고, 기록국은 조약 및 외교문서의 보관업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번역국장 겸임) 1인, 주사 6인을 두고, 회계국은 회계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2인을 두었다.

1895년 4월 1일 별도의 외부관제를 공포하고 외부外部로 개칭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7. 『외부대신外 部大臣』, 1895년5월3일, 1899년10월30일



외무대신이 외부대신으로 바뀐 것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1894년 6월 28일 설치된 외무아문外務衙門이 설치된 지 일 년이 채 못되어 1895년 4월 1일 외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김인걸, 개인 교신, 2022. 11. 18.

3.6x3.6cm (모각 3.6x3.6x8.0cm, 박재갑)

8. 『칙명지보 勅命之寶』, 1908년



11.0x11.0cm (모각 9.0x9.0x3.0cm, 박재갑)

새김 1. 『칙명지보』(한글) 勅命之寶(韓契), 2020



한글로 번역한 서예 작품을 위하여 한글 칙명지보 인장을 돌에 새겼다. 글자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새의 글자체를 따르려 노력하였다.

9.0x9.0x3.0cm, 박재갑

부록

1. 그림 목록

순번	제목
그림 1	대한의원개원칙서
그림 2	한글서체도韓契書體圖
그림 3	「한글재민체1.0」 제작 과정
그림 4	「한글재민체」 한자 획의 특징
그림 5	「한글재민체」 간체자
그림 6	「한글재민체」 간체자 · 번체자 비교
그림 7	「한글재민체」 일본 가나문자

2. 표表 목록

순번	제목
표1	조선시대 사자관 운영 현황
표2	사자관청등록수록 외교문서 작성 기사 목록
표3	사자관청등록수록 사자관 참여 기록물 목록
표4	한글서체표韓契書體表
표5	개화기 국새의 종류와 형태 및 크기
표6	대한제국기 국새의 종류와 형태 및 크기

3. 한글정자체韓契正字體 작품作品 목록

순번	제목	원본 제작 시기	원본 크기	임서 재료	임서 크기	임서 시기	인장印章
조선 제4대왕(1418~1450년) 세종世宗							
	훈민정음 해례본	1446년					
조선 제6대왕(1452~1455년) 단종端宗							
임서 1	홍무정운역훈 譯訓	1455년	31.3x21.0cmx2단	한지에 먹	32.0x42.0cm	2022년 12월	
조선 제7대왕(1455~1468년) 세조世祖							
임서 2	훈민정음 언해본 諺解本	1459년	32.5x22.5cmx2장	한지에 먹	31.0x52.0cm	2022년 11월	
임서 3	상원사중창권선문	1464년	32.5x12.0cmx첩	한지에 먹	32.5x145.0cm	2022년 10월	체천지보 體天之寶
조선 제9대왕(1469~1495년) 성종成宗							
임서 4	삼강행실도언해	1481년?	5.3x12.2cm	한지에 먹	32.0x69.0cm	2022년 12월	
조선 제14대왕(1567~1608년) 선조宣祖							
복각 1	훈민정음언해본 희방사본	1568년	31.8x21.9cmx2장	한지에 프린팅 잉크	30.0x52.0cm	2018년 5월	
임서 5	선조국문유서 諭書	1593년 9월	80.0x40.0cm	한지에 먹	91.0x59.0cm	2020년 9월	유서지보 諭書之寶
임서 6	선조어필 御筆 숙의에게	1597년, 선조 30년 8월	19.8x31.5cm	한지에 먹	36.0x47.0cm	2022년 11월	
임서 7	선조어필	1603년, 선조 36년	28.0x21.2cm	한지에 먹	38.5x30.0cm	2022년 11월	대재건원 大哉乾元
임서 8	선조대왕어필언간	1603년, 선조 36년 동짓달	32.6x18.0cm	한지에 먹	35.0x25.0cm	2022년 11월	대재건원 大哉乾元
조선 제17대왕(1649~1659년) 효종孝宗							
임서 9	효종대왕어서 御書	1652~1659년	35.2x18.0cm	한지에 먹	46.0x43.0cm	2022년 11월	
조선 제19대왕(1674~1720년) 숙종肅宗							
임서 10	숙종대왕언찰어필	1685년	27.5x23.8cm	한지에 먹	39.0x36.0cm	2022년 11월	
임서 11	숙종대왕어필 명안공주방	17세기	22.7x27.2cm	한지에 먹	35.0x38.0cm	2022년 11월	
임서 12	숙종대왕언찰어필 숙명공주방	1699년	21.5x33.2cm	한지에 먹	37.0x53.5cm	2022년 11월	
조선 제20대왕(1720~1724년) 경종景宗							
임서 13	소훈이씨제문 祭文	1721년	27.9x152.8cm	한지에 먹	37.0x155.0cm	2022년 12월	

조선 제21대왕(1724~1776년) 영조英祖

임서 14	어제자성편언해	1746년		한지에 먹	37.6x24.2cm	2020년	
임서 15	천의소감언해	1755년	36.5x23.2cm	한지에 먹	36.5x24.0cm	2022년 11월	
임서 16	고문정보언해	영조년간	30.3x23.5cm	한지에 먹	31.5x24.5cm	2022년 10월	
임서 17	임산예지법*	18세기	26.5x10.2cmx첩	한지에 먹	34.0x240.0cm	2020년	

조선 제23대왕(1800~1834년) 순조純祖

임서 18	언서첨서문序文	1802년	24.9x9.9cmx첩	한지에 먹	39.0x31.0cm	2022년 11월	
임서 19	유빈박씨애책문哀冊文	1823년	19.0x159cm	한지에 먹	23.0x155.0cm	2022년 10월	
임서 20	학석집(익종)언해	19세기	25.7x18.9cm	한지에 먹	27.0x20.0cm	2022년 11월	
임서 21	대전중궁전상존호시왕세자 자내친상책보진치사전문 표리행례 흘기笏記	1827년	25.3x12.5cmx첩	한지에 먹	32.5x48.0cm	2022년 11월	

조선 제26대왕(1863~1907년) 고종高宗

임서 22	대조선국대군주국서國書	1883년 6월 12일		한지에 먹	34.0x40.0cm	2023년 2월	
임서 23	국서제정사	1883년 9월 18일		한지에 먹	34.0x40.0cm	2023년 2월	
임서 24	명성황후상존호 옥책문玉冊文	1890년	26.9x15.9cm	한지에 먹	31.0x80.0cm	2022년 11월	
임서 25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國書(622)	1894년 10월 11일	40.7x51.5cm	한지에 먹	41.0x51.0cm	2022년 11월	외무대신 外務大臣 대조선국보 大朝鮮國寶
임서 26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國書(613)	1895년 5월 3일	42.0x53.5cm	한지에 먹	41.0x51.0cm	2022년 11월	외무대신 外部大臣 대조선국보 大朝鮮國寶
임서 27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國書(617)	1899년 10월 30일	41.5x51.8cm	한지에 먹	41.0x51.0cm	2022년 11월	외무대신 外部大臣
임서 28	외진연시무동각정제무 도출기	1901년	24.8x7.0cmx첩	한지에 먹	36.0x28.0cm	2022년 10월	
임서 29	책황귀비흘기	1903년	27.6x9.2cmx첩	한지에 먹	39.0x32.0cm	2022년 10월	
임서 30	고종황제의 밀서密書	1906년	23.5x36.2?cm	한지에 먹	33.5x47.0cm	2022년 11월	대한국새 大韓國璽

조선 제27대왕(1907~1910년) 순종純宗

임서 31	대한의원개원칙서**勅書	1908년	43.0x59.5cm	한지에 먹	43.0x59.0cm	2019년 5월 25일	칙명지보 勅命之寶
임서 32	서순행일기日記	1909년	26.8x19.0cm	한지에 먹	39.0x30.0cm	2022년 9월	

임산예지법*전시 : 『함께 쓰고 함께 그리다 -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0. 10. 08. ~ 11. 12.

대한의원개원칙서**전시 : 『명사서예전』, 『제12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2019. 10. 12. ~ 11. 10., 299쪽

4.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작품作品 목록

순번	제목	원문 제작 시기	작품 재료	작품 크기	작품 제작 시기	전시
국사國事						
작품 1	정대마도교서(국한문)	1419년 6월 9일	한지에 먹	90.0x60.0cm	2022년 5월	전시(-)
작품 2	징비록 서문(국한문)	1604년	한지에 먹	90.0x60.0cm	2022년	전시(-)
작품 3	선조국문유서(국문)	1593년	한지에 먹	91.0x59.0cm	2020년 10월	전시(-)
작품 4	고종이 지어 팔도와 사도의 노인과 백성들에게 내린 윤음(국문)	1882년	한지에 먹	128.0x70.0cm	2020년 10월	명사서예전, 제13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2021년 11월 5일~12월 5일, 251쪽
작품 5	삼일독립선언서(국문)	1919년	한지에 먹	114.5x62.0cm	2021년 8월	*전시2
작품 6	宣誦書(국한문)	1919년	한지에 먹	59.5x114.5cm	2021년 8월	*전시2
작품 7	大韓民國臨時憲章宣布文(국한문)	1919년	한지에 먹	96.0x54.0cm	2021년 8월	*전시2
의학醫學						
작품 8	학부대신께 올리는 글(국문)	1898년 11월 7일	한지에 먹	3.0x105.0cm	2022년 9월	*전시2
작품 9	상학부대신서上學部大臣書(한문)	1898년 11월 7일	한지에 먹	41.5x127.5cm	2021년 5월	*전시2
작품 10	학부대신답서(국한문)	1898년 11월 9일	한지에 먹	42.5x58.5cm	2021	*전시2
작품 11	칙령제7호(국한문)	1899년 3월 24일	한지에 먹	43.0x59.0cm	2022년 3월	*전시2
작품 12	칙령제9호(국한문)	1907년 3월 10일	한지에 먹	43.0x59.0cm	2022년 3월	*전시2
작품 13	대한의원개원칙서(국문)	1908년 10월 24일	한지에 먹	43.0x59.0cm	2020년 5월	*전시1
작품 14	경성의학전문학교 형설기념 사진첩 머리말(국한문)	1924년 3월	한지에 먹	43.0x69.0cm	2022년 3월	*전시3
작품 15	역질 관련 영조 윤음(국문)	1750년 5월 10일	한지에 먹	42.5x58.5cm	2021년 6월	*전시1
작품 16	무오년 독감(국한문)	1799년 봄	한지에 먹	42.5x58.5cm	2021년 봄	*전시2
사상思想						
작품 17	천화(국한문)	2022년 봄	한지에 먹	43.0x43.0cm	2022년 봄	*전시3
작품 18 (새김 2)	천물무간(국한문)	壬寅	돌에 새기고, 한지에 인주	12.0x12.0cm	2022년 3월 26일	*전시3
작품 19 (새김 3)	천지인상생심(국한문)	壬寅	돌에 새기고, 한지에 인주	12.0x12.0cm	2022년 4월 5일	*전시3

* 전시 1 : 『함께 쓰고 함께 그리다 -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0. 10. 08. ~ 11. 12.

* 전시 2 : 『함께 쓰기 - 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1. 11. 2. ~ 12. 14.

* 전시 3 :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2. 05. 25. ~ 06. 30.

5. 모각模刻, 복각復刻 및 새김刻 작품作品 목록

순번	제목	원본 제작 시기	원본 크기	각 재료	각 크기	각 시기
모각1	체천지보	1458년	2.0x12.0cm	돌에 모각	12.0x12.0x3.0cm	2022년 12월 25일
모각2	유서지보	1593년	10.0x10.0cm	돌에 모각	10.0x10.0x3.0cm	2020년 5월 25일
모각3	대재건원	1603년	3.7x3.7cm?	돌에 모각	3.6x3.6x8.0cm	2022년 12월 18일
모각4	대조선국보	1889년	9.4x9.4cm	돌에 모각	9.0x9.0x3.0cm	2022년 12월 22일
모각5	대한국새	1897년	9.4x9.4cm	돌에 모각	9.0x9.0x3.0cm	2022년 12월 18일
모각6	외무대신	1894년10월11일	3.6x3.6cm?	돌에 모각	3.6x3.6x8.0cm	2022년 12월 22일
모각7	외부대신	1895년5월3일	3.6x3.6cm?	돌에 모각	3.6x3.6x8.0cm	2022년 12월 23일
모각8	칙명지보	1897년	9.0x9.0x3.0cm	돌에 모각	9.0x9.0x3.0cm	2019년 7월 11일
복각 1	훈민정음 언해본 희방사본	1568년	31.8x21.9cmx2장	나무에 복각	31.0x53.0x3.0cm	2018년 5월 25일
새김 1	칙명지보(한글)	2020년	9.0x9.0cm	돌에 새김	9.0x9.0x3.0cm	2020년 6월 1일
새김 2	(한글재민체 작품 18) 천물무간	2022년	12.0x12.0cm	돌에 새김	12.0x12.0x3.0cm	2022년 3월 26일
새김 3	(한글재민체 작품 19) 천지인상생심	2022년	12.0x12.0cm	돌에 새김	12.0x12.0x3.0cm	2022년 4월 5일

6. 참고문헌

머리말

『대한의원개원칙서』,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www.heritage.go.kr

제1장

- 박갑수, 「축하의 말씀」,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특별전에서, 2022. 5. 25.
- 신선호, 개인 교신, 2022. 3. 17.
- 전광배, 개인 교신, 2023. 3. 16.
- 陳泰夏, 「契(글)자와 글」, 『한자漢字는 우리의 조상 동이족東夷族이 만들었다』, 明文堂, 서울, 2019년, 158~163쪽
- 소재구, 「한글 문화사론」, 『겨레의 글 한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2000년, 172~173쪽
- 김정수, 「한글 문화권의 앞날」, 『겨레의 글 한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2000년, 194~199쪽
- 이건무, 「새천년에 비춰보는 한글의 미래」, 『겨레의 글 한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2000년, 159쪽

제2장

- 서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옥책의 내용과 현황」, 『조선 왕조 어책御冊, 옥책玉冊5』, 국립고궁박물관, 2017년, 199, 252~254쪽
- 서준, 「교명과 축책의 형식과 내용」, 『조선 왕조 어책御冊 - 교명敎命·축책竹冊·금책金冊』, 국립고궁박물관, 2017년, 426쪽~453쪽
- 성인근, 「국새와 어보 - 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서울, 2018년, 193~196쪽
- 張乙演, 『朝鮮時代 王世子 冊封文書 研究 : 竹冊의 作成節次를 中心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韓國學中央研究院, 城南, 2007년, 17쪽
- 한우근韓祐勗, 이태진李泰鎭, 이성우李成茂, 민현구閔賢九, 권오영權五榮, 『역주譯註 경국대전經國大典 번역편纂譯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研究院, 성남시, 1985년, 8쪽
- 조두순 외 저, 『역주 대전회통』, 한국법제연구원, 2000년, www.krpia.co.kr
- 한우근韓祐勗, 이태진李泰鎭, 이성우李成茂, 민현구閔賢九, 권오영權五榮, 『역주譯註 경국대전經國大典 번역편纂譯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研究院, 성남시, 1985년, 18쪽
- 이상백, 「해제解題」, 『국역 사자관청등록 國譯 寫字官廳臚錄』,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2022년, 10~32쪽

- 『經國大典』, 『大典續錄』, 『大典後續錄』, 『續大典』, 『大典通編』, 『六典條例』, 『練藜室記述』, 『承政院日記』, 『鮮王朝實錄』, 『雜科榜目』,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청구기호: 古4652.5-16-v.3), 1870. 以後
- 『寫字官廳臚錄』, 국립고궁박물관, 유물번호: 고궁3817
- 『侍講院冊役所日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청구기호: K2-2780), 1880.
- 『小學諸家集註』,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청구기호: K3-46), 1815.
- 김경록, 「조선시대 사대문서의 생산과 전달체계」, 『한국사연구』 134, 한국사연구회, 2006.
- 김두헌, 「자료 『寫字廳先生案』의 편찬과 제시」, 『대동사학』 3, 대동사학회, 2004.
- 김두헌, 『조선시대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경인문화사, 2013.
- 박용찬, 『弘齋全書』 편찬과정의 寫字官 성격과 역할』, 장서각 45,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통문관지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 옥영정, 「시강원의 서적편찬과 간행기록 고찰」, 『서지학연구』 18, 한국서지학회, 1999.
- 이신영, 『王羲之 書藝에 關한 批評 研究』,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장서각, 『장서각 소장 고문서대관 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 이상백, 「해제解題」, 『국역國譯 사자관청등록寫字官廳臚錄』,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2022년, 10~32쪽
-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 검색
- 윤중尹拯, 「유상기에게 보낸, 6월 12일」, 『명재유고明齋遺稿』, 제26권, 서화』, 1732년, 한국고전종합DB
- 조광조趙光祖, 「가문 의식과 선조先祖의 현창顯彰」, 『정암집貞菴集』, 1892년, 한국고전종합DB
- 이석연, 『전문경력관專門經歷官』, 개인 교신, 2022. 9. 28.
- 조선일보, 2023. 2. 22.
- 이필숙, 개인 교신, 2022. 3. 19.
-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제81회 화봉헌장경매, 서울, 2022. 3. 16.~19. 14쪽
- 전정우, 개인 교신, 2023. 2. 16.
- 전정우, 개인 교신, 2023. 2. 20.
- 윤진영, 개인 교신, 2022. 9. 14.

제3장

- 세종대왕기념사업회·한글글꼴개발연구원, 『한글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년, 138쪽
- 김응학, 개인 교신, 2022.9.13.
- 허경무, 김민택, 『조선 시대 한글 서체의 유형과 명칭』, 한글, 2007년, 275: 193~226쪽
- 홍윤표, 『훈민정음체에서 궁체까지』, 2022년 한글서예학회 학술대회, 창녕, 9. 24. ~ 9. 25., 7~54쪽
- 세종대왕기념사업회·한글글꼴개발연구원, 『한글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년, 15쪽
-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체古體, 예문, 네이버 검색
- 홍윤표, 『한글 서예와 한글 서체』, 태학사, 파주, 2023년, 189~194쪽
- 박병천, 개인 교신
- 사) 갈물한글서회 소개, <http://www.galmul.or.kr/>
- 윤양희, 『중학교 서예』, 우일출판사, 서울, 1984년, 19쪽
- 윤양희, 『한글書藝 指導方法 改善을 위한 研究』, 韓國教育開發院, 서울, 1985년, 43쪽
- 장지훈, 개인 교신, 2022. 9. 13.
- 윤양희, 개인 교신, 2023. 3. 24.
- 세종대왕기념사업회·한글글꼴개발연구원, 『한글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년, 268쪽
- 두산백과 두피디아, 2022. 10. 13., 네이버 검색
- 박병천, 『한글서체학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서울, 2014년, 45~46쪽
- 홍윤표, 『한글 서예와 한글 서체』, 태학사, 파주, 2023년, 426쪽
- 장지훈, 『한글서예 서체명칭의 통일방안 연구』, 『서예학연구』, 2015년, 27 : 401~426쪽
-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 - 제1단계 명칭통일 백서』, 한글서체명칭통일추진위원회, 2007.
- 광노봉,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 서예문인화書藝文人畫, 2015. 1., 92~103쪽
- 광노봉,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2)』, 서예문인화書藝文人畫, 2015. 2., 94~103쪽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년, 360~363쪽
- 이규복, 『조선시대 한글 글꼴의 형성과 변천』, 이서원, 성남시, 2020년
- 友千 고재석 부연敷衍, 개인 교신, 2022. 9. 14.

- 정광, 『새로운 시각視角으로 본 훈민정음 제정의 경위經緯 - 세종의 새 문자 제정에 참여한 인물을 중심으로』, 영축총림 통도사 특별학술대회,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 영축총림 통도사, 2022년 10월 7일, 7쪽
-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네이버 검색
-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 검색
- 해서체,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 유광중, 『중국 정부의 붓글씨 필체』 조선일보, 2022. 1. 14.
- 우리말샘, 네이버 검색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네이버 검색
- 이민식, 『정조正祖의 서체반정書體反正』, 『경기사학 6』, 경기사학회, 2002년, 161~162쪽.
-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일성록日省錄』, 서기 1785년 정조 9년 6월 19일(병신), 0174권, 奎12811, 0099-0099면
- 이익李瀾(1681~1763), 민족문화추진회 편, 『제9권, 인사문人事門, 설암雪庵』, 『국역 星湖僊說IV』, 민족문화추진회·민족문화문고간행회, 서울, 1982년, 70~72쪽
- 박용만, 『弘齋全書』 편찬과정의 寫字官 성격과 역할, 장서각, 2021년, 45:134~163쪽
- 박세당朴世堂, 『석봉石峯, 시詩 석천록石泉錄 상』, 『세계집西溪集 卷2』, 간행년도 미상, a134_033a 쪽, 한국고전종합DB
- 한재훈, 개인 교신, 2022. 8. 24.
- 이익, 『성호사설』 한석봉 부분 참고, 고재석, 개인 교신, 2023. 3. 13.

제4장

-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1.0』, 공유마당(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10. 8.
- 하철용, 개인 교신
- 박갑수, 개인 교신
- 한재훈, 개인 교신
-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년, 22권 3호, 328쪽
- 한국학중앙연구원 윤진영, 박용만 제공
-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2.0』, 공유 마당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11. 3.

-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공유 마당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5. 25.
- 진황가陳鳳嘉, 김민金民, 『韓契在民體-韓國字體設計界的新突破』, 상하이 방직(주)회사上海紡織控股(集團)公司, volume 456, 74~76쪽
- 김지영, 자료 제공, 2023. 2.

제5장

- 정광, 자료 제공, 2022. 11. 18.
- 박준호, 『조선중기 전서篆書の 유행과 그 의미』,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2011년, 43~55쪽
- 소재구, 『한글 문화사론』, 『거례의 글 한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2000년, 168쪽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문화재청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정진웅, 자료 제공
- 성파, 문화재청, 자료 제공
- 김무봉 역, 간경도감 언해, 『상원사 중창권선문』, 권선문 주해 - 신미信眉 등 씬, 1463년(세조 9), 세종한글고전, db.sejongkorea.org
- 김무봉 역, 간경도감 언해, 『상원사 중창권선문』, 권선문 어첩 - 세조世祖 씬, 1463년(세조 9), 세종한글고전, db.sejongkorea.org
- 한재훈, 개인 교신, 2022. 11. 8.
- 김무봉, 『오대산 상원사 중창권선문』, 『역주 상원사중창권선문-영험약초·오대진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0, 35~56쪽
- 최홍식, 김정수, 자료 제공
- 김정수, 『역주 삼강행실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0년, 45쪽
- 김정수, 『역주 삼강행실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0년, 7~10쪽
- 부산시립박물관, 자료 제공
- 한재영, 심보경, 『선조교서(백성유환교서)』, 『역주 윤음 언해 제2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7, 15~18쪽
- 선조 찬, 1593년(선조 26), 1장, 필사, 80.0x40.0cm, 부산시립박물관(권이도 기탁), 보물 제951호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 92~93쪽
-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자료 제공, 2022. 10. 11.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10~11쪽
-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4일, 계유 3번째 기사, 1597년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부록附錄, 13~14쪽
- 金一根, 『諺簡의 研究 - 한글書簡의 研究와 資料集成』, 建國大學校出版部, 서울, 1986년, 55~56쪽
- 『한글서예변천전』, 예술의전당, 1991.
- 『조선 여인의 삶과 문화』 서울역사박물관, 2002.
- 『朝鮮王朝御筆』 예술의전당, 2002.
- 「1603년 선조가 옹주에게 보낸 편지」, 『조선시대 한글편지』, <https://archive.aks.ac.kr/>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9쪽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부록附錄 5, 7, 13쪽
- 金一根, 『諺簡의 研究 - 한글書簡의 研究와 資料集成』, 建國大學校出版部, 서울, 1986년, 262쪽
- 국립청주박물관, 자료 제공, 2022. 10. 05.
- 『조선시대 한글 편지』, 『효종이 숙명공주에게 보낸 편지』-05 <https://archive.aks.ac.kr/>
- 효종대왕,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2011, 66~69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43쪽
- 계명대 동산도서관 벽오고문헌실, 자료 제공, 2022. 10. 5.
- 장요한, 『宸翰帖 坤의 연구 및 역주』, 계명대학교 출판부, 대구, 2019년, 71~74쪽
- 오죽헌시립박물관, 자료 제공, 2022. 10. 11.
- 『숙종이 모후 명성왕후에게 보낸 편지』, 『조선시대 한글편지』, <https://archive.aks.ac.kr/>
- 박정숙, 『조선의 한글편지』, 다운샘, 서울, 2017년, 343쪽
- 『명안 공주』, 『문화원형백과 e조선궁중여성』, 2004,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 네이버 지식백과
- 『국조전고國朝典故, 공주公主 · 부마駙馬』, 『연리실기술 별집 제1권』, 한국고전종합DB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104, 105쪽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부록附錄 38~39쪽
- 박정숙, 『조선의 한글편지』, 다운샘, 서울, 2017년, 347쪽

- 디지털장서각 : 『1721년 11월 소훈이씨昭訓李氏 치제문』 - 王室古文書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훈이씨 제문』, 『英祖妃嬪資料集2 碑誌, 冊文, 教旨, 祭文』,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성남시, 2011년, 60~63쪽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 70~71쪽
- 배영환, 『장서각 소장 영조 어제 언해서류(1) - 어제자성편(언해)와 어제속자성편(언해)를 중심으로』, 이광호 외, 『장서각 소장 한글필사자료 연구』, 태학사, 파주, 2007년, 42쪽
- 영조(조선왕, 1694~1776)찬 英祖(朝鮮王, 1694~1776)撰, 『어제자성편언해(상하)御製自省編諺解(上下)』, K4-4106, MF16-366, 디지털장서각, jsg.aks.ac.kr
- 조항범, 김주필, 황문환, 박용만, 『역주 어제자성편(언해)』, 도서출판 역락, 서울, 2006년, 27~36쪽
- 『천의소감언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년, 0003쪽
- 정윤자, 김길동, 김일환, 변민주, 주경미, 『역주, 천의소감언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성남시, 2019년, 47쪽
- 정윤자, 김길동, 김일환, 변민주, 주경미 역주, 『천의소감언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성남시, 2019년, 4~5쪽
- 英祖(朝鮮) 命撰, 『천의소감언해』, 英祖31年(175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2214-v.1-4
- 황문환, 『장서각 소장 왕실 한글 필사본의 가치』,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년, 312~313쪽
-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년, 253쪽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52~253쪽
- 한국학중앙연구원(MF35-004657), 자료 제공
- 『함께 쓰고 함께 그리다 -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0. 10. 8.~11. 12.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82~83쪽
- 김호, 국역, 개인 교신, 2023.3.13.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21쪽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벽고고문헌실, 자료 제공, 2022. 10. 5.
- 장요한, 『宸翰帖 坤의 연구 및 역주』, 계명대학교 출판부, 대구, 2019년, 44~48쪽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30~231쪽
- 남공철 찬, 1823년(순조23), 1첩, 필사본, 19.0x15.9cm, 2-3019
- 효명세자 지음, 19세기, 종이에 필사, 25.7x18.9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 국립한글박물관, 『덕온공주 집안 3대 한글 유산 - 공주 글씨 덕으시니』, 국립한글박물관, 서울, 2019년, 18~19쪽
- 禮曹(朝鮮) 編, 『대전중궁전상존호시왕세자자내친상책보진치사전문표리행례홀기』, 奎27613, M/F82-16-61-F,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
- 국립고궁박물관, 『갓쓰고 미국米國에 공사公使 갖든 이악이』,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022년, 20쪽
- 국립고궁박물관, 『갓쓰고 미국米國에 공사公使 갖든 이악이』,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022년, 12~21쪽
- 이현주 책임연구원 국역,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연구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24~225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 『승정원일기』, 民族文化推進會, 2000.
- 『藏書閣所藏儀軌解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2,
- 『明成皇后加上尊號玉冊文(2-404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8. 13.
- 한재훈, 원문 입력 및 국역
- 김건우, 『근대 공문서의 탄생』, 소와당, 서울, 2008년, 114~115쪽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2020. 3. 2.
- 김인걸, 개인 교신, 2022. 11. 18.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 222쪽
- 박부자, 『장서각소장 등록류 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성남시, 2016년, 220~221쪽
- 정은주, 『進封皇貴妃儀軌』(奎13211)
- 더글라스 스토리 Douglas Story 지음, 권민주 옮김, 『고종황제의 밀서 - 다시 밝혀지는 을사보호조약』, (원작. To-morrow in the East), 서울, 글내음, 2004년, 별첨
- 더글라스 스토리 Douglas Story 지음, 권민주 옮김, 『고종황제의 밀서 - 다시 밝혀지는 을사보호조약』, (원작. To-morrow in the East), 서울, 글내음, 2004년, 71~73쪽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자료 제공

- 『명사서예전』, 『제12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9』,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2019. 10. 12. ~ 11. 10., 299쪽
- 한재훈, 자료 제공, 2022. 10. 28.
- 화봉문고,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제81회 화봉현장경매』, 서울, 2022년, 3쪽, 14쪽
- 『대한제국관보大韓帝國官報』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 『황성신문皇城新聞』
-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 김소영, 『순종황제의 남·서순행과 충군애국론』, 한국사학보 39호, 2010.
- 이왕무, 『대한제국기 순종의 남순행 연구』, 정신문화연구30권 2호, 2007.
- 이왕무, 『대한제국기 순종의 서순행 연구 -서순행일기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31, 2011.
- 『서순행西巡幸』, 위키 실록사전, sillokwiki
-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성과포털, 한국학 기초자료사업 장서각 국가전적 자료센터 구축사업 2단계, <http://waks.aks.ac.kr/>

제6장

- 김상훈, 『이승만의 대마도對馬島 반환요구~국제사회 공식문헌을 중심으로』, 한국논단, 68~79쪽, 2011.
- 조선왕조실록, 『상왕이 대마도를 정벌할 것에 대해 중외에 교유하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9일 임오 5번째 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국사편찬위원회
- 안동 하회마을 사이트 검색 <http://www.hahoe.or.kr/>
- 임진왜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 92쪽.
- 한재영, 심보경, 『어제유팔도사도기로운민등윤음 해제』, 『역주 윤음 언해 제2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7, 345~355쪽
- 안병욱, 개인 교신
- 『함께쓰기-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1. 11. 2.~12. 14.
-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2. 5. 25.~6. 30.

- 『함께 쓰고 함께 그리다-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0. 10. 8.~11. 12.
- 한국국학진흥원, 자료 제공
- 김채식, 박갑수 국역, 개인 교신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 92~93쪽
- 한재영, 심보경, 『어제유팔도사도기로운민등윤음』, 『역주 윤음 언해 제2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7년, 347~355쪽
- 『명사서예전』, 『제13회 세계서예 전북비엔날레 2021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2021. 11. 05. ~ 12. 05., 251쪽
- 高宗(朝鮮) 撰, 『어제유팔도사군기로운민등윤음』, 『御製諭八道四郡耆老人民等繪音』, 奎2061, 1冊(5張), 高宗19年(188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19년 1월
- 유홍준, 자료 제공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05.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05, 『大韓民國臨時憲章宣佈文』, 국사편찬위원회 -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front>
- 박갑수, 허성도, 전광배, 김채식 국역, 자료 제공
- 上學部大臣書 : 池錫永上疏/ 池錫永(朝鮮) 著, 한국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jsgimage.aks.ac.kr/view?qCond=bookId&q=K2-2005_001
- 池錫永(朝鮮) 著, 『學部大臣答書』, 『池錫永上疏』 한국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jsgimage.aks.ac.kr/view?qCond=bookId&q=K2-2005_001
- 議政府(朝鮮) 編, 『勅令, 奎17706-7冊』, 筆寫本, 19世紀末-20世紀初 (高宗 31年-隆熙4年:1894-1910)
- 議政府(朝鮮) 編, 『勅令, 奎17706-19冊』, 筆寫本, 19世紀末-20世紀初 (高宗 31年-隆熙4年:1894-1910)
- 김상태, 허성도, 박갑수 국역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의학사연구실 김상태 제공, 박갑수 국역
- 『영조 26년 5월 10일 신해 4번째 기사』, 『영조실록 71권』, 서기 1750년, 청 건륭乾隆 15년, 김채식의 도움으로 문장을 일부 수정
- 윤기 지음, 이규필 옮김, 『무오년 독감』, 『무명자집 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서울, 2014, 79~81쪽
- 화산和山 한재훈韓在壩 근서謹書, 개인 교신, 2022. 4. 27.
- 박재갑, 『이건희 삼성 회장이 남긴 두 가지 유산』, 조선일보, 2021. 8. 17.

- 우천友千 고재석高在錫 근서謹書, 개인 교신, 2022. 4. 26.
- 박재갑, 『유학儒學의 천인관天人觀에 關한 연구研究』, 성균관대학교, 2017.
- 『서울대학교, 박재갑 한국세모주연구재단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국민건강의 초석을 놓다』, VOM: Vision of Medicine, 서울대학교병원 매거진, Vol. 34, 2022, 26~29쪽

제7장

- 『한국인장의 개요』,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www.heritage.go.kr
- 孫煥一, 『朝鮮時代의 寶印』, 한국정신문화원 장서각 편編, 『보인소의귀寶印所儀軌』, 학연문화사, 서울, 2004년, 163~192쪽
- 성인근, 『국새와 어보 - 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서울, 2018년, 120~121쪽
- 「세조 4년 2월 26일 을묘 5번째 기사」, 『세조실록 11권』, 1458년
- 박준호, 『조선시대 행정 문서의 어보御寶, 관인官印, 서명署名』, 김연수, 『조선왕조의 관인』, 국립고궁박물관, 2009년, 150쪽
- 한재훈 작성, 개인 교신, 2022. 10. 8.
- 『大典會通』 권3(42장 전면), 禮典 璽寶 諭書之寶, http://kyudb.snu.ac.kr/pf01/rendererimg.do?item_cd=JRD&book_cd=GK01302_00&vol_no=0003&page_no=0089
- 한재훈, 개인 교신, 2022. 10. 28.
- 한국정신문화원 장서각 편編, 『보인소의귀寶印所儀軌』, 학연문화사, 2004.
- 성인근, 『국새와 어보 - 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서울, 2018년, 77~81쪽
- 행정안전부 「국새」, 2021 『정부의전편람 1』, <https://www.mois.go.kr>
- 한재훈 작성, 개인 교신, 2022. 10. 28.
- 행정안전부-2021 정부의전편람 1, 『국새』, 등록일 2021년 12월 20일, <https://www.mois.go.kr>
- 성인근, 『고종 황제 비밀 국새』, 소와당笑臥堂, 서울, 2010년, 49쪽
- 성인근, 『국새와 어보 - 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서울, 2018년, 94~96쪽
- 성인근, 『국새와 어보 - 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서울, 2018년, 97~102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김인걸, 개인 교신, 2022. 11. 18.

한글재민체 소고
韓契在民體 小考

박재갑 朴在甲 Park Jae-Gahb
김민 金民 Kim Min

한글재민체연구회
이메일 hangeuljaemi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hangeuljaemin.kr>

ISBN 979-11-980056-1-8 (PDF)

비매품/무료

